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THE PRACTICE OF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CASE OF GEUMAM CHURCH**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실천 방안 연구: 금암교회를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in Woo Kim (김진우)

Lynchburg, Virginia

May 2021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Yun Seop Kim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E OF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CASE OF GEUMAM CHURCH

Jin Woo Kim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1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is study has its purpose on presenting a model of rural missions by examining the case of Geumam Church which grew via agricultural activities. In the midst of crisis of Korean churches due to decline or stagnation in growth, situations for rural churches are far more disastrous. Yet,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should be disregarded. In this context, the researcher will examine biblical and theological grounds and related literatures to search for alternatives that would bring vitality to rural missions which, at the moment, have lost their vividness. There will be studies of rural culture characteristics through understanding culture in general sense; studies on how one can bear fruits and benefits in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case studies on churches that conduct rural missions via agricultural activities; and examination of the survey that was conducted to members of each corresponding church.

The researcher intends to present a new paradigm for missional rural churches which the next generation would join and to give aid in establishing local communities that churches play a central role by approaching the local rural inhabitants.

Length: 182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THE PRACTICE OF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CASE OF GEUMAM CHURCH**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인식 및 실천 방안 연구: 금암교회를 중심으로

Jin Woo Kim (김진우)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1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연구는 농업 활동으로 성장한 금암교회 사례를 통해 어떤 선교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농촌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교회가 성장 둔화와 침체, 혹은 감소로 인하여 어렵다고 하지만 농촌교회의 사정은 더욱 참담한 형편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농촌 선교를 외면할 수 없는 법이다. 이에 생동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국의 농촌교회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농촌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와 관련 문헌들을 고찰할 것이다. 특별히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거쳐 농촌 문화와 관련된 특성들을 연구하고,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에 어떤 유익과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하여 농촌 선교를 하고 있는 몇 개 교회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며 해당 교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선교적 농촌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지역 농촌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하여 교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초록 길이: 138 words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2015년 따스한 봄날 아래 리버티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리버티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D.Min 과정 동안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리버티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존경하는 교수님들, 수고해 주신 김형규 목사님, 그리고 목회 사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을 나누며 즐거움과 은혜로 함께 했던 학우 목사님들, 무엇보다 논문 연구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김운섭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의 길에서 동반자로, 동역자로 늘 함께하며 끊임없이 기도와 격려로 힘과 위로가 되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되어 주는 두 아들 하람이 예람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위 목회가 성공하기를 바라시고 항상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장인-장모님,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지가 되는 처제와 처남 식구들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논문을 위해 기꺼이 인터뷰와 설문에 응하여 주신 울곡교회 최용기 목사님, 좌포교회 강서구 목사님, 방동교회 오진희 목사님, 갈계교회 강기원 목사님과 특별히 여러 가지 큰 도움을 주신 금암교회 채금석 목사님과 이진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이귀순 장로님, 고미옥 장로님, 최여진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논문이 나오기까지 성원해 주시고 애 써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ii
초록	
 TABLES	 x iii
표	
 ABBREVIATIONS	 xvi
약어	
 SUMMARY	 xv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Purpose of Study and Statement of the Problem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2. Statement of Scope and Limitation.....	5
범위와 한계	
3.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5
성경적 신학적 근거	
4. Statement of Methodology.....	7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5. Review of Literature	8
문헌 검토	
1) Books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he Korean Church.....	8
한국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서적	
2) Books Related to Mission	10
선교와 관련된 서적	
3) Books Related to Rural and Rural Missions and Culture	11
농촌과 농촌 선교,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서적	
4) Professional Materials Such as Related Thesis.....	12
관련 논문 등 전문 자료	

5) Bible Verses Related to Thesis	12
논문 관련 성경 구절	
CHAPTER 2: Theoretical Basis of Missions and Understanding Rural Culture Characteristics..	14
제 2 장: 선교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 이해	
1. Mission Definition and Biblical Background	14
선교에 대한 정의와 성서적 배경	
1) Dictionary Definition of Mission.....	14
선교에 대한 사전적 정의	
2) Biblical Background on Mission.....	16
선교에 대한 성서적 배경	
2.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Rural Missions	23
농촌 선교의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배경	
1) Biblical Background of Rural Missions.....	23
농촌 선교의 성서적 배경	
2) The Theological Background of Rural Mission.....	28
농촌 선교의 신학적 배경	
3)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rural Missions	32
한국 농촌 선교의 역사적 배경	
3. Cultur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37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	
1) Understanding of Culture.....	37
문화(culture)에 대한 이해	
2) Understanding of Rural Culture.....	38
농촌 문화에 대한 이해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ural Culture.....	39
농촌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	
4)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Culture	40
농촌 문화의 특성 이해	
4. The Reality and Mission of the Rural Church	45
농촌교회의 현실과 선교	

1) Missionary Problems of Rural Church	45
농촌교회의 선교 문제점	
2) A Study on the Missionary Role of Rural Church	48
농촌교회의 선교적 역할 모색	
5. Sub-conclusion.....	52
소결론	
CHAPTER 3: Case Studies of Churches Conducting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54
제 3 장: 농업 활동을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 사례 연구	
1. Geumam Church	54
금암교회	
1) Overview of Geumam Church	54
금암교회의 개요	
2) Geumam Church and Local Situation	55
금암교회와 지역 상황	
3) Growth Achieved through Corn Farming Started with Students.....	55
학생들과 시작한 옥수수 농사로 이룬 성장	
4) The Current Geumam Church.....	57
현재의 금암교회	
2. Yulgok Church.....	58
율곡교회	
1) Overview of Yulgok Church.....	58
율곡교회의 개요	
2) Yulgok Church and local situation.....	58
율곡교회와 지역 상황	
3) A church that Generates Local Residents' Profits with Organic a Cattle Shed and Organic Farming Methods.	59
유기농 축사와 유기농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교회	
4) A church with Local Residents through Social Welfare Projects.....	60
사회복지 사업으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5) The Current Yulgok Church	61
현재의 율곡교회	

3. Jwapo Church.....	61
좌포교회	
1) Overview of Jwapo Church.....	61
좌포교회의 개요	
2) Jwapo Church and Local Situation	62
좌포교회와 지역 상황	
3) A Church that Joins the Economic Community from Cradle to Grave	63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제공동체로 함께 하는 교회	
4) The Current Jwapo Church	65
현재의 좌포교회	
4. Galgye Church	66
갈계교회	
1) Overview of Galgye Church	66
갈계교회의 개요	
2) Galgye Church and Local Situation.....	67
갈계교회와 지역 상황	
3) A church that Started as Cheonggukjang and Formed a Self-sufficient Community	68
청국장으로 시작하여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룬 교회	
4) The Current Galgye Church.....	71
현재의 갈계교회	
5. Sub-conclusion.....	71
소결론	
CHAPTER 4: Studies on Survey of Rural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74
제 4 장: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에 관한 설문 연구	
1. Purpose and Procedures of the Survey.....	74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Purpose of the Survey	74
설문의 목적	
2) An Object of Study	74
연구 대상	

3) Survey Procedures and Methods.....	75
설문 절차와 방법	
4) Survey Composition.....	76
설문 구성	
5)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76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2. Survey Results	78
설문 결과	
3. Results on the Frequency-Analysis.....	95
빈도 분석 결과	
4. Results of Verifying Differences between Groups(T-test, ANOVA).....	96
집단 간 차이검증(T-test, ANOVA) 결과	
5. Results on the Cross-Analysis	97
교차분석 결과	
1) Results of Cross-Analysis According to Age	98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2) Cross-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Religion from Birth.....	104
모태신앙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3) Results of Cross-Analysis According to Church Offices.....	106
직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6.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in Variables.....	10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The Main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110
주요변인 기술통계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	110
상관분석 결과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of Influence Based on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	111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 영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 Sub-conclusion.....	112
소결론	

CHAPTER 5: Proposal for Vitalizing Rural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115
제 5 장: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Agricultural Activities for Rural Mission.....	115
농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1) Foundation Work	116
기초작업	
2) Preparatory Work for Agricultural Activities	119
농업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3) Cultivation Method	123
재배 방법	
4) Explore Ways for Post-harvest Sales and Activities.....	129
수확 후 판매 및 활동 모색	
2. Presenting Agricultural Activities for Rural Missions that with the Next Generation	129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농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제시	
1) Starting with the Goal of Promoting Relationships	130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삼고 시작하기	
2) Encouraging the Cooperation of Elders and Church Officials	131
장로 및 교회 중직자들의 협력 유도	
3) Clear Motivation	132
분명한 동기 부여	
4) Set a Time to Participate	132
참여 시간 정하기	
5) Study and Research the Crops to be Cultivated and Select Them	133
재배할 작물에 대한 연구 및 조사하여 선정하기	
6) Cultivation.....	133
재배하기	
7) Making Relationships through Community Activities after Harvesting	133
수확 후 공동체 활동으로 관계 맺어 가기	
3. A Missionary Agricultural Activity Education Program with the Next Generation for Motivation.....	134
동기 부여를 위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선교적 농업 활동 교육 프로그램	

1) Targets and educational objectives	135
대상과 교육목표	
2) Way of Proceeding.....	135
진행방식	
3) Detailed Pprogram for Each Week	136
주 차별 세부 프로그램	
4. Sub-conclusion.....	145
소결론	
CHAPER 6: Conclusion	147
제 6 장: 결론	
Appendix A [Consent (English)]	151
부록 A [설문동의서(영문)]	
Appendix B [Consent (Korean)]	153
부록 B [설문동의서(한글)]	
Appendix C [Survey (English)]	155
부록 C [설문지(영문)]	
Appendix D [Survey (Korean)].....	161
부록 D [설문지(한글)]	
Bibliography	165
참고자료	
IRB Approval.....	170
IRB 승인	

TABLES
표

1. 2018년 대비 2019년 주요교단 교인 수 증감 현황.....	1
2. 농촌인구 감소 추이.....	2
3.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현황 - 시군구.....	44
4. 좌표교회 성도 수 변화.....	65
5.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76
6.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의 요인분석 결과.....	77
7. 인구 사회학적 영역.....	78
8. 농촌에 위치한 교회로서 중요 사역 인식.....	80
9. 교인이 생각하는 금암교회의 유형.....	81
10. 바라는 금암교회의 유형.....	81
11.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82
12. 교회 성장을 위한 선교의 방안으로 농업 활동의 필요성.....	83
13.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83
14.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84
1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참여 적극성.....	85
16.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85
17. 다른 교인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86
18. 농촌교회로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선호도.....	87
19.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장점.....	87
2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교회 성장 유익 여부.....	88
21.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	89
22.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개인 신앙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 정도.....	90

23.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신앙의 변화.....	91
24.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91
2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	92
26. 선교를 위한 활발한 농업 활동을 위해 필요 사항.....	93
27.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물.....	94
28.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담임목사의 필요 사항.....	94
29.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95
30. 집단 간 차이검증(T-test, ANOVA).....	97
31.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에 비적극적 이유의 교차분석 결과.....	98
32.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신앙변화에 있어서의 교차분석 결과.....	100
33.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단점 교차분석 결과.....	101
34.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결과.....	102
35.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결과.....	103
36.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유익의 교차분석 결과.....	104
37.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따른 신앙변화 교차분석 결과.....	105
38.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결과.....	106
39. 직분과 중요 사역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07
40. 직분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비참여 이유의 교차분석 결과.....	108
41.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 조사를 위해 추출된 질문.....	109
42.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 조사를 위해 추출된 질문.....	110
43. 추출된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110
44. 상관관계 분석 결과.....	111
4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 영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12
46. 옥수수 재배 시기.....	123
47. 고구마 재배 시기.....	126

48. 배추 재배 시기	127
49.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135
50. 1주 차 세부 프로그램.....	137
51. 2주 차 세부 프로그램.....	138
52. 3주 차 세부 프로그램.....	139
53. 4주 차 세부 프로그램.....	141
54. 5주 차 세부 프로그램.....	143
55. 6주 차 세부 프로그램.....	144

ABBREVIATIONS

약어

ANOVA	Analysis of Variance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KJV	King James Version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SFC	Student For Christ(학생신앙운동)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Korean churches have shown stagnation in growth since the 1990s and are numbers are declining. Moreover, the future for Korean churches seems not bright due the COVID-19 pandemic. Amongst this crisis of Korean churches, situations in rural missions are far more devastating.

Rural villages are being forced to be driven out to a dead end due to continuous decline in population, increase in debts of farmhouses, economic issues such as aggravation in relative income compared to urban workers, low birth rate, and aging. Thereby, rural churches are experiencing identical severe crisis.

Yet, this severe crisis should not be avoided or disclaimed. Despite the decline in population, the fact that there are still inhabitants makes the mission of the Great Commission still legit. Ministers and rural churches are to acknowledge their mission that they were sent to rural regions and are to continue in moving forward with that mission.

While having observed of severe status of rural churches, the researcher was fortunate to come across Geumam Church which grew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and young students. Geumam Church, which is located in outskirts of Gunsan-Si, is a typical rural church. It initiated agricultural activities with 30 teenagers in town. Now tha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itiation, as they grew to young adults, some of them moved to cities to find their jobs but about 15 of them still remain in the church and are giving aid the local mission by serving as key persons in administrations such as welfare center for senior citizens, community child care

center, and local food service. Among the young adults that left to the cities, there are some that come back in weekends and serve. Some of them who left to faraway places still keep in touch and support through prayer and offerings. This growing case that broke through troubles gives hope to the rural mission.

Therefore, this thesis observed the growing case Geumam Church which was achieved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initiated with young students, and thereby, attempts to verify the value of agricultural activities in terms of rural missions and how it produced fruit. Accordingly, the researcher will present hope,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rural missions.

In this regard, the researcher will search for rural mission plans through examining statistics and their analysis, varieties of books, periodicals, dissertations, and especially, will examine some churches that conducted rural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Additionally, the researcher will conduct surveys and analysis targeting the Geumam church members on how they think about rural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However, there will be realistic limitations in quantifying missional affects and qualitative church growth. Case studies of Geumam church and some presented churche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this study, and thereby, the researcher will present alternatives for rural missions.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study focuses on rural regions, “contextualiz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Rural regions have distinctive culture and sentiment due to its agricultural environment when compared to cities or other areas. In this regard, this study will search for and verify general understandings of the term culture, and thereafter, will search for missional directions through studying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as practical case studies, churches that conduct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will be presented: Geumam church in Gunsan-Si, Yulgok church in Wanju-

Gun, Jwapo church in Jinan-Gun, and Galgye church in Namwon-Si. Especially, there will be examinations in opinions of Geumam church members through a survey on how they think about the past 10 years of rural missions through agriculture activities. Laying base on these case studies, the researcher will present an alternative for vitalizing rural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especially by presenting a model for mission that includes the next generation as key persons which was derived from the ideas of Geuman church on how they grew with having young students participate in carrying agricultural activities. In the conclusion part, the researcher will summarize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nd include overall findings.

CHAPTER 2

THEORETICAL BASIS OF MISSIONS AND UNDERSTANDING RURAL CULTURE CHARACTERISTICS

While general definition for “missionary work” is stated as “propagation of one’s religion,” Christian Mission cannot be defined simply as such. Missionary work can be defined as following: “Missionary work is conducts of tasks and delivering a certain message as God’s representative, and at the same time, it is God’s activity. It includes all the humane realms of Christians who were called to declare God’s providence.”

The origin of missionary work has its ground in the Bible. From the whole Old Testament, the Great Commission in the New Testament, to Revelation, the penetrating theme of the whole Bible is missionary work. As a biblical background of rural missions, the initiation of agriculture is often referred to banishment of Adam and Eve due to their sin of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The fact that God gave vegetables and fruits as food for human (Gen. 1:27~29) affords basis and ground for Christian rural mission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Thanksgiving seasons of Israelites such as Feast of Firstfruits, Feast of Weeks, and Feast of Ingathering, agriculture must have been deeply related to their lives. Jesus was from a rural region called Galilee and he often referred to parables that were related agriculture. This was because most of his listeners were living lives that were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e. Thus, the Bible has its background in rural faith communities.

Considering theological basis for rural missions, labor is a God-given-activity as a foundation for human life. Yet, depravity of humans resulted in cursing the land and labor became pain. Accordingly, people gradually began to refrain from God-given-labor and

agricultural work became despised. Recovering agriculture, which is the basis of all labor and land, is recovering God's creativity. Having people be paid according to their physical labor is fulfilling God's justice. Additionally, Jesus' main stage of activity wa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people living there were recipients of the gospel. In other words, the stage for missions was farming and fishing villagers and their residents were subjects for missions. Jesus healed and delivered the gospel to the weak and neglected people who were inhabitants of Galilee which was located in the outskirts of Jerusalem and established the Kingdom of God there. Today's rural regions can be referred as Galilee. Inhabitants of Galilee in those days can be referred to today's rural residents who are living out harsh lives. Ministers are to give comfort, courage, and hope to these rural residents who are neglected from industrialized and digitized society through the gospel, and thereby, have them live vitalized lives.

Observing the history of Korean rural missions, in the late 19th century, most of its features were mainly rural mission because most Korean people back then were farmers.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to Japan in 1910, Japan plundered Korean farmers which led to the collapse of farm villages, and as a result, rural missions were also at stake. Despite some recoveries after the liberation, farm villages were still being neglected due to development centered policies and industrialization that were initiated since 1960's, and thereby, gaps between cities and rural regions were intensified and rural churches have been on the difficult walk.

Missionary work takes place in different cultures. Thus, understanding rural culture is essential for missionary work. Rural culture is substantially traditional, superstitious, and isolated due to influences from geographical, religious, and agricultural environment. Additionally, it is familistic, unselfish, emotional, authoritarian, and people tend to have a simple character. However, these kinds of characteristics are fading away because of frequent interchanges with

cities, dissemination of media, material centered civilization, mechanization, and urbanized lifestyle. The most concerned issue in rural missions is aging, increase of returned farming population, and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churche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world, rural churches cannot be separated from farm villages. Rural churches are called onto the base of farm villages and are to barge its way towards them. Rural missions are to be continued until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of farm villages are. Therefore, rural churches are to search for missionary roles so that farm villages will become stages of missional practices: missionary roles as local communities, missionary roles as representatives of local residents and harmony, and missionary roles as distribution channel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CHAPTER 3

CASE STUDIES OF CHURCHES CONDUCTING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researcher studied the cases of churches that conducted missionary work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Geumam church in Gunsan-Si, Yulgok church in Wanju-Gun, Jwapo church in Jinan-Gun, and Galgye church in Namwon-Si. Four churches presented as case studies are all associated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all been constantly conducting missional work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and are in farm villages in Myeon units within the jurisdiction of Jeollabuk-Do province. This scope derived from considering statistical issue regarding the plausibility of survey population. The reason for selecting Jeollabuk-Do province was for collecting data for studies of churches that conducted missionary work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which are not frequent cases in general. The researcher included interviews with ministers of these churches along with literatures and books that were published from case studied churches.

Geumam church, which is located in Seosoo-Myeon Gunsan-Si Jeollabuk-Do, is a traditional rural church. 55% of the land of Seosoo-Myeon is farmland. When pastor Geumsuk Chae was newly appointed as a senior pastor of Geumam church in 2006, things were at stake in various aspects. Notably, kids from town would come to the church to play and pastor Chae opened his private residence for them to stay comfortably at church. While pastor Chae cared for these kids, the church gained 1186.11 square yard (300 pyoung) of farmland which made the initiation of farming with young students possible. Thereafter, with the profits gained through this farming, young students were able to go on a trip to Baekdu Mountain. There were yearly

profits generated from this farming: corns, sweet potatoes, and napa cabbages. With these profits, the student would go on fieldtrips in vacations all around the country. Through these procedures, relationships were built which made nurturing in faith and discipleship possible. These students now became young adults and grew to be key workers of the church. They are currently in charge of big parts in administering welfare center for senior citizens, community child care center, and local food service, and thereby, are contributing to local missionary work.

Yulgok church, which is located in Gosan-Myeon Wanju-Gun Jeollabuk-Do, experienced a breakthrough when pastor Taekwon Yeo was appointed as a senior pastor in 1984. Pastor Yeo organized “BBuriwhoe (the root organization)” with church officers and conducted farming themselves with initiated rural missions. Thereafter, organic livestock industry was conducted with local residents. With the composts produced at this time, they were able to conduct circulating farming method by using the composts for organic farming and using farming products as fodders. This led to initiating Life Agriculture Movement. Additionally, the church organized “Wanju Korean Beef Farming Association” which was the first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in Jeollabuk-Do province. This helped the farming families to be guaranteed to be paid regularly. Yulgok church’s pioneer in various enterprises aided vitalizing local economy. It also supported the finance of the church which led to establishing Mobile Social Welfare Cente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tore, and Wanju Senior Club. These administrations are leading the church’s aspect of “walking with the local community.”

Jwapo church, which is located in Sungsu-Myeon Jinan-Gun Jeollabuk-Do, has its catchphrase, “Let’s make from-cradle-to-grave economy community.” There only 12 church members when pastor Myungjae Han was appointed as senior pastor in 2005. Observing the church and local situation, pastor Han found that there were many Return Farmers. Then he

accomplished to build a village economic community that produces profits together through administering collaborative farm that local residents could participate, pickled cabbage business, and herbal fermentation processing business. Jwapo church is currently (2020) consisted with 83 church members, and out of this number, 25 are children. This is because 2/3 of the members come from nearby cities and they come as family units with children. This is a unique feature in Korean churches: coming from cities to rural churches for worship. This is largely because of administration of collaborative weekend farming.

Galgye church is located on down a steep hill in Ayoung-Myeon Namwon-Si Jeollabuk-Do. When pastor Kiwon Kang was appointed as senior pastor in 2005, the church's survival was at stake. To resolve this severe issue, the church gained 1186.11 square yards (300 pyoung) of farmland and initiated bean farming and cheonggukjang business which led to community's self-reliance. Currently, the church is carrying on farming business with apples in 3953.69 square yards (1,000 pyoung) of land, rice in 3558.32 square yards (900 pyoung) of land. Additionally, the church has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city churches and are conducting potato-napa cabbage farming and Kimchi making business with them. They are also preparing to make the town a "culture town" by using the nature environments of Jirisan Mountain so that city dwellers could visit.

Common characteristics of four churches that are presented as case studies are as following: First, there were meaningful results initiated and led by the senior pastor. Second, agricultural activities were initiated from the early days of pastors' ministry. This shows that ministers' theological establishment of rural missions, pastoral passion, and firm leadership are essential. Third, nobody urged people by saying "come to church, believe in Jesus" while there were in inferior surroundings conducting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Despite of

these hardships, growth and meaningful results were achieved.

CHAPTER 4

STUDIES ON SURVEY OF RURAL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researcher attempted to conduct survey to previously presented church members but many restrictions were made due to COVID-19 pandemic, transition to online worship, and decrease of church members. Moreover, there were not many church members in the first place in these rural churches. Thus, the researcher was only able to conduct survey at Geumam church.

The composition of the survey included 32 questions in total in 4 categories: demographic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acknowledgment in need of agricultural activity, and acknowledgment in influence of agricultural activity groundwork. The survey was conducted legally an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via IBM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

Regarding the satisfactory level of past 10 years of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ary work, 50%(23 people) answered positively while 3%(3 people) answered negatively. There were also 43.5%(20 people) who answered “moderate scale,” yet and overall, the value of agricultural activities could be verified. Additionally, regarding five following questions, positive answers accounted for 65%, negative 3.5%, and moderate scale 31.5%: preference on agricultural activities, church growth, increase in love for the church, spiritual growth, and increase in passion for missions (evangelism). This showed that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al works were meaningful to the church and its members. There was also 55%~65% of positive answers and 2%~4% of negative answers to questions regarding agricultural activities being beneficial to the local community, increase in love for the society, and giving good impression to local residents. Therefore, this showed that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al works exchanged

mutual benefits.

When having processed T-test and ANOVA analysis to discern the distinction between each group, there were no distinction among gender, place of duty, and length of attendance in church, but there were distinctions among being born as believers' children and age groups. In other words, those who were born as believers were gave more positive answers compared to those who were not regarding agricultural activities being beneficial for church growth and giving good impression to the local community. Additionally, the 60's expressed answered more positively on questions of agricultural activities being beneficial for church growth, beneficial in loving the local community, and giving good impression to the local community. Reason for these results cannot be verified through this survey and is anticipated to be assigned to subsequent researcher.

Regarding regression analysis on what elements affect the acknowledgment of the influence of agricultural activity ground for missionary works, it was deduced that, regardles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whether being born as Christians or not, length of attending the church, place of duty), these factors all give static affects to acknowledging influence of agriculture grounded activities when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agriculture for missionary work. This result shows that, as church member come to acknowledge more of the need for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al works, it leads to active participation and can conclude positive affects whether on church level, church member level, or local missionary work level. Therefore, the researcher found that, in order to achieve more positive impact, continuous education and lead for participation for more church members to acknowledge the need for agricultural activities and participate should take place.

It was verified through this survey that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ary works of

Geumam church resulted in church members loving the church more, spiritual growth of individuals of the church, having passion for missions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The church members were acknowledging that it also was benefiting the local community and was giving good impression to it.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it is realistic and reasonable to conduct missionary work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as rural churches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could function as an approaching passage to the local rural residents and a communication channel and could achieve vivid results working together.

CHAPTER 5

PROPOSAL FOR VITALIZING RURAL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Having verified of meaningful results based on presented case studies, survey, and its analysis, the researcher will propose a plan for specific missional agricultural activities that rural church can execute. Especially, there will be presentation of multi-generational activities via the model of Geumam church.

As a fundamental ground, rural theology must be re-established. Generally, in seminaries, ministers are educated and discharged for urban missions. Yet, rural missionaries (ministers) who understand rural villages are to be trained to impact rural missions. Additionally, endeavors from existing ministers on setting theology for vivid rural ministry are needed. Ministers could be aided and have new visions on rural missions if seminaries or organizations support them with lifetime education curriculums and education opportunities.

Subsequently, there needs to be ministers' clear calling and leadership. All senior pastors from four churches that were presented as case studies conducted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ary works with clear calling and vision. Additionally, giving attention to how these ministers led church members with leadership, the researcher encourages rural ministers to have clear calling and firm leadership.

In addition, church members' change of awareness is necessary. Mostly, church members depict pastors' roles as traditional duties such as preaching, prayer, and pastoral care. Although this may be common fundamentals, aid from church members who have abundant agricultural knowledge is absolute for agricultural activities. In order to draw out more participation and

corporation from church members, minister need to break out from traditional features of ministry and provide repetitive education, emphasis, and continuous persuasion.

After these fundamental stages are set, ministers can gain land, select environmentally relevant crops, and initiate farming. It is wise to select crops that would not require too much time to manage and crops that could be easily cultivated because one would not want to cause inconvenience in ministry activ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seek for markets in advanced. For this, there are ways of setting up sisterhood relationships with urban churches, organizations, or apartment residents; making contracts with local firms; identifying crops bought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nowadays, using SNS or internet.

In order to increase missional impact, the researcher propos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local social activities and search for ways to jointly produce and sell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Thereafter, one can look for crops and cultivate them according to each cultivating method. One will be able to achieve more than expected when building intimacy with local residents through communicating and mutual help.

Geumam church achieved a meaning growth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at were initiated with young students. Having this as a model, the researcher proposes a rural mission plan with participation of students which basically initiates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Additio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ministers to provide vivid motivation, draw out students' opinions and participations in every activity, and conduct communal activity after cultivation and harvest. As communal activities, nationwide tour, visiting amusement parks, or fundraising and going on mission trips are recommended. As bold relationship build up between ministers and students through communal activities, discipleship through the Word of God will be easier, and thereby, they will grow to be not only healthy

believers but also a lifetime reliable workers for the church.

CHAPTER 6

CONCLUSION

Geuman church was one of the hopes that the researcher came across while serving as a rural minister experiencing struggles along with surrounding rural churches and ministers. This case is notable because agricultural activities were initiated with young students. Therefore, this thesis attempted to presents hope and alternatives and search for new missional directions through observing the case Geumam Church: agricultural activities initiated with young students, verifying the value of agricultural activities in terms of rural missions, and how it produced fruit.

Missional values found from conducting agricultural activities are as following: Firstly, boundaries between local society and churches were broke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due to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Secondly, good image of churches was provided to local resident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Aspect of having dirt and sweat on faces and shirts gave positive feelings that churches are not aliens but good neighbors to the local residents.

Thirdly, it was found that churches could conduct a central role in leading the local society. Missionary meaning regarding rural churches conducting agricultural activities is notable when considering that the world was in need of churches.

On the other hand, after conducting agricultural activities with missional direction, 60%~70% of survey participants answered positively to following questions: church growth, increase in love for the church, spiritual growth and gain of individual church members, and increase in passion for missions (evangelism). Additionally, 55%~65% answered positively to following questions: agricultural activities of the church being beneficial to the local society,

increase in church members' affection for the local society, and giving good impression to the local residents. Therefore,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al works brought positive progress in the church and its members and exchanged good influences with the local society. These are the missional fruits.

However, there still exists limitations to this thesis. The presented churches as case studies are all located in Jeollabuk-Do, associated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re was only one survey from Geumam church.

Nevertheless, this thesis provides sufficient challenge and hope to rural churches that are under hard circumstances. No matter how severe the situations of rural churches are, they cannot be excluded from missionary works. It was verified through this thesis that the most definite and realistic plan for rural churches to conduct is mission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refore, the researcher anticipates that not only rural churches to have vision of regaining vitalization and pa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but also rural villages to have hope and revival.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1904년 평양 대 부흥 운동의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꾸준히 성장한 결과, 1970~1980년대에 양적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자 성장의 둔화와 한계를 보이면서 현재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미래학자 최윤식은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 2050~2060년경에는 400만, 아니 300만 명대로 교인 수가 줄어들 수 있다”¹고 하였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은 최근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1> 2018년 대비 2019년 주요교단 교인 수 감소 현황²

<단위 : 명>

	2018년	2019년	증 감
예장 합동	2,656,766	2,556,182	- 100,584
예장 통합	2,554,227	2,506,985	- 47,242
예장 합신	143,721	138,968	- 4,753
기 장	231,963	219,086	- 12,877

최근 기독교신문의 “주요 장로교단 교세 통계 다음 세대 감소 비율 뚜렷”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표 1>과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교단은 전체 교인 수가 2018년 2,554,227명에서 2019년에는 47,242명이 줄어든 2,506,985명으로 -1.85%를 보였고, 예장 합동은

1)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9.

2) 기독교신문 노충현 박용미 정원희, “주요 장로교단 교세 통계다음 세대 감소비율 뚜렷”, [온라인 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77>, 2021년 3월 24일 접속. 참고적으로 예장 고신은 세례 교인 수로 2018년 277,552에서 2019년 278,441로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18년 2,656,766명에서 2019년 2,556,182명으로 무려 100,584명 감소한 -3.8%, 예장 합신은 4,753명 감소한 138,968명,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는 219,086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 12,8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³

이런 감소세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pandemic)으로 말미암아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29일에 발표된 개신교 여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코로나 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결과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32%(기윤실 조사)이었다. 정확하게 1년 후인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목회데이터연구소)는 21%로 1년간 무려 1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교회 신뢰도가 개신교인’은 70%, ‘비 개신교인’은 무려 9%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선교와 전도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⁴

이렇게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더욱 심각한 곳은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다.

<표 2> 농촌인구 감소 추이⁵

<단위 : 만명,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총 인 구	3,224	3,468	3,812	4,045	4,341	4,455	4,753	4,814	4,858	5,056
농 촌	인 구	1,851	1,791	1,600	1,401	1,110	956	1,006	876	930
	비 중	57.4	51.6	42.0	34.6	25.6	21.5	21.2	18.2	18.4

농촌인구 감소 추이를 보여 주는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1970년 3,224만 명에서

3) Ibid.

4) 목회데이터연구소, “지난 1년간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온라인 자료]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33. 2021년 3월 24일 접속.

5) 김한중, “도시와 농촌간 인구 이동 현황과 시사점” 『NH농협 조사월보』 (서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5), 28-9.

2013년 5,056만 명으로 약 1.6배 증가할 동안에 1970년 농촌인구는 1,851만 명으로 총인구의 57.4%에서 계속 급감하여 2013년에는 930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나 버렸고,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18.4%에 불과하게 되었다.⁶

농촌인구가 더욱더 가파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2017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361,911명으로 아직은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2028년에 51,941,946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42,323,69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성장률 역시 2030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1.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전망되고 있다.⁷ 또한 경제적인 모습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농가 소득은 늘지 않았지만, 농가 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에게 대한 상대 소득도 급속히 악화하였다.⁸ 이에 더하여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은 그야말로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명은 “우리의 농촌은 망망대해에서 엔진이 꺼져 버린 작은 동력선과 같이 우리 농촌에 붙어닥친 거센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러다간 우리 농촌은 곧 좌초되어 파선이라도 될 것 같다. 농업 농촌을 위기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안일하고 소극적인 표현이다.”⁹라며 농촌의 상태가 중대하고 절박한 상함을 밝혔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농촌교회 또한 당연히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그렇다면 이런 농촌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교회를 외면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노인들만 존재한다고 해도 주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인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선교 사역을 접을 수는 없다. 박근원의 저서 「현대 신학 실천론」에서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고, 동시에 그리스

6) *Ibids.*

7) 통계청, 주요인구지표(2019). [온라인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tat.go.kr>. 2019년 10월 20일 접속.

8) 박진도 엮음,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5), 28.

9) 김태명 외 다수, 「농촌 활력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301.

도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라고 세상으로 ‘보냄’ 받았다. 곧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사실이 교회의 존재 근거요, 존재 방식인 것이다.”¹⁰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선교 활동으로써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

과거 “‘선교’는 지리적으로 먼 이방 나라(제2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그리고 ‘전도’는 가까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구별”¹¹하는 식의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구분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욱은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에서 “만일 선교가 단지 선교지에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들만의 의무만을 알고 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선교 활동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여긴다면, 이것은 전 세계 교회에 비추어 볼 때 시대착오적이며,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¹²며 일갈 하였다. 농촌교회는 농촌이라는 지역에서 부름을 받고 농촌이라는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농촌교회의 존재 근거요,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농촌교회란 지역적으로 농촌에 위치하여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신자들이 과반수 이상 모이는 교회를 말하며, 행정적인 구분으로 면(面) 단위 이하의 속한 교회를 농촌교회라고 하고 읍(邑)에 위치한 교회를 읍교회, 시(市) 이상에 위치한 교회를 도시교회로 구분하였다.¹³

현재 농촌교회의 목회자인 연구자는 심각한 현실에 직시하며 대안 마련하고자 할 때 학생들과 농업 활동으로 성장을 이룬 금암교회를 알게 되었다. 군산시 변두리 농촌에 자리 잡고 있는 금암교회는 전형적인 농촌교회로서 마을에 있는 중고등 학생 30여 명을 데리고 농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학생들이 청년으로 성장하여 학업과 직장으로 인근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15명 정도가 교회에 남아 청년 일꾼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들이 주축이 되어 주간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로컬푸드 사업에 봉사함으로써 지역 사회 선교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도시로 떠난

10) 박근원, 「현대 신학 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15.

11) 김익원, “미래의 선교상” 「신학과 현장」, 1991 Vol.1 No.-, 194.

12) 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18.

13)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서울: 기독교문사, 1993), 31.

청년 중에는 주일이 되면 금암교회로 찾아와서 예배와 봉사하는 이들도 있고, 먼 도시로 간 청년들은 여전히 교회와 소통하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농촌에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농촌교회가 선교의 과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닌 희망 유무에 달려 있다. 농촌교회의 현실이 비관적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성장하는 농촌교회도 존재하기에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학생들과 시작한 농업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금암교회 사례를 통하여 농촌교회가 농업 활동으로 어떤 선교적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농촌 선교의 희망을 찾고 아울러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범위와 한계

본 논문은 학생들과 시작한 농업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금암교회를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농촌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통계 및 분석 자료, 각종 서적, 정기간행물, 연구 논문들을 통해 농촌 선교의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특별히 현재 농업 활동을 통하여 농촌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 농촌선교에 관한 서적이거나 최신 학술자료의 빈곤으로 인한 연구의 제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금암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 및 연구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교적 영향력과 교회의 질적 성장을 과학적 수치로 측정하여 표현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이 논문은 사례로 소개한 교회들과 특히 금암교회를 중심으로 연구되며, 이를 근거로 농촌 선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성경적, 신학적 근거

인류를 향한 구속사 전체적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이셨다. 소위 원시복음이라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부터 구약 전체와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지상명령을 거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

까지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의 주제가 ‘선교’이다.¹⁴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한다. ‘선교 신학’은 이런 놀랍고도 엄청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¹⁵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라 할 수 있기에 선교에 대한 연구는 선교 신학을 통하여 잘 정리되고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 근거가 충분한데도 농촌 선교와 관련된 신학 연구는 의외로 부족한 면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를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알아보고 성경적, 신학적 배경을 확인 및 고찰한다. 특별히 본 연구가 농촌 지역을 향한 선교이기에 좀 더 세밀하게 농촌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배경을 다루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아울러 한국 농촌 선교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농촌 선교의 현주소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타락 이후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으로 선교 되기를 원하셨다. 특별히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 악의 대명사요 민족의 원수였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멀리하였던 앗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농촌을 외면하실 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로 시작하여 공생애 전체가 선교적 활동이었고, 제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며 선교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후 승천 전 제자들에게 노골적이며 직접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대 주제가 선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선교적 과업을 온전히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이 과업은 농촌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다.

특별히 본 연구가 선교의 주된 활동 무대가 농촌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화’를 고려해야

14) Walter C. Kaiser Jr., 「구약성서와 선교」,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9-10.

15) Craig Ott, Stephen J. Strauss, Timothy C. Tennent, 「선교신학의 도전」 변진석, 엄주연 외 5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24.

한다. 여기서 상황화(contextualization)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인간 상황 속에 연관을 맺도록 함으로 그 진리들이 분명하고 설득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이 성경적 진리와 관련을 맺도록 하는 과정”¹⁶을 의미한다. 상황화는 복음이 문화적 옷을 입고 제시된다는 점, 그렇지만 복음이 현지 상황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때 문화와 삶의 많은 부분이 성경적 진리를 왜곡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¹⁷

농촌은 지리적 환경 영향과 종교적 환경 영향, 그리고 농업적 환경 영향 등으로 도시나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문화와 정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확인하고 특별히 농촌 문화와 관련된 특성들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요청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가능케 하시는 능력 외에 우리 자신이 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제자로 임명하셔서 지속할 열매를 많이 맺도록 보내시는 분은 예수이시기에 선교의 모든 활동을 그 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¹⁸

4.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본 논문은 농촌 선교에 관한 실제적인 방안을 사례 연구 중심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한국의 농촌교회의 열악한 상황과 그런데도 적극적인 선교 활동이 요구된다는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농촌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확인하고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농촌교회의 선교 문제점과 선교적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 3장에서는 그 실제적인 사례로서 농

16) Ibid., 555.

17) Ibid., 556-7.

18) Ibid., 201.

업을 통하여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산시 금암교회, 완주군 율곡교회, 진안군 좌포교회, 남원시 갈계교회를 사례로 연구할 것이다. 4개 교회의 선정 조건은 첫째,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다. 적어도 5년 이상 꾸준히 농업 활동을 통하여 지역 농민들과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둘째, 자료 수집의 용이성이다. 농업 활동을 통하여 선교 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기에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이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연구자가 속해 있는 전라북도 지역의 면 단위 이하의 농촌교회와 각종 서적이나 학술지에 발표되어 자료를 구하기 용이한 4개 교회를 선정하게 되었다. 4장에서는 10년 동안 농업으로 선교 활동을 벌인 금암교회 교인들의 생각을 설문 응답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5장은 위의 모든 과정과 실례들을 근거로 농촌교회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할 것이며, 특별히 금암교회가 학생들과 시작한 농업 활동으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선교 모델을 제시하겠다. 6장은 결론으로 본 논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 요약하고, 논문의 전체적인 결론을 담을 것이다.

5. 문헌 검토

문헌 연구는 선교의 원리와 역사, 전략, 더불어 한국 농촌교회라는 대상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 방법론이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문헌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할 것이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서적들이고, 둘째로 선교와 관련된 서적들, 셋째는 농촌과 농촌 선교,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서적들이다. 마지막 넷째는 관련 논문 등 전문 학술 자료들이다. 본 문헌 연구를 위하여 서적을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여러 도서관과 자료실을 중심으로 도서, 학위 논문들, 학술자료지,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1) 한국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서적

최윤식의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는 한국교회 전체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여 지금은 쇠퇴기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상황에 걸맞은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⁹ 이런 교회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우선 ‘통회하는 울음’으로 영성의 수준을 올리고 목회자의 자질을 향상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어서 출간한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교회 회복을 위한 처방을 말하고 있다. 지금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지금의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확언한다. 하지만 위기는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며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성장과 부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²⁰ 시대적인 통찰과 안목을 가지고 준비된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역시 동일 저자가 출간한 「2030 대담한도전」에서는 한국이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기와 위협에 대한 예측의 내용을 담았고 저자는 지금부터 예측하는 미래의 위기와 위협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열쇠도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한다. 위기는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발상지가 되므로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풀어야 하며 이런 위기와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응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²¹고 자극하고 있다.

박찬식, 이우성의 공동 편저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는 앞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과 영국교회의 앞선 상황을 거론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영국교회의 쇠퇴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의 급격한 세속화와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²² 따라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영국 및 미국교회의 상황들을 연구 조사한 결과를 밝혀줌으로써

19)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45.

20)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18-101.

21)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555-63.

22)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383.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

2) 선교와 관련된 서적

찰스 E. 벤 엔겐(Charles E. Van Engen)의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는 교회론적,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 지역 교회를 조명하고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사명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특별히 북미와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 내부적인 사역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교회는 선교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역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²³

요하네스 베르카일(Johannes Verkuyl)의 「현대선교신학 개론」에서 저자는 선교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키는 것과 맞물려 있는 전 세상에 걸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면, 선교학은 이 세상을 연구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수종 들도록 온 세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대한 연구이다”²⁴라고 정의하면서 선교의 역사, 세계 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명령, 선교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선교의 방법들, 특별히 전세계육대륙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동향과 선교적 활동 경향, 그리고 선교 신학의 흐름 등을 방대하게 기술하고 있다.

크레이그 오토, 스티브 J. 스트라우스, 티모시 C. 테넌트 등이 함께 저술한 「선교신학의 도전」은 최근의 선교 신학을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며 더불어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세밀하게 기술하였고 또한 선교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발전 경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서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 상황 속에 좋은 소식으로 계속 전달되어야 하고 인간 사회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²⁵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농촌 지역의 선교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농촌의 문화와 농촌 주민들의 정서를 잘 파악하여 선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정당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23)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43.

24) 요하네스 베르카일, 「현대 선교신학 개론」,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9.

25) Craig Ott, Stephen J. Strauss, Timothy C. Tennent, 「선교신학의 도전」, 이태웅 등 역, 602.

3) 농촌과 농촌 선교,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서적

김일우의 「농어촌교회여!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흥의 주춧돌을 놓자」는 농어촌 선교사역을 직접 감당한 저자가 현장에서 느낀 한국 농어촌교회의 현실과 직면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제 2의 농어촌 계몽운동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교회에 부흥의 주춧돌이 놓이기를 소망하며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²⁶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 부에서 발간한 「교회와 농민(선교편)」은 전문 학자 및 목사, 장로 등의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열아홉 명의 저자가 과거 한국 농업의 모습과 앞날, 그리고 방향과 과제뿐만 아니라 농어촌 복음화를 위한 모델 교회 제시, 제언, 프로그램 제시 등을 통하여 “교회는 신앙의 초점을 농촌에도 맞추어 써야 할 시점에 와 있다”²⁷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한 「농촌활력론」은 여러 대학교 및 연구소에서 한국 농촌을 연구하고 있는 일급 분의 전문 연구자의 공동저서로 한국농촌의 과거와 현재, 전환기에 서 있는 농촌문화,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 특징 등의 한국 농촌의 현실을 집어보면서 농촌 마을 가꾸기, 농촌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 한국의 복지농촌 건설전략 등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복지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강력한 권면과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의무요 시대적 사명이라고까지 역설하고 있다.²⁸

11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손창남의 「문화와 선교」는 국내에서 다년간의 강의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나 타 문화권에서 복음의 역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청중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화와 선교, 선교와 문화. 이 두 단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²⁹며 문화에 관한 이론보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와 구체적 사례를 가지

26) 김일우, 「농어촌 교회여!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흥의 주춧돌을 놓자」 (서울: 좋은땅, 2009), 50-197.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부, 「교회와 농민(선교편)」 (서울: 양서각, 1986), 16-7.

28) 김태명 외 다수, 「농촌 활력론」, 325.

29) 손창남, 「문화와 선교」 (서울: 조이선교회, 2014), 22.

고 문화와 선교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상황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총 3부로 구성된 이 서적은 1부 타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부 타문화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3부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4) 관련 논문 등 전문 자료

임윤건의 총신대학교 교회신학 전문대학원 박사 논문인 “고령화 사회의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³⁰은 심각한 고령화로 침체의 갈림길에 있는 농촌교회이지만 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농촌 지역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참조하였으며, 유병현의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중심전도이론에 대한 연구: 덕산교회를 중심으로”³¹에서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고 일반적인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농촌의 변화와 기독교의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신민주의 박사 논문 “한국교회의 산업화 이후 농촌 선교에 관한 연구,”³²를 한국 농촌의 실태와 농촌교회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대부분 미자립인 농촌교회가 성장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김한영의 박사 논문 “한국의 농촌 미자립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³³을 참조하였다.

5) 논문 관련 성경 구절

(1) 선교와 관련된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8~20절,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나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30) 임윤건, “고령화 사회의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2010.

31) 유병현,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중심전도이론에 대한 연구: 덕산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2.

32) 신민주, “한국교회의 산업화 이후 농촌 선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33) 김한영, “한국의 농촌 미자립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 대학원, 2004.

(2) 농업과 관련된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23절, 창세기 26장 12절,
시편 126편 5~6절, 요엘 1장 11절, 요한복음 15장 5절

제 2 장

선교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 이해

1. 선교에 대한 정의와 성서적 배경

예수는 승천하기 직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의 명령이면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인가?

1) 선교에 대한 사전적 정의

일반 사전에서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우리말큰사전」에서 선교는 “명사, 종교를 널리 미치게 선전함. 참고/ 전도, 포교”³⁴ 라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 종교를 선전하여 전도함”³⁵, 역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 사전에서는 선교를 ‘해당 종교를 선전하여 전도 하는 것’이라는 너무 단순하고도 평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신교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먼저 「기독교백과사전」에서는 “선교 宣敎 [영] missions”라고 표제를 달아놓고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성서’ 파트에서는 “선교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파견 한 것을 말한다. 보다 과거의 의미로는 다른 공동체들 속에 들어가 자신들의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 된 종교단체의 활동들을 가리킨다.”³⁶ 라고 하였다. 다음 ‘조직신학’ 파트에서는 “선교신학(宣敎神學)

34)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9), 2273

35) 이희승 편자, 「국어대사전」 (경기도 파주: 민중서림, 2008), 2004.

36)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8권(블라다~성서문체) (서울: 기독교문사, 1985), 1086-7.

[영] Mission, Theology of”이라는 표제와 함께 “부흥 운동이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전도란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도와 선교라는 말의 차이는 전도는 선교의 방법과 기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실제로 때때로 그렇게 사용되었음) 선교란 말은 신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³⁷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 다음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이며 성 삼위일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면서 성서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사자들과 예언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 즉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한다.³⁸ ‘교회사’ 파트에서는 기독교의 선교란 대체로 해외 선교 활동에 적용되었지만, 그러나 세계교회의 발달은 선교를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든지 교회의 임무로 보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면서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확하게 자신을 계시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환희에 찬 사랑의 반응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부름 받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모든 인간적 영역들을 포괄한다.”³⁹고 하였다.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단순히 인간들과 국가들이 기독교로의 개종만이 아니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이상의 근거를 통해 연구자는 선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메시지나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활동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적 영역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7) Ibid., 1101.

38) Ibid.

39) Ibid., 1087-8.

40) Ibid., 1088

2) 선교에 대한 성서적 배경

선교의 모든 기원은 성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선교는 성서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모든 선교의 이유에도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추축(樞軸)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농촌선교사역을 실행함에 있어 성서신학적 근거는 필수적이다. 선교 모든 기원은 성서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 구약에서의 선교

선교의 성서적 근거를 흔히, 그리고 먼저 신약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조한스 블라우(Johannes Blauw)는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서의 중심이며 구약 성서를 제공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⁴¹라고 했다. 그러므로 구약의 중심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구약에서도 쉽게 선교의 근거를 찾게 된다.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 Jr.)는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부터 구약 전체와 신약의 지상명령을 거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서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의 주제가 ‘선교’임을 강조한다.⁴² 창세기의 창조는 전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의 보편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시편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시 33:13)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과 회복의 계획은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구스타프 바르벡(Gustav Warneck)과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요하네스 베르카일(Johannes Verkuyl), 도널드 맥 가브란(Donald McGavran)을 거쳐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교학자들이 내린 선교에 대한 정의와 그 흐름을 살펴보면 선교를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것은 참으로

41) 신동우, 「선교학 : 이론과 실제」 (서울: 예루살렘, 1993), 25.

42) Walter C. Kaiser Jr., 「구약성서와 선교」, 임윤택 역, 9-10.

타당하다.⁴³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이며 선교의 역사이다. 솔로몬 이후 갈라진 남북왕국이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지중해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이다.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의 구절은 아담에게 통한 전 인류를 향한 최초의 구원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희망이다. 이 약속 안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 구원의 청사진을 밝히고 있으며 선교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소명과 선교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는 장(章)이다.⁴⁴ 아브라함을 부르고 준 약속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적 축복이 확연하게 계시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창 12:2-3)은 후손과 명예와 땅을 소유하는 축복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특별히 새번역 성서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서는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새번역 갈 3:8)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였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축복적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 선교적 과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선택을 전 세계와 관련 짓고 있다.⁴⁵

출애굽 사건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선교의 절정이 된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3) 장훈태,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 (서울: 대서, 2012), 20-24.

44) Ibid., 30.

45) 요하네스 베르카일, 「현대선교신학개론」,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145.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심인물이 모세이다. 구약 신학자 해롤드 로울리(Harold H. Rowley)는 모세를 “우리가 아는 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묘사했다. 또한, 바톤 페인(J. Barton Payne)은 이스라엘의 선택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롬 11:36)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준비하는 위한 수단임을 피력했다.⁴⁶ 전호진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특수주의’(particularism) 관점이 출애굽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은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⁴⁷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으로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약속의 실현에 대하여 크리스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하셨다고 보았다.⁴⁸ 또한 이스라엘의 선택과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실상으로 오버랩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애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은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역사서가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했다. 전호진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강조하였다.⁴⁹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계약된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열심이 드러난다.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인물 라합, 롯, 사렘다 과부, 수리아 장군 나아만 등의 인물은 이방 민족의 선교 열매이다.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는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선포하였다.(사 2:2-3) 또한 이사야서 1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과 앗수르는 복이 될 것임을

46)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39-42.

47) Ibid., 41.

48)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Michigan: Zondervan, 2010), 62

49) 전호진, 「선교학 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44.

천명한다.(사 19:24) 나아가 이사야 19장 19~21절에는 더 놀라운 언급을 하고 있다. 애굽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진다고 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애굽 땅에 계신다는 징표와 증거가 되며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다”(사 19:20)라고 선포하였다. 즉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사야의 선교적 메시지 선포에 대하여 송제근은 “옛 언약의 한계를 넘는 선포”라고 하였다.⁵⁰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면서 매달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사 66:2-23)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요나의 박녕쿨 사건에서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거부하였고 불순종하였다. 하지만 그의 회심을 받아들인 다음, 요나의 선포로 회심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이룬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모습에 분노하며 죽기를 요청하였다. 국수주의에 빠져있는 배타적 민족주의자인 그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꾸기는커녕 뿌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하루 사이에 낫다가 말라 버린 박녕쿨은 지극히 아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이며 명ियो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욘 4:11)며 깨우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가축까지도 포함하여 생명이 있는 존재를 아끼고 구원받길 원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시편은 예배와 찬송의 시로 가득하다. 또한 개인적인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로버트 글로버(Robert H. Glover)는 시편들 가운데서 세계적 선교 사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⁵¹ 조오지 피터(George W. Peters) 또한 이러한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제로 시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책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50) 목회와신학 편집부, 「이사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8), 27-28.

52) Robert H. Glover, *The Bible Basis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79), 20.

불구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더물다. 시편에는 보편적 의미의 언급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선교적 메시지와 도전으로 가득차 있다.”⁵²라는 주장과 함께 시편의 175개 구절이 세계 선교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찬양을 담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실은 아주 탁월한 선교적 설교라고 피력한다.⁵³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세기와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지중해 세계로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된다. 요하네스 베르카일(J. Verkuyl)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시대에 “유대인들의 개종화 노력에 대한 많은 증거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이번에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수행된 선교 사역을 분명히 인증해 준다.”⁵⁴고 하였다. 이 시대에 선교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논할 수 있다. 첫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제사 대신 회당을 통한 예배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사용함으로써 제사형식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회중 예배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이것은 복음을 통한 선교가 크게 증대되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회당 예배는 결국 신약의 복음 선교의 아주 좋은 기초를 준비한 셈이다. 둘째, 회당을 통한 유대인 선교의 접촉점과 중심점을 쉽게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회당을 통한 최대한 선교지 거점으로 이용하여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한 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여 교회를 시작하였다. 실로 회당의 존재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 선교의 강력한 요람이 되었다.

(2) 신약에서의 선교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와 비교하여 직접적으로, 그것도 노골적으로 선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신약의 시작이 되는 예수의 성육신에서부터 “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

52)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Chicago: Moody Press, 1972), 116.

53) *Ibid.*, 119.

54) 요하네스 베르카일, 「현대선교신학개론」, 최정만 역, 159.

2:10)이라는 선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공생애의 사역의 전 과정,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지중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이 선교적 의미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박영호는 신약성서는 그 본질상 선교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는 본질상 선교적이라 하였다.⁵⁵

이점은 사복음서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수의 성육신에서 천사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였고(눅 2:10),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마 6:10)기를 기도하라 가르쳤다. 또한,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선교사로 파송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였다.(눅 10:1-9) 예수의 선교 사역은 민족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보를 유지하였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 동네의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접촉조차 거부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다(요 4:5-42).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라고 알려진 가다라 지방까지 가서 선교했음을 보도하고 있다.(마 8:28-34; 막 5:1-20) 거라사는 갈릴리 바닷가 동쪽 해변에서 약 42km 정도 떨어진 이방 지역이다.⁵⁶ 이렇게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하신 예수의 행보를 통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계획의 실행이었다. 이방인 개종자 누가⁵⁷는 그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이방 선교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누가복음 14장의 ‘큰 만찬’ 비유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주어짐을 밝히고 있다.(눅 14:15-24)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25-37), 치료받은 열 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인만 돌아와 감사한 사건(눅 17:11-19), 갈릴리 도시들에 대한 저주 선언(눅 10:13-16)은 누가복음의 이방 선교 사상을 드러낸다.⁵⁸ 사도행전은 물론 모든 복음서에서

55)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99-101.

56)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 마태복음 제 1-11a장」 (서울: 제자원, 2006), 610.

57) Everett F. Harrison, 「신약개론」, 정성구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91), 202.

58) 장훈태, 「선교학의 성서적 이론과 실제」 (서울: 솔로몬, 1998), 146-7.

제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기록된 예수의 승천 직전 제자들을 향한 선교 명령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예수의 직접적인 선교의 명령과 선교를 명하는 예수의 권위, 예수의 계속된 선교에 대한 명령, 그리고 예수의 약속을 담고 있다.⁵⁹ 이 단락에 관한 칼 바르트(Karl Barth)는 “개괄(recapitulation) 및 예견(anticipation)으로 종말론적 공동체의 숨겨진 본체를 드러냄으로써, 그 위대한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은 분명코 예수의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다.”⁶⁰라고 평하였다.

사도행전의 선교는 창세기에서 언급된 모든 민족으로의 선교가 비로소 열매를 맺으며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도행전의 선교는 부활 후 승천 직전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예언 선포,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에서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⁶¹ 베르카일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것을 사도행전의 개요로써 따르고 있다며 “1~7장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8~9장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는 세계의 중심으로 로마에 특별한 강조를 둬서 전 세계로 전파할 것을 다루고 있다”⁶² 하였다. 제자들 모두 예수를 부인했고 버렸다. 또한, 부활한 예수를 만났음에도 자포자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는 선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전기(轉機)를 맞이하였고 근원적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의 여러 번의 지중해 세계의 선교 여행은 수많은 교회를 탄생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59) 요하네스 베르카일, 「현대선교신학개론」, 최정만 역, 166-171.

60) Karl Barth, “An Exegetical Study of Matthew 28:16-20”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ed, G. H. Anderson (New York: McGraw-Hill, 1961), 67.

61) Robert H. Glover, 「세계선교의 발달」, 이요한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72), 97.

62) Ibid., 173.

(행 21:19)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선교 사역의 주역이 하나님임을 강조하였다.

2. 농촌 선교의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배경

선교를 추진할 때 사역자의 철학과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 농촌 선교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배경과 한국 농촌 선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농촌교회 선교 현장에서 어떤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선교를 펼쳐야 할지 모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1) 농촌 선교의 성서적 배경

(1) 구약에서의 배경

선교를 논함에 있어 구약 성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농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אִקָּוֹר(ik-kawr)⁶³로 농부, 밭 가는 자, 농사꾼으로 되어 있다. 흔히 성서에서 농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⁶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창 3:23)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의 근원이 된’을 직역하면 ‘그가 취하여졌던 그것으로부터(KJV, from whence he was taken)’이다.⁶⁵ 또한 ‘갈게 하시니라’의 원형 ‘아바드, אָבַד’의 기본 뜻은 ‘일하다’이며 외에도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의 뜻이 있다. ‘아바드, אָבַד’란 단어가 성서 가운데 처음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2장 5절인데, 여기서는 ‘땅을 갈다’로 번역되었다. 한글 개역개정성경 번역으로는 ‘최초의 농사용어’가 된다. 하지만 ‘아바드, אָבַד’가 다른 뜻도 함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일하다’의 의미와 ‘땅을 갈다’의 번역으로 창세기 2장 5절을 단정이 아니라 ‘최초의 농사 용어’로 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63) George V. Wigram, 「구약성구사전 1권」 (서울: 기독교문화사, 1979), 97.

64) 한경호, “농촌 선교와 생명 살리기 운동” 「선교와 신학」, 2008 Vol 22, 25. 에서 주장하였다.

65)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 마태복음 제 1-11a장」 (서울: 제자원, 2006), 290.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라는 명령에 이어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즉, 채소와 과일 나무를 인간에게 먹을 식물로 주었다.(창 1:27-29) 이 선물은 하나님 창조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기독교 농촌 선교의 충분한 기초⁶⁶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바드, אָבַד’가 두 번째의 등장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의 구절이다. 여기에서 ‘아바드, אָבַד’는 ‘경작하며’라고 되었다. 하지만 새번역 성서에서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새번역 창 2:15)라고 하여 ‘아바드, אָבַד’를 ‘돌보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한글 성서끼리 번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바드, אָבַד’라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기 전 에덴 동산에서도 농사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언어적으로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편 창세기 3장 23절의 ‘아바드, אָבַד’는 성서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으로 원어성서에서는 ‘~을 위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라(ל)’와 합하여 전치사구로서 ‘경작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갖는다. 즉 원어성서는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보낸 목적이 땅을 경작하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⁶⁷

농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경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경작해야 얻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등장한다.(창 4:2) 이것은 생활의 필요한 부분을 서로 분담하여 일을 나눈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일은 삶을 이어감에 있어 분리할 수 없는 생존의 일이었다.

구약 성서에서 농사가 주업으로 된 것은, 가나안 정착 후이다. 그전에도 물론 농사는 지었다.

66) 김성욱, 「개혁주의 선교신학」 (서울: 이머징북스, 2013), 140.

67)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 창세기 제 1-11장」 (서울: 제자원, 2006), 291.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농사도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발견하게 된다.(창 26:12-13) 하지만 주업은 목축업이었고, 좋은 목초지를 찾을 때까지 단기간, 산발적으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소위 족장 시대를 거친 다음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많은 인구를 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 이스라엘을 출애굽 하도록 한 하나님은 시내 산 도착 이후에 매년 지켜야 할 세 가지 농경 절기에 대해 명령하게 된다. 이는 곧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주업이 농사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매년 지켜야 할 세 가지 농경 절기는 초실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다.⁶⁸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며(레 23:9-13; 민 28:26), 맥추절은 보리 수확이 종료될 시기에 밀 수확을 시작하면서 지키는 감사하는 절기가 된다.(출 23:16, 출 34:22; 신 16:10)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이다.(출 23:16; 34:22)

특히 초가을 수장절과 관련하여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출 23:11)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해와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땅의 소유권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다. 경작은 인간의 손으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이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는 명령이다. 또한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땅을 경작할 것을 명령한 것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명령은 동산의 청지기로서 잘 가꾸고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전적으로 만물의 주관자이며 땅의 소유자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농촌공동체의 시작이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를 장차 세워질 교회의 기초로 본다면 이는 곧 농촌교회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경제 기반은 주로 농업에 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본격적인 농촌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농부가

68) 강병도 편, 「카리스종합주석 제11권 출애굽기 32-40장」 (서울: 기독교회사, 2004), 239.에서 출애굽기 34:22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칠칠절을 ‘초실절’ 이라고도 하며, ‘맥추절’ 이라고도 한다.”라고 주석하였다.

차지하는 비중은 가볍지 않았다(대하 36:10; 렘 14:4; 욥 1:11; 암 5:16). 그 전에 주업이 목축업이라 할지라도 이삭이 농사를 통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예를 볼 수 있듯이 농업도 그에 못지않은 생업이었고, 따라서 유목 생활도 넓게 보면 농촌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할 때 도시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공동체라 부르기보다는 농촌 신앙공동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의 농촌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관하는 모든 만물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으며 경외하였고 순종함으로 형성된 농촌의 신앙공동체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함께 보존되었다.

(2) 신약에서의 배경

예수 당시 유대 사회의 기간 산업은 주로 농업과 상업이었다. 복음서는 공히 예수가 자란 곳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증언해 준다.(마 2:23, 막 1:9, 눅 2:39; 4:16, 요 1:45) 팀 켈러(Tim keller)는 예수 당시 나사렛은 해발 약 366m 높은 곳에 흙벽돌로 만든 작은 집들이 집결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위에는 아름다운 동산과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기타 과목들이 들에는 보리와 밀 자랐다고 한다.⁶⁹ 한마디로 예수가 자란 환경은 전형적인 산골 농촌 마을이다. 예수는 농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하며 농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기에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농업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네 가지 흩에 떨어진 씨 비유(마 13:1-8, 막 4:3-8, 눅 8:4-8), 겨자씨 비유(마 13:31-32, 막 4:30-32, 눅 13:18-19), 가라지 비유(마 13:23-30), 포도원 일꾼의 비유(마 20:1-16), 악한 소작인의 비유(마 21:33-44, 막 12:1-12, 눅 20:9-18), 씨가 자라는 비유(막 4:26-29), 무화과나무의 비유(눅 13:6-9) 등의 비유가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듣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편한 비유들이었다. 왜냐하면 예수의 설교를 많은 대부분의 회중들 역시 갈릴리의 농사꾼들과 갈릴리 호수

69) 강병도 편, 「카리스종합주석 제1권 마태복음 1-9장」 (서울: 기독교출판사, 2005), 281.

주변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던 고단한 백성들이었다. 예수는 그들을 배려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와닿는 언어와 비유로 설교했다.⁷⁰

또한 예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자신과 따르는 제자들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관계가 같다고 했다.(요 15:5) 농부의 역할은 필요 없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는 인물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농부와 같다는 비유 속에서 농부가 얼마나 당시 얼마나 친숙한 존재였는지 엿볼 수 있다.

예수는 당시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르단 서쪽 끝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이며 주 활동 근거지 또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러면서 당시 지배층에게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개혁과 변화는 농촌으로부터 도시의 변화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농촌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기반과 토대가 되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교회의 근거가 되는 농촌 신앙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를 통하여 교회의 본격적 설립의 기초 작업을 농촌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 된다.

이상에서 구약과 신약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 이어서 채소와 과일나무를 인간의 양식으로 주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사람은 땅을 경작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농촌 신앙공동체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서에서 나타난 농촌 신앙공동체의 의미는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로 믿으며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농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인류구원을 위한 교회를 출현시키고자 하였다.

70) 차정식, “예수님의 농촌 목회” 「목회와 신학」, 2005년 9월, 57-8.

2) 농촌 선교의 신학적 배경

(1) 구약적 배경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창조 활동과 섭리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세계의 창조 속에 할당되었다. 곧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창 1:1-10)과 무생물의 창조(창 1:11-20-25), 그리고 인간의 창조(창 1:26-31)로 구분되어 있다.⁷¹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에덴을 창조하였다.(창 2:9)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공통된 주제는 인간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환경에 저해가 되는 동물이나 땅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스리고(창 1:28, 2:15) 정복하라(창 1:28)는 위탁까지 하나님은 주었다. 결국, 성서는 인간의 생활환경을 긍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본래 의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⁷²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한 후 이를 인간에게 위탁한 것은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축복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위탁받음으로써 그의 대리자로서 노동의 위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의 대리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³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전부터 노동을 위임하였고(창 2:15),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이미 농사일을 시작했으며 범죄 이후 추방되었을 때에도 인간은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면서 생활하였다.(창 3:23) 인간은 이 농사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탁한 이 세계를, 그의 뜻대로 관리하고 지키므로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⁷⁴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동산을 가꾸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구약성서 배경에는 노동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71) 문희석, 「창조 신학」 (서울: 보이스사, 1976), 96.

72) Ibid., 71.

73) 박봉배, 「기독교의 비 종교화」 (서울: 법문사, 1975), 369.

74) Ibid., 16.

하나님이 정하신 활동이며 명령이다.

인간의 타락 전 에덴의 땅은 축복받은 곳이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던 곳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에덴을 경작하고 보살피는 데는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 수고를 통하여 에덴의 땅을 지키기를 바란다. 노동이 인간 모습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구약성서 전체에도 나타난다. 노동이 없는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고 비옥한 동산에 두고 거기서 일을 하라는 위탁에서 의미를 얻은 것이고, 사람이 노동에 의미를 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면서 인간에게 허락된 위탁된 생활의 의미이다.⁷⁵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에덴의 축복은 사라지고 땅은 저주를 받았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 토지가 저주를 받았고 농부가 평생 수고를 함에도 노동 자체는 저주를 받는데 속하지 않고 있다. 오직 노동과 관련된 수고와 재앙이 나타날 뿐이다.⁷⁶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위탁받은 노동이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추방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노동을 멀리하고 있다. 인간은 에덴이 원상태로 복귀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저주받은 땅과 고통받은 노동이 본래의 창조 모습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적 노동의 회복으로 에덴을 계속 경작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존하려면 그런 목적을 위하여 노동할 때만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노동을 점차 인간의 영역에서 멀리하고 있다. 더욱이 인간들은 스스로 노동을 천대하게 됨으로써 특별히 육체의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농사일까지도 경멸받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 선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⁷⁷

첫째, 인간의 모든 노동의 기본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주제로 하는 농사일이 그 위치를

75) 문희석, 「창조 신학」 (서울: 보이스사, 1976), 104-5.

76) Ibid., 106.

77) 전덕열, 「농민선교에 대한 성서적 근거」 (서울: 보이스사, 1976), 27

회복해야 한다.

둘째,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는 신성한 일이라는 자각이 있어야만 한다.

셋째, 농사일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대가를 지불받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창조적 노동이 회복되고 모든 인간이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며 육체적 노동을 행하는 농민이 어디서나 대우를 받는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여도 인간의 생존은 컴퓨터나 과학기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농산물, 특히 한국 상황에서는 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계층민들은 농촌의 농민인 것이다.⁷⁸

(2) 신약적 배경

예수의 주 활동 무대인 팔레스타인의 갈길리는 가장 비옥한 농토로 알려져 있었고 소출도 많았으므로 이 지방은 농촌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다. 주목할 것은 이 지방의 대부분 소작인이 아니면 일일 품꾼들이었다는 사실이다.⁷⁹ 이와 같은 갈길리의 배경 아래 예수의 주 선교 대상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없는 농민들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정치·경제·문화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농어민이 중심이 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사는 곳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 점은 세례 요한도 비슷한 점을 보인다. 세례 요한도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다.

또한 예수는 출신이나 행적을 볼 때 시골 나사렛 출신의 민중에 속하였다. 나dana엘이 예수에게

78) 김춘기, “21세기 농촌선교에 대한 신학적 접근 제 2권” 「농어촌 목회와 신학」, 1998년 봄, 27-28.

79) 한국기독교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NCC신학연구위원회,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68.

이르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라고 하였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고향에 갔을 때 그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며 하찮은 집안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막 6:1-3) 예수의 공생애 중 주 활동 장소가 농촌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언어가 압도적으로 농경 문화적이라는 사실에서 잘 말해 주고 있다.⁸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마 6:26),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마 6:28),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요 4:35),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마 13:1-9; 막 4:1-9; 눅 8:4-8), 70인 전도인에 대한 추수하는 일꾼으로 비유(눅 10:1-2), 포도원 농부의 비유(마 21:33-46; 막 12:1-12; 눅 20:9-19), 가라지 비유(마 13:36-43) 등 예수는 농촌 선교의 현장에서 자연과 더불어 농민의 생활과 언어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가 갈릴리 농촌 사람으로 알려졌듯이 제자들도 농어촌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초대교회의 중심인물도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벳새다, 요한과 야고보,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았다(요 1:44; 막 1:10-20; 마 9:9). 특별히 예수의 명령대로 모든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된다. 그때가 오순절 절기로써 지중해 세계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소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행 2:7) 따라서 초대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갈릴리 촌부였음이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응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농촌이요 일터가 농촌이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농어민과 노동자와 약한 자(병자)들이라고 할 때 농어촌선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고 이것인 농촌선교의 바탕이 된다”⁸¹하였다. 나사렛 농촌 출신의 예수는 대부분의 공생애 사역 기간에 갈릴리 농어촌에서 농어촌 중심의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을 펼쳤고, 그들의 농경 문화적 바탕으로 인하여 그들의

80) *Ibids.*

81)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101.

눈높이에 맞추어 언어와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였고, 그의 제자들 또한 갈릴리 촌부로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신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는 예루살렘 변두리에 위치한 갈릴리 그곳에서 약하고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하고 놀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다. 오늘날의 농촌이 바로 그 갈릴리이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오늘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농촌 주민들이다.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 외면받고 천대받으며 눌러있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음으로 위로와 용기, 그리고 소망을 줌으로 생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한국 농촌 선교의 역사적 배경

(1) 초기 농촌선교

초기 한국개신교의 농촌 선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출발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배민수는 “대부분 복음전파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도시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한국선교는 한국인 신자에 의하여 농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⁸²고 강조 하면서 그의 저서 「그 나라와 한국농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신의 왕국에 왜 한국농촌 문제를 관련시키느냐고 질문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사마리아 등 농어산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한국 농민이 전 세계 농민 중 가장 빈곤하고 불운에 처하여 있음으로 왕국 문제를 취급하는데 가장 적합한 실험장이 되고 또 필자가 이 논문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다. 만일 한국 농민의 처세가 이렇게 곤란하지 아니하였던들 나는 노동문제 혹은 미국의 홍인종문제(紅人種 問題)나 미개한 민족들의 난 문제 등을 연구하고 직접 그들을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일신자(一信者)로서 문제의 중점은 가장 불운에 처한 인간들을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자는 데서 의미가 있고, 그러함으로 한국농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⁸³

1884년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국민의 절대다수가 농촌 인구였다. 당시 도회지라 하던 곳도 인구의 상당수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농촌 선교는 곧

82) Ibid., 103.

83)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1958), 5.

한국교회 선교를 의미했으며 농촌 부흥은 한국교회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⁸⁴

1879년에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서상륜씨는 1884년에 한국어로 번역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지고 입국하여 농촌인 “솔내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알려진 알렌보다 약 3개월 전이다. 그는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간단한 약과 감자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솔내교회가 이렇게 설립하게 된다. 농촌 출신의 캐나다 선교사인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은 1891년 솔내교회에 3년간 있으면서 농사법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 후에 그는 귀국과 내한을 반복하여 원산에서 축산과 원예와 과수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 과수 개량종 묘목을 도입하여 안병군과 덕원군, 문천군, 함흥에 과수 재배가 급속도로 보급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과수업자는 대개 기독교인이었고 부유한 농가도 그들이었다.

한편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도 농촌선교에 힘을 썼었고,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상류계급보다 근로계급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으로 1890년대의 선교는 선교사들이 도시를 떠나 농어촌선교에 주력하였었다. 그리고 1921년 농업전문가인 텍스터 루츠(Dexter N. Lutz)가 농촌 담당 선교사로 오게 되어 과수와 일반 작물 재배를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부학교를 설립하여 농한기에는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행하였다. 한편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의 목사 7명이 각 지방과 제주도에까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 교회 부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하였고, 특별히 관서와 관북지방에는 중류 지식층과 더불어 농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⁸⁵

같은 시기 선교사들은 순회 전도를 통한 농촌 선교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0년까지 한국 국민의 90%는 인구 1만 명 미만의 마을에 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마을은 수십 혹은 수 백호로 이루어진 작은 촌락으로 구성된 마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는 처음부터 한국 선교에서 중요한 방법이 되어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의 73%는 농촌에 거주하고

84) 박용규,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농촌 선교와 부흥” 『목회와 신학』, 2005년 9월, 63.

85)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104.

있었고, 선교 사역의 거점도 도시에 약 225개였고, 시골에 7,000개였다.”⁸⁶ 한국의 이런 결과는 이웃 일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일본에서 사역하였던 감리교 선교사 토머스 도나후(Thomas Donnugh)에 의하면, 일본 인구의 인구 80%가 농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의 8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⁸⁷

(2) 3. 1 운동 이후의 농촌 선교

1910년 국권침탈 이후 일본은 교묘한 방법으로 한국 농민을 수탈, 몰락하게 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여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화시켜 버렸고, 동양척식회사를 통하여 한국 농민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등 수탈정책을 펴나갔다. 일제는 청일 전쟁 이후 한국을 자신들의 식량 공급지로 삼고서 온갖 규제와 법규를 통원하여 토지 수탈 계획을 추진하였기에 농촌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⁸⁸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3.1 운동 이후에 실시 된 1919년 10월 장로회 제8회 총회에서 “전진 운동”을 결의하여 3년간 한국교회의 진흥과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된다. 제1차 연도에는 준비와 개인 전도로 시작하여 제2차 연도에는 부흥회 개최와 단체 전도로 확대하고 3차 연도에는 주일학교 및 농촌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1928년 제 17회 총회에서는 “농촌부”를 설치하여 노회마다 지부를 두었다. 1930년 총회에서는 10월 셋째 주일을 “농촌주일”로 정하여 농촌을 위하여 각종 행사가 시행하였으며 특별히 현금을 모아 농촌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한편으로 1930년에 부임한 우카키 총독은 교묘하게 기독교 농촌선교 운동을 말살하기 시작하였고, 1936년에 미나미 총독이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민족운동 탄압이 이루어져 1937년에 제26회 장로회 총회는 농촌부가 폐지되었고, 1923년부터 농촌사업에 힘을 기울였던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의 농촌사업도 폐지되고 말았다. 이렇게 일제의 탄압으로 농촌 선교는 어두운

86) 박용규,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농촌 선교와 부흥” 「목회와 신학」, 2005년 9월, 63-64.

87) Edmund D. S. Brunner, *Rural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8), 49.

88) 박용규,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농촌 선교와 부흥” 「목회와 신학」, 2005년 9월, 65.

그림자에 덮이게 된다.⁸⁹

(3) 해방 이후 농촌선교의 재건 운동

8.15 광복은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듯이 농촌 선교 또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해방 직후의 혼란한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어렵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일제식민지 시대 때 크게 활동했던 장로교회나 YMCA가 같은 단체가 주축하는 사이 개인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1946년 성인교육 중앙회 총본부 회장 홍병선, 1949년 대한농회 회장 최태용, 1953년 금융조합연합회 회장 배민수 목사 등이다. 특별히 김용기 장로는 1952년 강태국 목사와 더불어 용인 농민학교를 설립하였고, 1962년에는 경기도 광주에 가나안농군학교와 이어 1973년에는 강원도 원성군에 제2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여 수십만 명의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를 교육 하였다. 또한 김영환 목사와 장손철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외교기구인 한국 덴마크협회를 창설하고 직접 덴마크에 가서 각종 농업을 연구함과 그 나라의 신앙과 근면한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1966년에 한국기독교 농촌봉사회를 창설하여 덴마크 농업을 소개하게 된다.

장로교회에서는 1955년 제40회 총회에서 “농촌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촌교회를 지도하다가 1960년 제44회 총회에서 “농촌부”로 발전시켰고 매해 6월 마지막 주일을 “농촌부 주일”로 지정하게 된다. 특별히 1966년부터 농촌부 전임 총무로 곽재기 목사를 두면서 농촌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⁹⁰

(4) 전환기에 선 농촌 선교

1990년까지 한국의 농촌 선교는 교회 중심적이며 전도 중심적이었다. 농업인은 단순히 구원받아야 할 전도의 대상이며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와 전도를 펼치는 거점이었다. 농업인들에게

89)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105-106.

90) Ibid., 107-108.

영농기술을 가르치고 도움을 주었던 목적은 예수 믿고 교회로 오게 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이었다.

1952년 WCC(세계교회협의회) 윌링겐(Willingen) 대회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채택된 이후 60년대 이후 WCC의 지배적인 선교개념이 되었고 한국 신학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응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의 심화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향과 지표를 보여주었다.”⁹¹고 평가하고 있다. 60~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오면서 도농(都農) 간의 격차가 심화하기 시작하였고 농촌경제가 날로 악화하여가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업기술이 부족하거나 생활의 나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농업정책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사회악에 대하여 농업인들은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피해 의식까지 생겨났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하여 결성된 것이 1972년 가톨릭농민회와 1985년 기독교 농민회이다. 이런 단체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바탕으로 농민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농민의 인간화”, “사회정의”, “농민의 권익” 등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농촌의 선교단체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농민들에게도 외면당하였다. 김진홍 목사는 이 이유를 “전도에 치우친 농촌 목회자들은 농촌 속에 살면서도 농민들의 한과 고통은 외면한 채 개인 영혼의 구원과 교회 성장에만 몰두해 왔고 반면에 사회선교에 치우친 운동가들은 농민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단위 지역 내 농촌교회의 목회적 차원에는 눈을 감은 채 농민의 의식화 조직화를 통한 농민 운동 혹은 투쟁에 몰두해왔다.”⁹²고 보았다.

농촌선교를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구원을 강하게 주장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반성서적이며 인간중심이고 신앙이 없는 자유 신학자들의 주장이라고 반대한다. 사실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에 참가하는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적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개인의 경건이나 교회 성장에 있어 부족한 면을 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악은 무시하고 교회

91) Ibid., 108.

9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부 편, 「교회와 농민」 (서울: 도서출판양서각, 1986), 66-67.

중심적이고 개인의 구원만을 고집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개교회주의며 의식이 없고 동떨어진 시대 감각으로 권위적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한응수 목사는 “농촌 복지에 기초를 둔 농촌선교와 농민의 인간화에 기초를 둔 농민선교는 농민의 전인구원(全人救援)이라는 대명제에서 볼 때 불가분의 맺게 된다. 농민의 인간 회복이 없이는 농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없으며 농촌의 복지가 실현되지 않고는 농민이 행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농촌선교에 있어서 개인구원이나 사회 구원을 별개의 것으로 나눌 수가 없다.”⁹³고 하였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구원이든지 사회구원이든지 혹은 농민의 복지이든지 농민의 인권이든지 어느 부분을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과장하여 주장한다든지 혹은 다른 부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생명의 젖줄이다. 농업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소중한 기초산업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하는 도시로의 이주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농촌은 힘들어하고 있다.

교회는 마땅히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땅을 살리고, 산업화·디지털화의 파고 속에서 농촌을 보호하며 어느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인도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을 모색하여 더불어 사는 이 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야 하겠다. 교회는 현재에도 변함없이 주어진 이 시대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⁹⁴

3.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

1) 문화(culture)에 대한 이해

현대 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지난 세기 후반부에서 ‘문화의 폭발

93)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110.

94) Ibid., 111.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화'는 우리 시대의 최대의 화두 중의 하나가 되었다.⁹⁵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계승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면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어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천의 역사가 있다. 문화의 개념은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사용됐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원승룡과 김종현은 “문화의 개념은 라틴어 발을 ‘경작하다’, 혹은 신체를 ‘훈련하다’ 등을 의미하는 colo(형용사 cultus, 명사 ultura)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본래는 정신적인 의미가 없던 말이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도야(陶冶)’나 ‘교양(教養)’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 시대 때부터이다.”⁹⁶ 라고 하였다. 라틴어 ‘발을 경작하다’는 의미하는 단어에서 ‘문화’가 나왔다는 점에서 ‘농업’과 ‘문화’가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자연’(nature)에 대치되는 의미로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과 습관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⁹⁷이다.

2) 농촌 문화에 대한 이해

‘농촌 문화’란 무엇인가?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인 황정임은 농촌문화를 “농촌 고유의 삶의 양식”으로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즉 문화의 개념이 인간의 삶과 활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농촌문화를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공유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⁹⁸

그러면서 몇 가지 재고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

95) 원승룡 & 김종현, 「문화 이론과 문화 철학」 (경기도: 서광사, 2008), 13.

96) Ibid., 21.

97) 김태명 외 다수, 「농촌 활력론」, 75.

98) Ibid., 75.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농촌을 구분하면서 특성을 규정 짓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개념의 혼용은 불가피하다. 두 번째, 지금도 농촌문화는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농촌문화도 끊임없이 재정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문화에 대한 논의는 명확하게 규명되기보다는 다소 모호함이 내포된 개념의 혼돈에서 시작될 수 있다.⁹⁹

3) 농촌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

우리나라 농촌 문화의 사회적 성격이나 전통적인 사회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준 환경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¹⁰⁰

첫째, 지리적 환경의 영향이다.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교량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수많은 외침과 수난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적이며 안일무사주의적인 성향과 사대사상 및 관준민비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종교적인 환경의 영향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사회적인 성격을 형성함에 불교와 유교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에 전파되어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사회·교육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민족에게 자비심과 인과응보 사상을 심어주었다는 것 외에 한편으로 현세를 부정하는 허무주의 사상을 가지게 하였다. 유교는 조선 500년의 국교로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생활습성과 사상이 깊이 젖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 갖고 있다. 삼강오륜을 통하여 인륜적 윤리적 도덕심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 긍정적 생활철학과 인본주의 사상을 배양하였으나 상반의 계급과 남존여비의 관념을 가지게 하였고 파벌주의 또는 조상숭배와 허례허식을 낳게 하였다.

셋째, 농업적 환경의 영향이다. 농업은 수자원의 이용이라는 특징에 의해서 집단부락의 촌락 공동체의 성격이 강조되어 외향적으로는 평등과 협동심을 가지게 했다. 또한 한 지역에서의 생계를 위해 농업이 중심이 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자연히 농민의 성격은

99) Ibid., 76.

100)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43-4.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며 동시에 문화적 전통은 인습적이다. 그리고 자연의 재난으로 농민들은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것에 많이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농촌 지역민의 사회적 성격은 도시인과 비교해서 정통주의적이고 미신적이며 고립봉쇄적이다. 또한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이타적이며 관용적·정서적이고 권위주의적이지만 솔직 순박한 품성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산업 근대화 시대를 넘어 지식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디지털 산업혁명 시대)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가파른 이농과 마스크의 보급, 물질문명과 기계화는 농촌의 도시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생활양식도 도시와 농어촌의 구별이 사라지고 의식구조 면에서도 도시인과 농촌인의 차이를 좁히고 있다.

과거 농촌 주민들은 정(精)이 흐르는 촌락 공동체였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인간관계나 의리를 더 중하게 여겼고 인정과 체면을 더 존중하였다. 그러던 것이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서서히 농민들도 타산적이고 이익 추구의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전통적이고 습관적이었던 농촌인의 문화·사회적인 성격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70~80년대만 해도 농가에서 재배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어 먹던 미풍이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추고 시장을 우선시하고 돈으로 계산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이익 추구는 결국 배금주의 사상을 낳게 되었고 이는 혈연관계나 지연 관계의 공동체적 의식마저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점차 실리만 추구하는 강박한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4) 농촌 문화의 특성 이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요청된다. 문화란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선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를 배제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에 속한 지역 교회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선교 방법과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전통적 농경사회의 농촌 문화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문화에서 농촌문화는 그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근대사회를 주요 배경으로 전통적 농촌문화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전통적 농촌사회는 ‘촌락공동체(village community)’로 농업을 함께하는 집단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촌락은 농가의 기본 단위로 하면서 공동체 문화의 기본 단위이자, 실질적 사회생활의 울타리였다. 이런 농촌 사회가 해방 후 정부 수립과 민주사상의 도입과 함께 시작한 농지개혁과 농협 운동 등으로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근대화는 농촌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농촌의 사회관계, 가족행태, 농가계층, 인구구조 등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일방적인 ‘개발’이나 ‘발전’의 논리로 농촌사회의 희생이 존재하였고, 의식주 생활에서 고유한 농촌의 모습이 약화하였으며, 공동체적인 민속, 여가 활동이 크게 소멸하였다.¹⁰¹ 이와 관련하여 황정임은 “문화는 생성과 소멸, 즉 끊임없는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왜곡된 근대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마땅히 유지, 보전되어야 할 농촌문화에 대해 합당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반성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¹⁰²고 비판하였다. 공업과 실적 위주의 사업 관행으로 인한 환경 파괴, 근대화란 이름 아래 이루어진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폄하 및 폐기하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지만, 농촌문화는 2000년대에 들어 지역 발전의 주요 인자로 문화를 다루는 흐름을 타고 농촌 문화를 발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¹⁰³

101) 김태명 외 다수, 「농촌 활력론」, 77-79.

102) Ibid., 80.

103) Ibid., 81.

(2) 농촌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농촌문화

지역 발전의 주요 인자로 문화를 다루게 된 것은 2000년 이후였다. 이것은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된 모습으로 전 세계가 유사한 문화로 통합되는 반발로 지역의 고유문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은 수요가 지역개발의 자극제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 수준의 향상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적 욕구 충족 추구하고 함께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사물 인터넷 사회로의 변화 등도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힘입어서 2000년대 전후로 다양한 마을 단위 개발 사업들이 농촌문화를 근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¹⁰⁴ 농촌 고유의 문화 자원으로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의 예로 ‘농촌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농촌건강장수마을’, ‘신문화공간조성’ 등이다. 농촌 지역에까지 침투해 있는 도시적 생활의 우세 속에서, 전원적·농가적 생활양식과 고유한 특질로 지역 개발의 활력으로 인식,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농촌문화는 “과거나 현재 농촌을 설명하는 용어이기보다는 ‘전통적 농촌의 특성이 강한 일종의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전문적·이질적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농촌문화 탄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¹⁰⁵

(3) 농촌사회의 변화상과 농촌 문화

전체 인구 가운데 농촌 인구 비율은 1970년 57.4%에서 2013년 18.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¹⁰⁶ 이는 동기간 전체 인구가 약 1.6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농촌 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대거 꾸준히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농촌 인구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치열한 도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생명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농업에

104) Ibid.

105) Ibid., 88.

106) 김한중, “도시와 농촌간 인구 이동 현황과 시사점” 「NH농협 조사월보」 (서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5), 28-9.

도전하고자 사람들, 또는 농업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귀농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9년 귀농 가구 수는 4,080가구, 구성원 수로는 7,875명이 귀농하였다. 이는 2008년 2,218명과 비교하여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문화일보의 이민종기자는 이런 현상을 “귀농 인구 증가는 도시에서의 일상을 접고 농촌에서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려는 30~50대가 늘고 있는 데다, 정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과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세운 게 조금씩 효과를 거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¹⁰⁷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9일 자 전남일보에서는 전남지역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5,000 농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11월 전남지역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 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은 5027농가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보다 465농가(10.2%)가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3908농가로 고소득 농업인의 77.7%를 차지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933농가(18.6%), 5억 원 이상은 186농가(3.7%)에 달했다. 최고농업경영자로 불릴 만한 농가 소득 10억 원 이상 농가도 42농가(0.8%)나 된다.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6농가(41.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60대 이상이 1996농가(39.7%)였다. 40대 이하 청년농업인도 945농가(18.8%)나 돼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¹⁰⁸

이런 뉴스들은 더 많은 귀농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을 목적을 두지 않지만, 건강과 전원생활을 위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 현상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즉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젊은 연령층의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대세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 등의 여러 목적을 가지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중장년층의 인구 유입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농업이 농촌의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약 30년 동안 전업농가 비율은 19.7%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겸업농가의 비율이 17.9% 증가하였다. 주목할

107) 문화일보 이민종, “귀농 연 4,00가구 돌파”, [온라인 자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22501071624219002>, 2019년 10월 20일 접속.

108) 전남일보, “전남 역대 부농 5천농가 돌파...50대·고흥·식량작물 ‘최다’”, [온라인자료]
<https://jnilbo.com/2019/02/09/2019020918342530195/>, 2019년 10월 20일 접속.

점은 겸업농가의 비중이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¹⁰⁹ 즉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각 농촌 지역의 특성의 다양화가 이루고 지고 있다. 이런 양상으로 진행된다면, 농촌문화의 공통 의미들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¹⁰

농촌문화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농촌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존재이다. 2018년 전국 334,856개 다문화 가구가 있고, 이 중 같은 지역이 258,081개 가구로 무려 77.1%나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은 아래와 같다.¹¹¹

<표 3>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현황 - 시군구 (통계청 <http://kosis.kr>)

행정구역별 (시군구)	2015		2016		2017		2018	
	다문화 가구 계	다문화 가구 가구원 계	다문화 가구 계	다문화 가구 가구원 계	다문화 가구 계	다문화 가구 가구원 계	다문화 가구 계	다문화 가구 가구원 계
전국	299,241	887,804	316,067	963,174	318,917	963,801	334,856	1,008,520
읍부	32,523	103,169	33,841	111,308	35,660	115,603	39,055	125,125
면부	37,236	131,580	36,342	133,455	37,466	135,453	37,720	135,155
동부	229,482	653,055	245,884	718,411	245,791	712,745	258,081	748,240

2018년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19,979,188개 가구 가운데 같은 지역 다문화 가구는 258,081개 가구로 1.3%이지만 농업 가구 1,020,838개 가운데 다문화 가구는 무려 25.3%나 차지하고 있다.

“외국 태생 인구 비율 5%를 기준으로 다문화사회로 구분한다.”¹¹²고 할 때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아직 다문화사회라고 규정하기에는 이르지만, 비록 농업 가구 통계이지만 농촌 지역은 다문화사회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09) 예를 들어 2008년 기준으로 경상북도 33.0%, 전라북도 38.1%, 강원도 45.3%, 제주도 61.6%로 지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업조사])

110) 김태명 외 다수, 「농촌 활력론」, 89-94.

111) 통계청, 주요인구지표(2019). [온라인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tat.go.kr>. 2019년 10월 20일 접속.

112) 임형백,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다문화사회연구」, 2009 Vol.2 No.1, 8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은 지속적인 변화를 이어오고 있다. 비록 도시와 비교해서 변화의 속도가 완만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기계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한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식, 배경, 직업,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 농촌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¹¹³

4. 농촌교회의 현실과 선교

1) 농촌교회의 선교 문제점

(1) 농촌교회의 정의

“농촌교회란 농촌에 위치하여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신자들이 과반수 이상 모이는 교회를 말하며, 행정적인 구분으로는 면(面) 단위 이하에 속한 교회를 농촌교회라고 말한다.”¹¹⁴ 이렇게 농촌교회는 흔히 ‘농촌’이라 일컫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다.

(2) 농촌교회의 어려움

한국교회는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에는 교회 수가 3만을 넘어섰고 교인 수도 1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교회의 상황일 뿐 농촌교회는 피폐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최고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에 농촌교회가 어려웠다면 본격적으로 교회 성장 둔화 및 감소를 언급하는 오늘날에 와서 농촌교회가 훨씬 더 힘들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도시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농촌교회는 교인 수, 교역자 수, 평균 교인 수, 교회 예산, 교역자 대우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¹¹⁵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세성이다. 김종석은 1991년 「월간목회」에서 교회당 평균 교인 수는 서울의 경우 556명, 전국 평균 교인 수는 346명이다. 그러나 농촌은 겨우

113) 김태명 외 다수, 「농촌 활력론」, 98.

114)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31.

115) 김인호, “한국교회 셀 목회의 역사와 과제.” 「목회와 신학」, 2013년 9월. 36-39.

44명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평균 교인 수가 30명 이하인 농촌교회가 5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¹¹⁶ 당연히 교인 수도 심각하다. 농촌의 교인은 466,000명으로 전체 교인의 4.5%로 농촌인구의 6.0%에 불과하다. 1991년 당시 한국 도시의 복음화율이 27%인 것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다.¹¹⁷

농촌교회의 상황은 교인 수뿐만 아니라 연령별 구성분포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젊은 층(30-50세)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층(60세 이상)이 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한 마디로 고령화된 농촌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통상 회갑을 기점으로 하여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가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은퇴 연령, 그리고 UN이 정한 나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UN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규정하고 있다.¹¹⁸

지난 2019년 10월 24일 한 신문 기사에서 통계청의 ‘통계로 본 2018년 기준 쌀 산업구조 변화’ 자료를 근거로 “2018년 농촌 인구 2,31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035,000명으로, 고령화율이 44.7%에 달했다.”¹¹⁹라고 보도하였다. 농촌 사회가 44.7%가 고령화율이라고 한다면 농촌교회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며 이는 농촌교회가 마치 양로원 수준임을 연상시키게 된다.

농촌교회의 열약성은 자연적으로 교회 예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90년 현재 1년 예산 300만 원 이하인 농촌교회는 18.7%, 300~500만 원 농촌교회는 35.4%로서 농촌교회의 74.9%가 연

116) 김중석, “농어촌교회 목회와 교회환경실태조사” 「월간목회」, 1991년 3월, 103.

117) 윤석용, “한국농촌선교에 도전한다.” 「월간목회」, 1991년 3월, 103.

118) 임윤건, “고령화 사회의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2010, 9-11.

119) 헬월드경제 정경수, “농촌 인구 10명 중 4.5명이 노인…쌀 소비 40년 새 반토막”, [온라인 자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4000616>, 2019년 10월 20일 접속.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¹²⁰ 한편 1996년 기준으로 예장통합(총 5,744 교회)의 농어촌 미자립교회 실태를 살펴보면 2,500여 개의 농어촌 교회 가운데 연 예산 2천만 원 이하가 1,440 교회로 57.6%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연 예산 5백만 원 이하가 350 교회나 되었다.¹²¹ 2004년 교회성장연구소가 조사한 예장 대신 측 통계조사에 의하면 농어촌교회의 자립률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²

이렇게 어려운 농촌교회의 경제적 형편은 결국 목회자들에게 생활고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농촌목회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자녀 교육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젊은 목회자에게 더욱 심화하면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발생하거나 자주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농촌선교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농촌교회를 더욱 피폐화시키게 된다.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또한 농촌교회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 된다. 농촌사회 자체가 피폐해지게 되면 농촌교회도 당연히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다. 농촌 사회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으로 형편이 악화하면서 자연히 농촌교회 또한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 개발’ 논리에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을 천시하고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턱없이 낮거나 미흡한 결과로 말미암아 살길을 찾아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히 농촌교회의 교인 수와 예산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의 수출주도 산업 육성에 따른 무계획적인 영농정책과 무분별한 수입개방 등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 감소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농촌 목회에 대한 준비되지 않고 투철한 소명 의식의 부족함과 단순히 농촌에 대해 목가적인 기대를 가진 목회자의 자질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농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서 그대로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위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지역 주민들과 공감이나 연대하지

120) 윤석용, “한국농촌선교에 도전한다.” 「월간목회」, 1991년 3월, 263.

121) 국민일보 김규원, “농어촌교회/ 우리가 도우면 자립과 부흥 온다”, [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70613000002001>, 2019년 10월 20일 접속.

122) 홍영기, “한국교회의 정신적구조 조정” 「기독교신문」, 2004년 4월 4일 4면.

못함으로 인한 문제도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농촌교회의 선교적 역할 모색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한다. 하비 콕스(Harvey G. Cox)의 「세속도시」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방가르드로서 세상 속에서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이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어야 한다.¹²³ 즉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며 거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 세상은 교회 사명의 사명지로 교회의 존재 장소가 된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터전 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섬김의 사역이 요구된다.¹²⁴

도시로의 이농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농촌의 현실이 암울하다고 해서 선교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지역 복음화를 향한 열정이 사그라져서는 안 된다. 외부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경향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농촌교회의 새로운 선교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농촌교회 역할

한국의 복음 전래는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¹²⁵ 그동안 농촌 지역의 주민들과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해 온 농촌교회는 지역사회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비록 종교와 사상, 생각 등의 견해가 다를지라도 지역공동체로서의 농촌교회는 농촌의 인심과 정서적 바탕 위에서 상생하는 공동체이며, 지역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함께하는 공생하는 공동체이다. 이런 기본적인 기반 속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역할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상생하는 농촌교회의 역할을 모색하자면 농촌이 죽으면 농촌교회 또한 죽는다. 농촌을 떠나서

123) Harvey G. Cox, 「세속도시」 구덕관 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67-8.

124) Haskell M. Miller, *Compassion and Community*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1), 28.

125)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103.

농촌교회를 생각할 수 없다. 교회는 지역과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농촌교회는 지역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농촌교회는 농촌 지역과는 상생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농촌교회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들과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비단 농촌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아가 지역을 벗어나는 일들까지도 그 흐름을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선교적 활로를 모색하며 세상에서의 교회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사회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려해야 할 특수한 상황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산업 제일주의 및 성장제일주의의 구호 아래에서 그 동안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 왔다는 것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교회가 농촌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성서적 명제가 되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신앙을 펼쳐나가는 나가는 하나의 과제가 된다.¹²⁶ 침체되어 있고 활기를 잃어가는 해당 농촌 지역에 대한 여러 제반 문제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면서 교회적 책임 분야를 모색하는 가운데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에 소망을 주고 생기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교회 마저 해당 농촌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모습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락으로 빠져드는 농촌은 더는 소망 빛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 된다. 지역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교회는 수행해야 한다.

(2) 지역 화합과 지역 주민의 대리인으로서의 농촌교회 역할

농촌 지역에도 자치행정 기관이나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 등의 기관들을 통해 농촌 지역민들의 민원과 의견들이 전달되고 또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라 해서 농촌 지역민들의 모든 민원과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으로 가진 한계점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교회에 분명히 있다. 기본적으로 교회란 다수의 사람들이

126) 이원규,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6.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입지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있고 견고하다. 실제로 농촌 지역의 교회는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나름 공공기관이라는 의식이 있기에 활동하기에 따라 목사는 기관장으로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소통 창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애로 사항 등을 자치행정 기관으로 전달하는데 교회가 중간 매개체로서 교량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 존재성을 높일 수 있다.

도시교회는 소위 ‘이미지 전도’라 하여 마을 봉사 활동, 어르신 음식 대접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교회 인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 지역의 교회는 도시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긍정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과 화합으로 이끌어 내는데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교인들에게도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회에 관련된 인식을 긍정적이고도 필요성 있는 존재감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농촌교회가 지역화합의 중추 기관으로, 또 지역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해당 지역에서의 신뢰를 향상할 수 있으며 이는 선교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3) 지역농산물 유통 통로로서의 농촌교회 역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의 하나가 판로이다. 힘들게 농사를 해서 많은 수확을 해 놓고도 판로가 없어서 폐기 처분하거나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 평생을 농촌 지역에만 살아온 농부에게 생산 보다 판로가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고민을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와 연계하여 직거래를 통한 판로를 확보해 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에 생산자의 실명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수입산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그 가운데 분명히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상관없이 소비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판별 능력의 부족도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교회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해 주고, 나아가 직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산물로써 국내산이라는 신뢰감을 제공하는 가운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안전하고도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이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대형 유통경로와 판로가 미흡한 실정이다. 아무리 친환경 품질 좋은 농산물이라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농가의 소득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교회가 앞장서서 도시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도 살리고 도시의 안전한 먹거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만족을 주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나서는 것은 지역 선교를 위한 차원에서 마땅한 일이다.

(4) 선교 실천의 장으로서 농촌교회 역할

그동안 수도권 대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은 대도시 집중화와 과밀화로 오히려 몸살을 앓게 되었고 지방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도시 모두가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역량을 증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하고자 했듯이 교계적인 차원에서도 도시교회가 도시 선교에 전력하면서도 농촌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농촌 선교를 위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농촌교회들이 양육한 교회학교 학생들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도시의 대형교회를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하지만 농촌교회의 입장에서 힘들게 양육한 학생들이 도시로 빠져나갈 때 허탈감과 무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도시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적지 않은 농촌교회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농촌교회의 교인들이 도시로의 이주는 자연히 도시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농촌교회를 향한 도시교회의 빛진 마음과 함께 현재 피폐해진 농촌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시교회의 선교사역이 농촌 지역선교를 주된 목표 중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요청이다.

관련하여 농촌교회는 농촌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교회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일반사회에서도 도시민들을 농촌을 체험하게 하는 여러 활동이 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는 팜 스테이(Farm Stay)를 통해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 및 마을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 문화, 관광이 결합된 농촌체험여행”¹²⁷을 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교회 역시 도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농협의 팜 스테이(Farm Stay) 형태의 농사, 관광 및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다. 농촌교회 가운데 스스로 해당 농촌 지역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교회들이 많기에 도시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의 선교 활동의 장으로 도시교회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는다면 해당 지역의 선교를 위한 또 다른 농촌교회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때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도시교회는 농촌 선교에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농촌 선교를 펼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동역자적인 신앙공동체가 농촌교회다.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의 선교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한 분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신앙 윤리적인 측면에서와 한국 복음화 측면에서도 당연한 활동이다.

5. 소결론

농촌 선교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배경과 한국 농촌 선교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농촌 문화의 특성과 농촌교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농촌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노동과 함께 하는 농업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활동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구속사업을 펼쳐나가는 과정으로 농촌 신앙공동체가 그 큰 바탕이 되었고 이는 선교 그 자체였다. 이와 같은 농업 선교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초기 한국 선교의 터전인 농촌을 통하여 큰 부흥을 맞이하였다.

127) [온라인 자료] <https://www.farmstay.co.kr> 에서 팜스테이 소개글, 2019년 10월 20일 접속.

하지만 국가적인 산업발전정책과 지원, 성장주의 정책과 관심으로 농촌은 외면당하였고, 끊임없는 도시로의 이주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은 폐쇄하여 버렸다. 농촌이 폐쇄함에 따라 당연히 농촌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농촌교회도 폐쇄해져 버렸고 많은 문제점을 안은 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듯이 농촌교회는 농촌과 분리될 수 없다. 농촌교회는 농촌이라는 터전 위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농촌으로 나아가야 한다. 농촌이 아무리 폐쇄하였고 암울하다 하더라도 농촌은 농촌교회가 있어야 하고 농촌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농촌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해야 한다. 선교 사역은 농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하나인 농촌교회로서 할 수 있는 선교적 역할, 지역 화합과 지역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농촌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역할, 지역 농산물 유통 통로로서의 농촌교회로서 할 수 있는 선교적 역할, 선교 실천의 장으로서 농촌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지역의 선교가 지금의 상황에서 농촌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

농업 활동을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 사례 연구

이번 장에서는 농업 활동을 통하여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교회들을 소개하려 한다. 사례로 제시된 교회는 연구자가 위치한 전라북도 관내 면단위 농촌에 위치한 농촌교회 가운데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이다. 먼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를 선정한 이유는 이후 4장 설문 연구조사 시 모집단 타당성을 고려한 통계적 문제를 고려했던 것이며 전라북도로 선정한 이유는 농업을 활동을 통하여 선교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기에 연구를 위한 원활한 자료를 수집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례로 제시된 교회의 발표된 학술과 서적을 참조하였지만,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금암교회¹²⁸

1) 금암교회의 개요

전북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에 위치한 금암교회는 다른 농촌교회와는 달리 유독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한 교회이다. 교인 60여 명 가운데 20여 명 정도가 청년이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2006년도 부임한 현재 채금석 목사가 과거 근 10년 이상의 시간을 학생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양육한 결과이다. 금암교회는 군산시에서 가장 변두리 농촌 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교회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을 활용하여 교회가 배추, 고구마, 옥수수 농사를 통해서 재정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양육된 청년들의 도움으로 사회복지시설로서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교육, 보호,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주간에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통하여 선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128) 금암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2019년 11월 채금석 목사와 직접 인터뷰하여 작성하였다.

2) 금암교회와 지역 상황

금암교회가 속한 지역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은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1,337세대, 총 2,629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¹²⁹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25여 세대의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해 있다. 금암교회는 1931년 2월 동년교회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자리에 설립하여 시작하였다. 초대 구연직 전도사로부터 1981년 김진남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 25명의 담임 목회자가 교체되는 평균 2년에 한 번씩 있다가 떠나버림으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 없었다. 그나마 김진남 목사가 22년의 목회 사역 후 2003년에 은퇴하였지만, 후임 목사가 또다시 2년 후 다른 곳으로 떠나므로 목회자의 불신감이 팽배하던 차에 현 채금석 목사가 부임한 2006년 2월 27대 담임목사로 부임을 했다.

당시 교인은 재적 40여 명 정도였고, 주일 예배 출석은 평균 30여 명 되었다. 출석하는 어린이는 10여 명, 중고등부는 6명 정도로 변두리 농촌교회 치곤 어린이-청소년이 그래도 존재하였지만, 대부분의 교인이 70세가 넘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 교회의 예산은 3,800만 원 정도에 승합차를 사서 할부를 갚는 중으로 교회 운영이 힘든 상태였다.

교회 시설도 낙후되어 예배당은 보온 및 단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너무 춥고 더웠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여 장마철에는 역겨운 냄새가 교회당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여느 다른 농촌 지역처럼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 가운데 노인들만 농사를 지으며 지역사회를 지켰기에 교회 역시 노인 위주에 쇠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3) 학생들과 시작한 옥수수 농사로 이룬 성장

노인이 주로 출석하는 교회였지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당시 어린 학생들이 마을에 아직 남아 있었던 점이였다. 채금석 목사가 부임하여 첫날 이사하자마자 오후부터 호기심 어린 아이들이 하나,

129) [온라인 자료]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main/m398>, 2020년 8월 20일 접속.

둘씩 교회로 찾아오자 그 아이들을 저녁을 지어 먹이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농촌 지역인지라 특별한 놀 거리가 없어 교회로 모여오게 되었으며 채 목사는 사택을 자유롭게 개방하여 쉼터가 되어 주었고 교회에서 마음껏 놀게 하였다.

하지만 장년들은 이런 채 목사와 아이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교회에서 학생들이 빈번하게 10명, 15명씩 모여 어울리다 보니 교회 식당을 이용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1주일 한 번씩은 꼭 교회 유리창을 깨 먹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재정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채 목사는 이런 학생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나간 끝에 30명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전무한 현실이었다. 적은 사례비에 사비로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바람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어느 성도가 쓰지 않는 300평의 밭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채 목사는 그 밭을 얻어서 학생들과 옥수수를 심으며 농사를 시작하였다. 교회 장년부 성도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우려가 컸었다. 목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설교나 심방 등 전통적인 목회는 소홀히 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채 목사가 농사를 하자 주변 주민들의 시선은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소재가 없었다. 단순히 교회에 오라는 말만 전달할 뿐이었다. 그런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서 목사가 농사하면서 농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농기구도 빌리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열리게 되었다.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옥수수 농사가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농사에는 학생들도 참여하면서 함께 땀을 흘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목사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수확과 더불어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도 배가 되었다. 채 목사는 옥수수 농사로 인한 수익은 교회 수입으로 넣지 않고 장로들에게 이해를 구하여 학생들에게 전액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그해에 얻은 이익으로 방학을 맞이하면 전국 투어를 시작하였다. 옥수수 농사로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투어, 고구마 농사로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또다시 전국 투어를 한 것이다. 옥수수 농사로 얻은 최초의 수익으로 다녀온 여행지는 백두산 여행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채 목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고 무기력한 농촌의 학생들에게 성취감 이상의 승리감을 맛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10년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여 청년들이 되어 다른 농촌교회들처럼 대학진학과 직업을 찾아 인근 대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맺어진 학생들은 교회를 잊지 않았다. 가까운 군산시나 익산시로 이사를 한 청년들이 있었지만, 불편을 무릅쓰고 학생 때 관계를 맺은 교회가 그리워 주일 예배를 위해 계속 방문하였고,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먼 지역으로 간 청년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 그리고 지역에 남게 된 청년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하며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의 학생들이 이제 의젓한 청장년들이 되어 채 목사는 물론이요, 교회에도 큰 힘이 되었고, 교회 전체 연령을 크게 낮추어 농촌교회이지만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4) 현재의 금암교회

지금도 여전히 옥수수 농사뿐만 아니라 고구마, 양파, 배추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2021년 3월에는 지역 로컬푸드 사업장도 개소하여 선교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사역에는 양성된 청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농사와 복지시설들을 운영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교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특별히 그때의 학생들이 청장년으로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교인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직장 활동을 통한 헌금으로 재정 수익도 증가하면서 현재 15여 명의 청년들을 포함한 60명의 출석 교인과 연 6,500만 원의 재정 수입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온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부지를 새로 구매하여 새 교회 건물을 지난 2019년 건축, 은혜와 소망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때에도 기존의 장년들보다는 양육된 청장년들이 적지 않은 액수의 헌금과 개인 월급을 담보로 대출받아 헌금했던 금액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였다.

2. 율곡교회¹³⁰

1) 율곡교회의 개요

율곡교회가 위치한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지역 역시 대부분의 농가들이 기울어가는 경제 사정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농촌이었다. 이때 1984년에 여태권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여태권 목사는 교회 제직들과 함께 ‘뿌리회’를 조직하여 직접 농사를 하므로 농촌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후 전라북도 최초의 영농조합법인인 ‘완주한우 영농조합’을 조직하여 사육 농가들이 힘을 합하여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져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였고 유기농업을 통해 생명 농업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2) 율곡교회와 지역 상황

1984년 율곡교회의 여태권 목사가 부임하였을 때 고산 지역은 대부분의 농가가 10마지기 안팎의 농사로 한해 몇백만 원을 수익을 올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동네였다. 2020년 8월 율곡교회가 위치한 고산면은 총 세대수 2,331가구, 총 4,745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체 69.58km² 면적에 밭 2.82km², 논 6.98km², 임야 51.22km²로서 임야가 전체 면적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¹³¹ 이런 지역 환경으로 말미암아 여 목사는 유기 축산 농업을 시작했고, 더불어 유기농법을 병행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유기 농업을 하려면 당연히 퇴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축사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유기농으로 얻은 사료는 자연히 축사로 공급되기에 이것을 순환농법이라 한다. 이렇게 유기 축산, 유기 농업의 순환농법을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율곡교회에서 먼저 실시한 것이다. 현재 교회는 교육부가 50여 명, 장년부가 150명의 농촌교회로서 적지 않은 교인 수를 갖고 있다.

130) 율곡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2020년 8월 현 담임목사인 최용기 목사와 직접 인터뷰하여 작성하였다.

131) [온라인 자료] 완주군청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5004003000, 2020년 9월 15일 접속.

3) 유기농 축사와 유기농법으로 지역민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교회¹³²

여태권 목사는 1984년 1월 어머니와 아내, 두 어린 아들 해서 다섯 식구와 함께 부임하게 되었다. 처음 5~6년 동안 반군사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전통적인 목회보다는 사회적 참여에 신경을 기울였다.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는 1990년 이후, 교회에 성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고민 가운데 유기농법으로 관심을 두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다. 데모하는 목사에서 농사짓는 목사로 변신한 것이다.

그때 당시 농약과 비료를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초자 농사꾼인 목사의 말에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유기 농업으로 인증받으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게 되었다. 시작 초기 ‘아스팔트 농사는 더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 아래 주민들의 소득원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완주군농민회장을 맡았던 김영만 장로를 비롯하여 교우들과 함께 ‘뿌리회’를 조직하여 전국을 다니며 조사 결과 우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산지역이 논밭이 적고 산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료 배합 비율을 몰라 송아지가 죽어 나가기도 하고 기형 소가 태어나는 등 시행착오는 몇 년간 이어졌다. 유기농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부정적이었기 벼가 조금만 이상해도 유기농 탓으로 치부하며 항의가 심하였다. 한 해에는 냉해로 벼가 죽자 유기농 탓이라며 교회로 몰려와서 소란이 일어나자 교인들이 돈을 모아 배상해주기도 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목사가 설교와 기도만 잘하면 되지 엉뚱한 일을 벌인다’며 장로들에게 목사를 쫓아내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부정적인 기류 속에서 여 목사는 “내가 해보지 않고는 농민에게 권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모든 일을 몸소 먼저 실천하며 지역 농민들을 이끌면서, 예배 모임 때에는 유기농에 대한 결단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믿음을 갖고 밀어붙였다.

결론은 여 목사가 옳았다. 2006년 당시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유기농업 지역이 되었고, 유기농 축사와 유기농법을 바탕으로 한 완주한우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은 연간 5천만 원 가까운 소득을

132) 본 내용은 최용기 목사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한경호 역음, '여태권 목사의 울곡교회 이야기' 「생명의 영성이 약동하는 농촌 목회 현장 이야기」,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8), 313-320., 지역농업연구원, '농민만의 농업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농업을 꿈꾸며' 「씨오쟁이」, 2011. 4월 통권12호, 27-30.를 함께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올리게 되면서 ‘부자 동네’라는 소문으로 귀농자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바뀌었다.

4) 사회복지 사업으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여태권 목사는 지역민들과 시작한 농업 활동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바탕으로 교회가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근거를 갖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였다. 또한 2006년 2월 율곡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앞두고 있기도 하여서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완주 가정 봉사 과건센터와 고산지역 아동센터를 2000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고산 지역 아동센터는 조손 가정 아이들,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용하였고, 완주 가정 봉사 과건센터는 지역 사회의 특성상 노인 복지에 중점을 둔 것이다.

사회복지를 시작하면서 농촌은 도시와 달리 지역의 특성상 지역민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어려웠다. 지역이 넓고 군소 주거 형태 등으로 차량과 교통편이 크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이 대부분 노인들인 상황에서 그들은 거의 집 안서에만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율곡교회에서는 맞춤형 이동 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이동사회복지관’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동사회복지관’은 완주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차량 내부에 설치된 저주파 치료기, 황토 찜질, 쑥 찜질 등을 이용한 물리 치료 및 노인 건강 체조를 하는 건강 증진 서비스, 무료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노래방 운영, 치매 예방 프로그램, 노인들의 여가 활용과 지역문화 체험활동을 포함한 탐방 활동 등의 사회문화 서비스, 그리고 지역 사회 연계 및 특별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농촌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섬길 수 있는 젊은 봉사자는 둘째치고 당장 재정적 지원이 열악하다. 먼저 주민들의 복지, 문화 서비스 지원, 홀몸 어르신 80명의 재가 복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위하여 연간 3천만 원가량을 사용했다. 교회 재정의 30% 규모였다. 자체 모금을 위해 교회 재정에서 1천 만원, 영농조합에서 30마리 소를 키워 1천 만원, 5,000평 농장수익에서 1천 만원 등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율곡교회는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로 노인복지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5) 현재의 율곡교회

1984년 부임한 여태권 목사는 31년간 교회와 지역 사회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이끌고 은퇴하게 되었고 후임으로 2015년 3월 최용기 목사가 부임하여 이어가고 있다. 2017년도에는 42년 만에 새로이 교회 건축을 하였고 교회 입구에 “씨앗의 주인은 농민”이라는 글 판이 있다. 현 최용기 목사는 감당해야 할 150여 명 장년들이 있기에 그동안 교인들이 부족하게 느꼈던 목회 양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면서 변함없이 유치원 운영, 고산지역 아동센터,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노인 일자리 작업장인 완주시니어클럽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끌고 있다. 이 또한 앞서 여태권 목사의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선교로 뿌린 씨앗의 소중한 열매이다.

3. 좌포교회¹³³

1) 좌포교회의 개요

좌포교회가 위치한 전북 진안군 성수면 지역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 해 있다. 1934년에 설립된 좌포교회는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의 교회였지만 주변에 도로 확장에 따른 4km 떨어진 타지로 이동하면서 마을은 급속도로 쇠락하게 되었고 교회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이때 2005년 한명재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고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결하는 경제공동체가 돼야 마을이 살아난다.”¹³⁴라는 신념 아래 귀농 귀촌자들이 터를 내릴 수 있도록 협업농장을 운영하였고 절임 배추판매와 약초가공 발효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교회를 성장시켰다.

2) 좌포교회와 지역 상황

2005년 25대 담임목사로 한명재 목사가 부임하였을 때 교인이 고작 12명이었을 정도로 아주 힘든

133) 좌포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2020년 8월 현 담임목사인 강서구 목사와 직접 인터뷰하여 작성하였다.

134) 국민일보 우성규,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결하는 경제공동체 돼야”, [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9234&code=231111111&cp=nv>, 2021년 3월 11일 접속.

상황이었다. 교회 설립 1934년부터 한명재 목사 부임 71년 동안 24명의 목회자가 교체되었기에 ‘좌포교회에 목회자가 오면 죽어 나가는 곳’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열악한 교회였다.

2021년 2월 좌포교회가 위치한 성수면은 총 세대 1,007가구, 총 1,80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전체 면적이 71km² 가운데 논 4km², 밭 6km²이지만 임야가 53km²로써 임야가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¹³⁵

농지가 많아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임야 지역이다 보니 더욱더 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 심각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귀농 귀촌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목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념 아래 귀농 귀촌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교회가 능력이 되는대로 주변 토지 및 폐가를 구매하여 현재는 4천 평 정도의 논과 밭, 그리고 임야 1만 2천 평을 확보하여 협업농장을 이루고 있으며 집도 6가구가 독립된 공동 주택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다.

2020년 8월 현재 재적이 83명의 교회로 성장하였지만, 코로나 팬더믹(pandemic)으로 말미암아 장년부 예배 출석이 40여 명 정도인 상황이다. 그런데 팬더믹 이전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25명이나 교회학교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재적 교인 가운데 1/3 정도가 동네 주민이고, 나머지 2/3는 1시간 거리의 전주시와 15분 거리의 진안군에서 젊은 교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3)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제공동체로 함께 하는 좌포교회¹³⁶

2005년 5월 한명재 목사가 부임 당시 앞서 71년 동안 24명의 목사가 교체되었다. 1~2년 이내에 교체된 목회자가 14명이나 될 정도로 좌포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의 교회였다. 12명의 교인과

135) [온라인 자료] 진안군청 홈페이지 https://www.jinan.go.kr/stats/synap/skin/doc.html?fn=158587556007368.xlsx&rs=/upload_data/Synap/BBS_0000114/&cpath=%2Fstats, 2021년 3월 11일 접속.

136) 월간중앙 임현진 공석기, [온라인 자료]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8287>, 2021년 3월 11일 접속.,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열악한 농촌교회 환경 속에서 한 목사는 교회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 품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결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신념 아래 여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선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 주변 지역의 빈집을 개조하여 주거 시설을 확보하였고, 함께 논과 밭, 임야 등을 빌려 젊은 층을 이주토록 하여 밥상 지기 협동조합을 조직 협업농장을 운영하였다. 겨울철이 가까이 오면 절임 배추 사업과 약초가공 발효를 통하여 수익 사업을 실시하였고 청년혁신센터도 함께 유치하였다.

농촌 경제공동체를 이루고자 한 목사는 2009년도에는 ‘작목반’을 만들었다. 귀농 귀촌한 사람에게 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농사 부지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계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불안해하여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작목반을 만들어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배추를 심었다. 더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배추 포기로 판매하는 것보다 절인 배추가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족한 배추는 고정 가격제로 구매해서라도 공동으로 절인 배추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물론 판로 개척을 위하여 도심에 있는 교회들과 자매결연 형태로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였다.

때로는 배추의 시중 가격이 20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균 700원의 고정가격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주변 배추 농가들에게 안정감과 수익을 보장해 줌으로 지속적으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협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것도 큰 소득이었다. 원가를 참작해서 절인 배추는 평균 2,100원에 팔았고 포기당 평균 800원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금을 얻었다. 이로 인한 총 수익금은 작업에 참여한 사람 n분의 1로 나누어 분배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한 배추 작목반 사업으로 지역 주민 교인은 물론 귀농 귀촌인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교회 경제뿐만 아니라 귀농인과 마을 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협동과정에서 갈등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한 예로 더 젊은 작업자는 나이가 많은 노년의 작업자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더 많은 일을 일하는데 왜 보상은 똑같이 받는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모두가 만족하는 협

동농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갈등이었다. 생산량에 맞는 보상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목사는 처음에는 생산량이 큰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서로 협동하며 능률이 더 오르게 되고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고 젊은 작업자들을 설득했다.

한 목사는 분명 숙련도나 노동력의 차이로 처음에는 손해로 여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협력을 통한 능률을 생각해야 하며 또 다른 부분에서 장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도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생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 10명 중에서 5명 만이 협동조합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협동과 상생이라는 가치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귀농인이 함께 협동의 경험이 쌓이면서 적어도 1인당 160만 원, 부부가 참여하면 32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협동이라는 소중한 가치로써 이룬 결과이다.

배추 작목반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천이백 만원이 소요된 배추 작목반 작업 공간에 겨울에는 약초 가공반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경제 수익을 도출하였다. 협동 작업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파생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단순히 교회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약초를 공급받고 군으로부터 기계를 지원받아 소규모로 시작하였지만, 마을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협동의 가치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경험이 쌓이고 파생 효과로 마을기업으로 커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 목사의 지도력 아래, 마을 주민과 귀농인 사이의 협동 정신과 상생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었다. 그들로 말미암아 협업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형성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동기와 동력이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교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회가 주도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05년 당시 12명의 교인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어린이 포함 83명의 재적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표 4> 좌포교회 성도수 변화¹³⁷⁾

구분		2005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	비고
인원	장년	12	28	41	61	58	
	어린이	3	10	15	19	25	
연령	65세 이상	5	8	28	16	13	
	65세 미만	10	30	27	64	70	
계		15	38	55	80	83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좌포교회는 2005년 성도 수가 15명에서 2020년 현재 83명이 되었다. 농촌교회에서 이런 성장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면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어린이가 교인들 가운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재직 교인 가운데 1/3 정도가 동네 주민이 되고 나머지 2/3가 1시간 거리의 전주시와 15분 거리의 진안읍에서 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가족 교인이 출석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온다는 것이다.

4) 현재의 좌포교회

2005년에 부임한 한명재 목사는 14년간 교회와 지역 사회를 경제 공동체를 이끌다가 2019년 4월 진안군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진안협동조합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사임하고 현재 후임으로 강서구 목사가 부임하여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교회가 여력이 되는대로 주택과 농지, 그리고 임야를 구매하고자 힘쓰고 있다. 귀농 귀촌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6가구가 독립된 건물로 공동 주택을 지어서 협동 농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교회에 나오라는 강요 없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37) 2020년 8월 인터뷰 당시 현 담임목사인 강서구 목사가 제시하여 준 자료이다.

임야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적 상황이 산촌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하여 인삼 재배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수목장림(樹木葬林)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결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위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문힐 자리는 좌포교회이며 이곳 좌포리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 경제 공동체에서의 이탈을 줄이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결점을 만들 계획이다.

예배 모임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후, 이어 다 함께 식사 공동체를 나눈 다음, 성경 공부 위주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오후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교회에서 온전히 생활하는 가족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평일에는 강 목사도 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새벽기도회 모임과 수요예배, 그리고 구역예배는 갖지 않는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힘들어하는 현실에서 좌포교회는 귀농 귀촌자들과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지역 발전과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농촌교회에게 대안을 제공해 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4. 갈계교회¹³⁸

1) 갈계교회의 개요

갈계교회는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지리산 자락이 펼쳐지는 곳에 있다. 1928년에 설립된 갈계교회는 1956년 교회 분열의 아픔이 있었지만 면사무소 소재 마을이라는 이점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300가구에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살았기에 나름대로 교회를 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5년 면사무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후 다른 요인들과 함께 마을이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하여 교회 유지도 힘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2005년 현 강기원 목사가 부임하게 된다. 부임 당시 최고 과제는 교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밭 300평을 얻어 콩 농사를 시작으로 청국장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년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기타 여러 사업을 펼치면서

138) 갈계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2020년 8월 강기원 목사와 직접 인터뷰하여 작성하였다.

생존을 걱정하던 교회가 2011년 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새 단장까지 이루어 내었다. 현재는 1,000평의 땅에 사과 농사와 논 900평에 논농사, 그리고 도시교회와 자매결연으로 감자-배추 농사와 김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갈계교회와 지역 상황

2005년 담임목사로 강기원 목사가 부임하였을 때 교인이 17명으로 대부분 노인이었기에 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이기에 강 목사 부임 이전 3~4년마다 담임목사가 교체되는 아픔이 계속 순환되고 있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갈계교회가 아주 힘든 상황은 아니었다.

1928년에 설립된 갈계교회는 면사무소 소재지 마을에 위치해 있어 주변 상황이 열악하지는 않았다. 1970년 초반까지 300가구에 1,500명 정도 살았으니 교인 수도 적절히 유지 될 수 있었다. 도중에 문제가 있었다면 1956년 교회 분열이 있어 잠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잘 견디어 내었다.

하지만 1985년 면사무소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달라지게 된다. 여느 농촌 지역처럼 이곳도 인구이동과 출산율 저하로 마을이 급격히 쇠락의 길을 맞이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강 목사가 부임하였을 때 교회 최대의 과제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8년 갈계교회가 속한 남원시 아영면은 총 세대 1,116세대, 1,985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전체 면적이 35km² 가운데 논 8km², 밭 3km²이며 임야가 24km²로써 임야가 전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임야가 많은 지역이다.¹³⁹

강 목사는 교회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국장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6년 밭 300평을 얻어 직접 콩 농사를 짓고 수확한 콩으로 발효 시켜 판매한 것이다. 당시 강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교회가 자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도 손에 흙을 묻혀야 한다.”¹⁴⁰라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직접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139) [온라인 자료] 남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namwon.go.kr/board/list.do?boardId=BBS_0000121&menuCd=DOM_000000204014003002&contentsSid=606&path=, 2021년 3월 12일 접속.

140) 김세진, 윤희윤, 백정훈, “땅과 더불어 커져가는 사랑 열매”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2012), 125.

현재 마을에는 약 70가구 정도만이 남아 있는 이 작은 마을에 1956년에 분열되어 나간 교회와 두 개의 교회가 함께 있어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 사실을 두 교회가 잘 인식하고 있기에 당장은 두 교회가 통합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다시 하나가 이를 것을 기대하며 지역 기독교연합회에 두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작은 부분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3) 청국장으로 시작하여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룬 교회¹⁴¹

갈계교회가 위치한 전북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는 험준한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 전쟁 때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공산당 비정규군, 소위 빨치산조차도 들어오지 않았던 오지이다. 남한 빨치산 총수며 남부군 총사령관이었던 이현상이 1953년 9월에 사살될 때까지 지리산 일대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아야 했다. 빨치산 대원들이 생존을 위해 식량 등을 약탈하기 위해 지리산 주변 마을에 빈번히 나타나곤 했었는데 1928년에 설립된 갈계교회와 마을은 그런 와중에도 멀쩡하였다. 희생자가 속출했던 당시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이 동네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두메산골 오지라는 이야기이다.

갈계교회를 담고 있는 마을 뒤쪽엔 백두대간 시리봉이 멀리 보이고 오른쪽 청룡산, 왼쪽 마갑산이 솟아있다. 그사이 아늑하게 자리 잡은 갈계리, 하천을 가운데 두고 논이 펼쳐져 있다. 30여 가구가 용기종기 모여있는 조그마한 마을, 하지만 십자가 종탑 2개가 100m 정도 거리에 나란히 서 있다. 갈계교회와 갈계서부교회이다. 둘 다 장로교회로 1953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분리된 여파가 이런 두메산골 시골에도 미친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분립되어도 서로 잘될 것이라 여겼다. 왜냐하면, 마을에 면사무소가 있어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변 300가구에 1,5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1985년 면사무소가 이동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농촌이 그러하듯이 갈계리도 타지역으로 인구는 유출되면서 출산율은 떨어지기

141) 국민일보 전정희, “국민일보선정 아름다운 교회길 (15) 전북 남원 갈계교회”, [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993270>, 2021년 3월 12일 접속., 을 참조하여 기록하였다.

시작하였다. 자연스럽게 갈계교회도 교인 수가 줄어들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005년 강기원 목사가 부임하게 된다. 경북 안동 출신인 그는, 갈계교회 부임을 놓고 갈등했다. 하지만 기도 끝에 ‘양무리를 버리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고작 17명의 교인, 그것도 대부분 노인이었다. 인구의 유입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마을 안엔 분리된 교회로 양쪽 간의 냉기가 여전히 흐르는 가운데 공동체의 해체는 끝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강 목사는 먼저 교회 생존을 고민해야 했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자고 교인들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목사가 설교, 기도, 심방에 열심이면 된다. 목사님 손에 흙 묻게 할 수 없다’며 교인의 반발이 심하였다. 강 목사가 그냥 전통적인 목사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끈질기게 교인들을 설득했다. 기도 가운데 지리산 오지 교회로 부임하며 다짐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목사들이 농촌교회를 여건이 더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삼거나 목회 경험을 쌓기 위한 통과 의례쯤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며 강 목사는 자신의 안정을 좇아 양무리를 버리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지속적으로 몇 개월간 설득한 끝에 겨우 청국장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강 목사의 뜻에 동조한 한 권사의 후원으로 밭 300평을 제공 받아 2006년 콩 농사가 시작된 것이다. 농사일에 문외한이었던 강 목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콩밭을 갈아엎는 일부터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경운기와 트랙터조차 들어갈 수 없는 밭이었다. 어쩔 수 없이 돌작 밭을 갈기 위해 소 쟁기를 동원했다. 디지털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반대했던 교인들이 강 목사의 열정에 마음이 변하여 힘을 보태어 주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밭을 갈고, 콩을 심었다.

감이 익는 가을이 오고, 논밭의 추수가 끝나게 되면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 교인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했다. 협력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은 이름이 ‘지리산 갈계골 청국장’ 이었다. 1년 중 늦가을에서 겨울까지만 생산한다. 연중 생산 판매하지 않고 이때만 판매하는 이유는 첫째, 겨울이 청국장의 수요가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이다. 후덥지근한 여름에 청국장 수요는

많지 않다. 둘째, 강 목사의 청국장은 옛날 방식 그대로 담기에 사람의 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콩을 추수하여 깨끗이 씻는 것부터 시작하여 삶고, 식힌다. 그리고 숙성하고 방아에 찼기까지 꼬박 5~6일 정도 걸린다.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전부 사람의 손으로 작업을 하니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농사일이 한참 진행 되는 봄, 여름, 가을에 교인들에게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 참여하라고 할 수는 없기에 농번기를 지나서 11월 초에 생산이 시작된다.

그런데 청국장을 만들자면 차량이 필요하였다. 그 혼한 교회 소유 승합차는 없었고 강 목사가 몰던 작은 경차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강 목사는 경차를 팔아 200~300만 원짜리 중고 봉고차를 사려 하였다. 당시 교회와 교인 사정으론 무모한 계획이나 다름이 없었다. 제직회를 열거 중고차 구매를 위한 특별 현금을 의결하였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다. 그만큼 교인들은 고령화가 이루어졌고 수입도 농사일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강 목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85세의 연로한 권사가 찾아와 허리춤 치마 속에서 ‘차 사는 데 요긴하게 쓰라’며 띠지를 건네며 갔다. 현금 100만 원이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가 흐르자 차량 현금은 4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결국 600만 원이 되었다. 강 목사의 경차 70만 원까지 합하여 기대 이상의 승합차를 구매한 것이다. 그 차로 자립교회를 세우기 위해 청국장과 절임 배추 판매를 위해 달렸고, 농작물 수확 철이면 짐차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생산된 청국장이 한 해 수입이 450만 원으로 출석 교인 15명 수준의 시골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의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로 교인들은 교회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얻어 교인들의 주도로 ‘갈계골 감식초’ 생산을 시작했다. 마을에 다량의 감나무가 있어 감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장철에는 배추겉절이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도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밭농사를 통하여 배추를 내다 팔았지만, 배추겉절이나 절임 배추가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을 통하여 매년 천만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모아 놓은 재정으로 2011년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강 목사 부임 후 7년째 이룬 놀라운 결과이다.

4) 현재의 갈계교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소천한 권사의 후원으로 천 평의 밭을 임대받아 사과 농사를, 논 구백 평에서 쌀농사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교회와의 자매결연으로 감자 캐기, 김장 배추 심기, 김장 함께 담그기를 하고 있고 매년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연합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협력, 그리고 친교를 도모하고 있다. 강 목사는 “청국장·감식초 사업을 통해 교인들이 ‘농촌에도 길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과 교회 일을 하며 단합하는 공동체 문화를 경험한 것이 큰 이익”¹⁴²이라고 한다. 사업을 통해 모은 재정으로 먼저 교회 리모델링하였고, 이제 마을을 가꾸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돌담 쌓기와 대나무 숲을 조성하여 마을 문화제를 가꾸 도시인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도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지리산 자락의 자연 속에서 휴식과 쉼을 얻어 좋고, 마을 사람들은 활기찬 거리 모습과 도농(都農) 직거래의 길을 열어 농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발전을 이루는 데 교회가 앞장서서 선도함으로써 선교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5. 소결론

사례로 제시된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은 첫째, 목회자가 먼저 제안하고 목회자의 주도하에 실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농촌교회가 농업 활동으로 농촌 선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농촌 선교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정립과 목회적 열정, 그리고 해당 농촌 교회에 세워진 소명감, 또한 비전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공유하며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 부임 초기에 농업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농촌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목회자들은 대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는 2~3년 안에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농촌교회를 여건 좋은 도시교회의 교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거나 대부분의

142) 김세진, 윤희운, 백정훈, “땅과 더불어 커져가는 사랑 열매”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2012), 126.

농촌교회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선택이라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고령화된 농촌에서 텅텅 비어가는 농촌교회에서 더는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젊음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도시교회로 진출하여 소신껏 목회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중요한 점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농촌교회를 떠나고 자주 교체되다 보면 농촌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많은 교인들은 어떤 목회자가 부임하더라도 쉽게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양(교인)을 버리고 갔다’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골 정서가 담긴 교인들의 정을 외면할 수 없어 그냥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면서 목회적인 삶에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목회자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겠으나 교회는 점차 시간과 함께 쇠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농촌공동체를 꿈꾸며 농민들과 여러 활동을 통하여 농촌교회의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다. 사례로 제시된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것은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농촌선교 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농촌교회로 부임 전 분명한 목회철학과 농촌선교의 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두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펼쳤지만 단 한 번도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임 시 대부분 교인 수가 적고, 재정이 열악하며 특히 이전의 담임목사들이 자주 교체되는 교회들이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 활로를 찾은 것이 농업 활동이었던 것이다. 혹자는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농업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경제적 문제였다면 이전의 목회자들처럼 기회를 보며 2~3년 후에 여건 좋은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비록 경제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모두들 힘들고 어렵다고 가버리는 교회를 지키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힘든 농업 활동을 펼친 저변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을 향한 선교적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농업 활동을 했다고 쉽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 판단된다.

좌포교회 강서구 목사는 “귀농인들을 위한 주거 공동체를 마련 무료로 집을 지원해 주고 함께 협

업농장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¹⁴³라고 했다. 사례로 제시된 교회의 목회자들은 농업 활동을 하면서 농촌 주민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암교회의 경우 농업 활동을 하였던 학생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든든한 청년 신앙 일꾼이 되었고, 율곡교회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면서 교회는 확보된 재정으로 여러 복지 시설을 통해 선교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좌포교회는 귀농인들을 후원하여 정착시키며 주민들과 경제공동체를 이루었고, 갈계교회는 비록 교인 수는 증가하지 못했지만, 도시인들이 찾아오는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꿈을 품은 교회가 되었다. 모두가 도시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흔한 ‘알파’, ‘새생명전도축제’, ‘예수사랑축제’ 등과 같은 전도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마을로 나가 전도지 하나 돌리지 않고 단지 농업 활동 하나만으로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점은 한국 농촌교회의 목회자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사례로 제시된 교회의 교인들이 농촌교회로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 응답한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이면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어떤 선교적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43) 2020년 8월 28일(금) 좌포교회 강서구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용하였다.

제 4 장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에 관한 설문 연구

1.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농촌교회가 농업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지역 선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농업 활동이란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도시에 위치한 교회와는 달리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촌교회는 선교적 영향력을 발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으로 지역 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를 찾아 설문 조사함으로써 선교적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교인들의 만족도와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신앙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을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부분과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본 설문은 연구자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이면서 전라북도에 위치한 335개 교회¹⁴⁴들 가운데서 농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5년 이상 지속해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완주군 율곡교회, 진안군 좌포교회, 남원시 갈계교회, 임실군 방동교회, 군산시 금암교회 등 다섯 개 교회가 해당하였다. 이들 교회는 대부분 농촌교회가 그러하듯이 출석 교인들

144) [온라인 자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홈페이지 <http://www.prok.org/>, 2021 3월 15일 접속., 2021년 3월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이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는 전북노회 70개교회, 전북동노회 115개 교회, 익산노회 70개 교회, 군산노회 80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평균 50명 이하의 교회였으며 특히 금번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말미암아 출석 교인의 감소와 비대면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 설문 응답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설문을 요청한 다섯 개의 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가 응답하였으나, COVID-19 환경으로 인한 교회 출석률이 낮음에 따라 응답률 또한 저조하여 응답한 결과치를 분석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으로 동 연구의 대표성을 갖는 금암교회 사례로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농촌교회란 농촌에 위치하여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신자들이 과반수 이상 모이는 교회를 말하며, 행정적인 구분으로는 면(面) 단위 이하에 속한 교회이다.¹⁴⁵ 설문 연구의 표본으로 삼은 금암교회는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해 있으며 군산시에서 가장 먼 변두리에 있으면서 농지가 반 이상(55%)이나 차지하는 농촌 지역이다.¹⁴⁶ 특별히 금암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25여 가구 정도의 소규모 군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교회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서 농업 활동을 통하여 농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이다.

3) 설문 절차와 방법

연구자는 설문에 앞서 리버티 대학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고(IRB 승인번호: 4067.030620), 검정 된 설문 동의서를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킨 가운데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약 15분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인쇄된 설문지에 무기명으로 기술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45)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31.

146) [온라인 자료]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main/m398>, 2020년 8월 20일 접속.

4) 설문 구성

설문은 총 32개 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설문 내용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 분류하였으며, 설문 참가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1~7번, 교회의 일반적 특징은 8~10번, 농업 활동의 필요성 인식은 11~16번,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은 17~32번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형식은 모든 문항이 5지 혹은 6지선다형으로 해당 사항에 자기 생각을 기입하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다.

5)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주요한 변인이 되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과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에 사용되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 이면 수용할 수 있음, 0.7 이상 이면 바람직함, 0.8 이상 이면 높음, 0.9 이상 이면 매우 높음으로 판단한다. 결과 값은 다음과 같이 전체 문항이 0.7 이상으로 나와 내적 일관성이 있다.

<표 5>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 수	Cronbach's α	문항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	0.723	3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	0.891	8

(2)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과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의 요인분석을 하였다. 농업 활동 필요성의 요인분석은 총 3문항으로써 각 문항이 하나의 성분만 추출되어 회전되지 않았다.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의 요인분석은 먼저 주성분 분석으로 고유향

을 1로 놓고 실행하였으며, 베리맥스회전을 통해 산출하였다.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MO (Kaiser-Meyer-Olkin)는 0.7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바 0.741로 나와 적합한 표본으로 판단되었다. 구형성검정에 있어서는 카이제곱이 30.689로 $p < .001$ 로 유의확률이 나타나 통계적으로 변수들이 상호독립적이며 변수 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추출된 요인은 2가지로 제1 요인은 57.731%, 제2 요인은 16.821%를 설명함으로써 전체 74.553%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유치는 제1 요인이 4.619, 제2 요인이 1.346으로 나타나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만 추출되었다. 또한 공통성의 추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각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보통 0.5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8개 항목 모두가 0.547 이상으로 나와 바람직하다.

<표 6>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의 요인분석 결과

항 목	요 인	
	1	2
교회의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인식	.732	.104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교회성장 유익정도	.762	.22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지역사회 유익정도	.861	.33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지역사회 사랑정도	.830	.316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회에 대한 호감도	.824	.119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교회사랑 정도	.477	.773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통한 신앙성장 정도	.229	.905
농업 활동의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 정도	.088	.864
Elgenvalue	3.513	2.451
공통변량(%)	43.918	30.634
누적변량(%)	43.918	74.553
KMO=.741, Bartlett's $\chi^2=30.689$		

2. 설문 결과

본 연구는 농업 활동이 교회의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IBM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진행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영역과 교회의 일반특징, 농업 활동의 필요성 인식과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간과 비율변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두 집단은 독립표본 검정인 T-test 와 세 집단 이상은 일원 배치 분산인 ANOVA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의 연관성을 검증해보기 위해 명목과 서열변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교차분석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활동기반 영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변수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도 알아보았다.

<표 7> 인구 사회학적 영역

사 례 수		전체	백분율
		46	100%
성 별	남성	18	39.1%
	여성	28	60.9%
	소계	46	100%
나이	21-30 세	10	21.7%
	31-40 세	0	0%
	41-50 세	9	19.6%
	51-60 세	8	17.4
	61-70 세	10	21.7%
	71 세 이상	9	19.6%
	소계	46	100%

모태신앙여부	예	15	32.6%
	아니오	31	67.4%
	소계	46	100%
교회 출석 기간	5년 이하	6	13%
	6-10년	5	10.9%
	11-20년	12	26.1%
	21-30년	12	26.1%
	31년 이상	11	23.9%
	소계	46	100%
직분	학생, 청년	9	19.6
	평신도	3	6.5
	집사	24	52.2
	권사, 안수집사	7	15.2
	장로	2	4.3
	목사	1	2.2
	소계	46	100%

설문 결과를 보게 되면 참가자의 39.1%(18명)는 남성, 60.9%(28명)는 여성이다. 현재 금암교회의 장년 등록 교인의 65% 이상이 여성 교인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남녀비율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참가자 중 20대와 60대가 동일하게 21.7%(20명)로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참가자가 많은 것은 금암교회만의 특별한 상황으로 과거 10년 이상 담임목사의 집중적인 학생-청년에 대한 사역의 결과로 맺은 열매이다. 40대 19.6%(9명), 50대 17.4%(8명), 71세 이상 19.6%(9명)로서 고령대의 참여가 있었지만 30대 연령층이 전혀 없다는 점은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별히 60대 이상의 참여자가 41.3%(19명)가 된다는 점에서 노령층이 많은 농촌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모태 신앙인은 22.6%(15명)였고, 교회를 출석한 지 5년 이하 13%(6명), 6~10년 10.9%(5명), 11~20년과 21~30년은 동일하게 26.1%(12명), 31년 이상 23.9%(11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암교회는 설립 88년이 넘는 전통이 깊은 교회이기에 설문에 참여한 교인들 가운데 76.1%(35명)가 신앙의 연수가 11년 이상이 되는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참가자의 52.2%(24명)가 집사의 직분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학생·청년 19.6%(9명), 권사 및 안수집사 15.2%(7명), 평신도 6.5%(3), 장로 4.3%(2명), 목사 2.2%(1명)를 차지하였다.

<표 8> 농촌에 위치한 교회로서 중요 사역 인식

항 목	인 원	백분율
예배사역	32	69.6%
기도사역	0	0%
성경공부(제자훈련)	5	10.9%
친교	6	13%
선교(전도)	3	6.5%
합 계	46	100.0%

금암교회는 전형적인 농촌에 위치한 교회이며 교인들 또한 대부분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은 교회의 어떤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한 질문에 예배사역이 69.6%(32명)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다. 이는 비록 교회가 농촌에 위치해 있어 적은 교인 수고 또한 감소가 예상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변함없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친교가 13%(6명), 성경공부(제자훈련) 10.9%(5명), 선교(전도) 6.5%(3명) 마지막으로 기도사역이라고 답변한 교인은 없었다. 특이한 점은 성경공부라는 응답이 세 번째였다는 점이다. 비록 농촌교회에 위치해 있지만 교인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교회로서 교세가 감소할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역에 선교(전도)가 6.5%(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금암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표 9> 교인이 생각하는 금암교회의 유형

항 목	인 원	백분율
말씀과 기도 중심	24	52.2%
예배 중심	19	41.3%
소그룹 중심	0	0%
프로그램 중심	0	0%
선교와 전도 중심	3	6.5%
합 계	46	100.0%

교인들이 생각하는 금암교회의 유형은 말씀과 기도 중심이라는 응답이 52.2%(24명), 그리고 예배 중심이라는 응답이 41.3%(19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그룹과 프로그램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은 없었다. 교인 수도 적고 대부분 연로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와 영성 활동 외에 다채로운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암교회가 선교와 전도 중심의 교회라는 응답이 6.5%(3명)이라고 나타난 것은 비록 낮은 수치이지만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적 활동을 펼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된다.

<표 10> 바라는 금암교회의 유형

항 목	인 원	백분율
말씀과 기도 중심	27	58.7%
예배 중심	17	37.0%

소그룹 중심	0	0%
프로그램 중심	0	0%
선교와 전도 중심	2	4.3%
합 계	46	100.0%

그러면 앞으로 바라는 금암교회의 유형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 58.7%(27명), 예배 중심의 교회 37.0%(17명), 선교와 전도 중심의 교회 4.3%(2명) 그리고 소그룹 중심과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는 응답이 없었다. 특이한 점은 지금의 금암교회의 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의 금암교회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나아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항 목	인 원	백분율
기도 부족	10	21.7%
선교(전도)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	15	32.6%
목회리더십 부족	1	2.2%
지역적 특성	17	37%
성경지식 부족	3	6.5%
합 계	46	100.0%

금암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7%(17명)가 지역적 특성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열악한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답변이라 여겨지며, 놀라운 점은 교인이 선교(전도)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6%(15명)이나 나왔다는 점이다. 즉 교인들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두지 않고 교인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타 기도 부족 21.7%(10명), 성경지식 부족 6.5%(3명), 목회리더십 부족 2.2%(1명)이었다.

<표 12> 교회 성장을 위한 선교의 방안으로 농업 활동의 필요성

항 목	인 원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그저 그렇다	0	0%
보통이다	19	41.3%
그렇다	23	50%
매우그렇다	4	8.7%
합 계	46	100.0%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선교의 방안으로 농업 활동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답변은 없었고 긍정적인 답변이 58.7%(27명)이었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라는 답변이 41.3%(19명)로 나타났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도 많이 보였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가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3>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항 목	인 원	백분율
만족하지 않는다	0	0%
그저 그렇다	3	6.5%
보통이다	20	43.5%

만족한다	20	43.5%
매우 만족한다	3	6.5%
합 계	46	100.0%

현재 진행 중인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 50%(23명), 부정적인 답변 3%(3명), 보통이라는 답변 43.5%(20명)로 나타났다. 일단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며 보통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원활하고 효과 있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항 목	인 원	백분율
내가 생각하는 선교(전도)가 아니라서	5	10.9%
교인 수가 늘지 않아서	2	4.3%
재정 지출이 많아서	0	0%
목사님이 고생하니까	2	4.3%
힘들어서	2	4.3%
해당사항 없음	35	76.1%
합 계	46	100.0%

만약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총 11명이 대답하였다. 앞서 <표 13>에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이라고 답변한 20명 가운데에서 8명이 이 질문에서 불만족스럽다며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보통이라고 답변한 내면에는 만족과

불만족이 함께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11명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선교(전도)가 아니라서 5명, 그리고 교인 수가 늘지 않아서, 목사님이 고생하니까, 힘들어서가 각각 2명씩 응답하였다. 적은 응답률이기 때문에 보편화할 순 없겠지만 농업 활동이 선교와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교인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표 1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참여 적극성

항 목	인 원	백분율
전혀 아니다	2	4.3%
그저 그렇다	4	8.7%
보통이다	20	43.5%
그렇다	18	39.1%
매우 그렇다	2	4.3%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에 적극성을 알아보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 43.5%(20명), 부정적인 답변 13%(6명), 보통 43.5%(20명)로 응답하였다. 앞서 <표 13>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 50%(23명), 부정적인 답변 3%(3명), 보통 43.5%(20명)와 상당히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이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이라면 참여에도 적극성을 띠는 사실, 즉 만족도와 참여도가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항 목	인 원	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9	19.6%

힘들어서	4	8.7%
마음이 들지 않아서	1	2.2%
내가 없어도 되니까	1	2.2%
해당사항 없음	31	67.4%
합 계	46	100.0%

만약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9.6%(9명), 힘들어서 8.7%(4명), 마음이 들지 않거나 본인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2.2%(1명)이었다.

<표 17> 다른 교인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항 목	인 원	백분율
참여 의지 부족	24	52.2%
관심 부족	10	21.7%
시간적 여유 부족	8	17.4%
필요성 부족	2	4.3%
믿음 부족	2	4.3%
합 계	46	100.0%

다른 교인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 의지 부족 52.2%(24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관심 부족 21.7%(10명), 시간적 여유 부족 17.4%(8명), 필요성 부족과 믿음 부족은 각각 4.3%(2명)로 답변하였다. 교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더 많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8> 농촌교회로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선호도

항 목	인 원	백분율
좋지 않다	0	0%
그저 그렇다	0	0%
보통이다	12	26.1%
좋다	29	63%
매우 좋다	5	10.9%
합 계	46	100.0%

농촌에 위치한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 정도는 좋은 편이라는 답변 73.9%(34 명)이었고, 좋지 않다는 편은 없었다. 대신 보통이라고 답변 교인이 26.1%(12 명)로써 적지 않은 교인 수를 보이고 있다.

<표 19>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장점

항 목	인 원	백분율
농촌교회 현실에 맞다	17	37%
지역 사람들과 친화적이다	17	37%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된다	0	0%
교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선교(전도) 방법이다	7	15.2%
교회 평판에 좋다	5	10.9%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에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촌교회 현실에 맞다 37%(17명)와 지역 사람들과 친화적이다 37%(17명)로 동일하게 많은 답변이 나왔다. 이것은 농촌에 위치한 교회로서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전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교인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교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선교(전도) 방법이라는 답변이 15.2%(7명)로써 이 또한 농촌교회에 적합한 선교(전도) 방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교회 평판에 좋다 10.9%(5명)이었고,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항목에는 한 사람도 응답이 없었다. 보통 농촌에 위치한 교회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금암교회가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인하여 재정적인 수입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교회 성장 유익 여부

항 목	인 원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그저 그렇다	2	4.3%
보통이다	12	26.1%
그렇다	28	60.9%
매우 그렇다	4	8.7%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 성장에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69.6%(32명), 부정적인 답변이 4.3%(2명)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26.1%(12명)로 나타났다. 앞서 <표 18>에서 농촌에 위치한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선호도 설문에서 좋은 쪽이라는 답변 73.9%(34명), 이었고, 좋지 않다는 쪽은 없었고 보통이라는 답변 26.1%(12명)와 상당히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이것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좋게 생각하는 교인은 교회 성장에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대로 교회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21>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

항 목	인 원	백분율
지역내 교회 평판이 좋아짐	30	65.2%
교회 재정 수입 증가	4	8.7%
교인 수 증가	0	0%
교인들 단합	9	19.6%
선교(전도)의 열정 증가	3	6.5%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지역 내 교회 평판이 좋아졌다는 답변이 65.2%(30명)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비록 교인들의 생각이지만 농촌에 위치한 교회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줄 수 선교 방법이 농업 활동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교인들 단합이 19.6%(9명), 교회 재정 수입 증가 8.7%(4명), 선교(전도)의 열정 증가 6.5%(3명)로 보였고, 교인 수 증가 항목에는 채택이 없었다. 이것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한다고 해서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표 22>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개인 신앙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 정도

항 목	교회 사랑 증가 유무		신앙 성장 유무		선교(전도) 열정 증가 유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0	0%	0	%
그저 그렇다	1	2.2%	1	2.2%	3	6.5%
보통이다	16	34.8%	15	32.6%	12	26.1%
그렇다	25	54.3%	27	58.7%	28	60.9%
매우 그렇다	4	8.7%	3	6.5%	3	6.5%
합 계	46	100.0%	46	100.0%	46	100.0%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신앙이 성장하였는지,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이 커졌는지 각각 설문한 결과 각 응답이 비슷하게 도출되어 하나의 표로 작성하였다. 3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약 65.2%, 부정적인 답변이 약 3.6%, 그리고 보통이 약 31.1%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18>에서 농촌에 위치한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답변과 <표 2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교회 성장 유익 여부에 대한 답변과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선호도, 교회 성장 유익 여부, 교회 사랑 증가 유무, 신앙 성장 유무, 선교(전도) 열정 증가 유무 등의 5 개의 유사한 설문이 모두 비슷한 수치의 답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빈도 분석적으로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 긍정적 답변이 약 65%를 넘는다는 것은 금암교회에 있어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신앙의 변화

항 목	인 원	백분율
말씀을 더 보게 되었다	8	17.4%
기도를 더 하게 되었다	3	6.5%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9	19.6%
친교(봉사)에 더 참여하게 되었다	20	43.5%
교회에 가는 횟수가 증가 되었다	6	13%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신앙의 변화와 관련하여 친교(봉사)에 더 참여하게 되었다가 43.5%(20명)로 다른 항목보다 월등히 많은 교인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농사 활동 자체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성격이다 보니 나타나는 모습이라 판단된다. 이어서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19.6%(9명), 말씀을 더 보게 되었다 17.4%(8명), 교회에 가는 횟수가 증가 되었다 13%(6명), 기도를 더 하게 되었다 6.5%(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항 목	인 원	백분율
기도 약화	0	0%
예배 약화	2	4.3%
봉사할 일이 많아졌다	23	50%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	18	39.1%
목사님의 업무 과다로 목회활동에 지장 된다	3	6.5%
합 계	46	100.0%

반대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은 봉사할 일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50%(23 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사 활동이 다른 사역과 비교하여 시간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활동의 횟수도 많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소수의 사람들이 농업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분명 활동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면서 교대로 하는 방안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 39.1%(18 명)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목사님의 업무 과다로 목회 활동에 지장 된다 6.5%(3 명)였고, 예배 약화 4.3%(2 명), 기도 약화 0%로 응답하여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볼 수 있다.

<표 2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

항 목	지역 사회의 유익 상승 유무		지역 사회를 향한 애착심 상승 유무		지역 주민들의 호감 상승 유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0	0%	0	0%
그저 그렇다	2	4.3%	1	2.2%	1	2.2%
보통이다	17	37%	20	43.5%	14	30.4%
그렇다	24	52.2%	22	47.8%	28	60.9%
매우 그렇다	3	6.5%	3	6.5%	3	6.5%
합 계	46	100.0%	46	100.0%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과 지역 사회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 좋은 유익이 되는지, 교인들이 지역 사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을 주게 되었는지 등 3 개의 질문을 한 개의 표에 담았다.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되고 교인들도 지역 사회를 향한 애착심 높아졌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감을 준다는 응답이 약 55%~65% 정도의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은 2~4%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은 교회와 지역 사회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선교를 위한 활발한 농업 활동을 위해 필요 사항

항 목	인 원	백분율
담임목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8.7%
교회 중직자들의 협조	18	39.1%
기도	2	4.3%
재정적인 지원	1	2.2%
성도들의 참여도	21	45.7%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해 활발한 농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성도들의 참여도 45.7%(21 명), 교회 중직자들의 협조 39.1%(18 명)가 나타나는 반면에 담임목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8.7%(4 명), 재정적인 지원 2.2%(1 명)로 나타남으로 교회 차원보다는 교인들 차원에서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중직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27>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물

항 목	인 원	백분율
목 사	19	41.3%
장 로	14	30.4%

권 사	2	4.3%
집 사	8	17.4%
청 년	3	6.5%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목사 41.3%(19명), 장로 30.4%(14명), 집사 17.4%(8명), 청년 6.5%(3명), 권사 4.3%(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목사, 장로가 70%를 차지하고 있기에 두 직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표 28>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담임목사의 필요 사항

항 목	인 원	백분율
리더십	14	30.4%
농사지식	2	4.3%
선교철학	4	8.7%
교회에 대한 사랑	23	50%
성실함	3	6.5%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담임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교회에 대한 사랑 50%(23명), 리더십 30.4%(14명), 선교 철학 8.7%(4명), 성실함 6.5%(3명), 농사지식 4.3%(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9>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항 목	인 원	백분율
교회사랑	29	63%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	3	6.5%
시간적 여유	1	2.2%
지역민에 대한 사랑	5	10.9%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 인식	8	17.4%
합 계	46	100.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교회사랑 63%(29 명)로 압도적으로 응답이 많았고,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 인식이 17.4%(8 명)를 보였다. 다음 지역민에 대한 사랑 10.9%(5 명),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 6.5%(3 명), 시간적 여유 2.2%(1 명) 순으로 나타났다.

3. 빈도 분석 결과

설문 참가자 중 주요 응답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8~10 명으로 고르게 나왔지만 31~40 세 응답이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특별히 60 대 이상의 참여자가 41.3%(19 명)가 된다는 점에서 노령층이 많은 농촌교회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응답자들 가운데 76.1%(35 명)가 신앙의 연수가 11년 이상이 되는 수준을 보였으며 또한 집사 직분이 52.2%(24 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금암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7%(17 명)가 ‘지역적 특성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그러면서 ‘선교(전도)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32.6%(15 명)이나 나왔다. 교인들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두지 않고 교인들 자신에게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은 없었고 긍정적인 답변이 58.7%(27명)이었으며 보통이라는 답변은 41.3%(19명)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우세하였지만, 보통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다는 것은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가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크게 갖고 있지 않은 교인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만족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50%(23명), 부정적인 응답이 3%(3명)로 긍정적으로 보는 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답변이 43.5%(20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더욱 원활하고 효과 있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에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촌교회 현실에 맞다 37%(17명)와 지역 사람들과 친화적이다 37%(17명)로 동일하게 많은 답변이 나왔다. 그리고 농업 활동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답변도 55~56% 수준이었다. 따라서 농촌에 위치한 교회로서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전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교인들이 인지하고 있고, 더불어 그 효과를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 고령자로 구성된 농촌교회인 금암교회의 교인들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농촌교회의 현실에 맞으며 지역 주민들과도 친화적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집단 간 차이검증(T-test, ANOVA) 결과

본 연구의 각 집단 간 차이의 여부를 알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 직분, 출석 기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태신앙과 연령대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신앙 여부에 있어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교회 성장 유익($t=2.053, p<.05$)과 지역사회가 교회에 대한 호감($t=1.904, p<.1$)을 갖게 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태신앙의 교인들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교회 성장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여기며, 지역사회가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서는 선교 농업 활동이 교회 성장에 유의(F=3.581, p<.05), 지역사회 사랑에 도움(F=2.837, p<.05), 지역사회의 교회에 대해 호감(F=7.128, p<.001)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을 실시한 결과 교회 성장 유의, 지역사회 사랑에 도움, 지역사회의 교회에 대한 호감에서는 61-70대의 연령이 다른 연령보다 더 유의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0> 집단 간 차이검증(T-test, ANOVA)

구 분		교회 성장 유의			지역사회 사랑에 도움			지역사회 교회에 대해 호감		
		M±S.D	F/t	Duncan	M±S.D	F/t	Duncan	M±S.D	F/t	Duncan
모태 신앙	예	4.00 ±.54	2.053* (p=0.047)	-	3.80 ±.56	-	-	3.93 ±.46	1.904+ (p=0.064)	-
	아니오	3.61 ±.72			3.48 ±.68			3.61 ±.67		
연령대	21-30(a)	2.80 ±1.75	3.581* (p=0.014)	d>c,a,e,b	3.70 ±.48	2.837* (p=0.036)	d>c,e,a>b	3.90 ±.32	7.128*** (p=0.000)	d>e,c,a,b
	41-50(b)	2.22 ±1.86			4.00 ±.71			4.11 ±.60		
	51-60(c)	1.50 ±1.07			3.50 ±.76			3.88 ±.35		
	61-70(d)	1.00 ±.000			3.10 ±.32			3.00 ±.47		
	71세 이상(e)	2.78 ±2.11			3.67 ±.71			3.78 ±.67		

*p<.05 **p<.01 ***p<.001 + p<.1

5.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설문 문항 중 명목, 서열변수에 해당하는 변수인 중요 사역, 교회유형, 바라는 교회유형, 교회성장의 장애요인,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불만족 이유,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에 비적극적 이유,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장점,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유의 총 8 개

항목을 선별하여 이를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대, 모태신앙, 출석 기간, 직분 등 5 가지 범주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Pearson의 카이제곱을 확인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 성별과 교회 출석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에 비적극적 이유의 교차분석

먼저 연령대에서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비적극적 참여 이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27.118, p < .05$). 응답자의 해당 사항 없음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명(32.6%) 중 21~30세 사이에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11.1%(1명), 힘들어서 20.0%(2명)로 응답하였으며, 41~50세 사이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가 각각 22.2%(2명)씩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없어도 된다는 응답이 11.1%(1명)로 나타났다. 51~60세 사이에서는 62.5%(5명)가 시간이 없어서로 응답하였으며 61~70세 사이에서는 10.0%(1명)로 각 시간이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선교 농업 활동 참여에 비적극적이었으며 다음은 힘들어서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에 비적극적 이유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에 비적극적 이유					전 체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없어도 되니까	해당사항 없음	
21-30	1	2	0	0	7	10
	10.0%	20.0%	0.0%	0.0%	70.0%	21.7%
41-50	2	2	0	1	4	9
	22.2%	22.2%	0.0%	11.1%	44.4%	19.6%

51-60	5	0	0	0	3	8
	62.5%	0.0%	0.0%	0.0%	37.5%	17.4%
61-70	1	0	1	0	8	10
	10.0%	0.0%	10.0%	0.0%	80.0%	21.7%
71세 이상	0	0	0	0	9	9
	0.0%	0.0%	0.0%	0.0%	100.0%	19.6%
전 체	9	4	1	1	31	46
	19.6%	8.7%	2.2%	2.2%	67.4%	100.0%

$\chi^2 = 27.118, p\text{-value}=.040$

(2)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신앙변화에 있어서의 교차분석

연령대에 따라 농업 활동이 신앙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32.018, p < .05$). 21~30 세 사이에서는 친교에 더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0.0%(5 명), 교회 가는 횟수 증가 40.0%(4 명), 말씀을 더 보게 된다 10.0%(1 명) 으로 나타났다. 41~50 세에서는 친교에 더 참여하게 되었다가 44.4%(4 명), 기도를 더 하게 됨과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됨이 각 22.2%(2 명)씩으로 나타났으며 교회 가는 횟수가 증가하였다는 11.1%(1 명)로 나타났다. 51~60 세에서는 친교에 더 참여가 75.0%(6 명), 예배에 더 집중, 교회 가는 횟수가 더 증가가 각 12.5%(1 명)씩으로 나타났다. 61~70 세에서는 친교에 더 참여 40.0%(4 명), 예배에 더 집중 30.0%(3 명), 말씀을 더 보게 됨 20.0%(2 명) 응답하였다. 71 세 이상에서는 말씀을 더 보게 되었다가 55.6%(5 명),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됨이 33.3%(3 명), 친교에 더 참여하게 됨이 11.1%(1 명)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서 친교에 더 참여하게 됨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에 비해 71 세 이상은 말씀을 더 보게 되었음에 응답률이 높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나는 응답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32>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신앙변화에 있어서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신앙변화					전 체
	말씀을 더 보게 됨	기도를 더 하게 됨	예배에 더 집중	친교에 더 참여	교회 가는 횟수증가	
21-30	1	0	0	5	4	10
	10.0%	0.0%	0.0%	50.0%	40.0%	21.7%
41-50	0	2	2	4	1	9
	0.0%	22.2%	22.2%	44.4%	11.1%	19.6%
51-60	0	0	1	6	1	8
	0.0%	0.0%	12.5%	75.0%	12.5%	17.4%
61-70	2	1	3	4	0	10
	20.0%	10.0%	30.0%	40.0%	0.0%	21.7%
71세이상	5	0	3	1	0	9
	55.6%	0.0%	33.3%	11.1%	0.0%	19.6%
전 체	8	3	9	20	6	46
	17.4%	6.5%	19.6%	43.5%	13.0%	100.0%

$\chi^2 = 32.018$, p-value=.010

(3)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단점 교차분석

연령대에 따라 선교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단점의 응답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22.823$, $p < .05$). 21~30 세에서는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고 50.0%(5 명)가 여겼으며, 다음으로는 봉사가 많아진다가 40.0%(4 명), 목사님의 업무 과다로 인해 목회활동이 지장이 있다가 10.0%(1 명)로 나타났다. 41~50 세에서도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가 77.8%(7 명), 봉사가 많아진다와 목사님의 업무과다로 목회활동 지장이 각 11.1%(1 명)로 나타났다. 51~60 세에서는 봉사가 많아진다가 50.0%(4 명)로 예배가 악화된다가 25.0%(2 명), 신경 쓸 일이 많아짐과 목사님의 업무과다로 목회활동 지장이 각 12.5%(1 명)씩으로

나타났다. 61~70 세는 봉사가 많아진다가 70.0%(7 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가 30.0%(3 명)로 나타났으며, 70 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봉사가 많아진다가 77.8%(7 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가 22.2%(2 명)로 나타났다.

<표 33>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단점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단점				전체
	예배약화	봉사 많아짐	신경 쓸일 많아짐	목사님의 업무과다로 목회활동 지장	
21-30	0	4	5	1	10
	0.0%	40.0%	50.0%	10.0%	21.7%
41-50	0	1	7	1	9
	0.0%	11.1%	77.8%	11.1%	19.6%
51-60	2	4	1	1	8
	25.0%	50.0%	12.5%	12.5%	17.4%
61-70	0	7	3	0	10
	0.0%	70.0%	30.0%	0.0%	21.7%
71세이상	0	7	2	0	9
	0.0%	77.8%	22.2%	0.0%	19.6%
전체	2	23	18	3	46
	4.3%	50.0%	39.1%	6.5%	100.0%

$\chi^2 = 22.823$, p-value=.029

(4)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연령대에 따라 선교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교회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른 응답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28.137$, $p < .05$).

21~30 세는 성도의 참여정도가 60.0%(6 명), 교회 중직자 협조가 20.0%(2 명), 담임목사의 참여유도와 재정적 지원이 각 10.0%(1 명)씩으로 나타났다. 41~50 세는 성도의 참여도가

66.7%(6 명), 교회중직자 협조가 22.2%(2 명), 기도가 11.1%(1 명)로 나타났다. 51~60 세는 성도의 참여도가 75.0%(6 명), 교회 중직자 협조가 25.0%(2 명), 61~70 세는 교회중직자의 협조가 80.0%(8 명), 각 기도와 성도참여도가 10.0%(1 명), 71 세 이상은 교회중직자의 협조가 44.4%(4 명), 담임목사의 참여 유도가 33.3%(3 명), 성도참여도가 22.2%(2 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 세 미만에서는 성도참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61 세 이상에서는 교회중직자의 협조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교회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긴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4>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					전체
	담임목사의 참여유도	교회 중직자 협조	기 도	재정적지원	성도참여도	
21-30	1	2	0	1	6	10
	10.0%	20.0%	0.0%	10.0%	60.0%	21.7%
41-50	0	2	1	0	6	9
	0.0%	22.2%	11.1%	0.0%	66.7%	19.6%
51-60	0	2	0	0	6	8
	0.0%	25.0%	0.0%	0.0%	75.0%	17.4%
61-70	0	8	1	0	1	10
	0.0%	80.0%	10.0%	0.0%	10.0%	21.7%
71세 이상	3	4	0	0	2	9
	33.3%	44.4%	0.0%	0.0%	22.2%	19.6%
전체	4	18	2	1	21	46
	8.7%	39.1%	4.3%	2.2%	45.7%	100.0%

$\chi^2 = 28.137, p\text{-value} = .030$

(5)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연령대에 따라 선교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른 응답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29.915$, $p < .05$). 21~30 세는 교회 사랑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 인식이 각 40.0%(4 명)씩 나타났으며 시간적 여유와 지역민에 대한 사랑이 각 10.0%(1 명)씩으로 나타났다. 41~50 세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 인식이 44.4%(4 명), 교회사랑과 지역민에 대한 사랑이 각 22.2%(2 명),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이 11.1%(1 명)로 나타났다. 51~60 세는 교회사랑이 62.5%(5 명),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이 25.0%(2 명), 지역민에 대한 사랑이 12.5%(1 명)로 나타났다. 61~70 세는 10 명의 응답자 100%(10 명) 모두 교회사랑 이라고 하였으며, 71 세 이상은 교회사랑이 88.9%(8 명), 지역민에 대한 사랑이 11.1%(1 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은 교회사랑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여겼다.

<표 35>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가장 중요한 사항					전체
	교회 사랑	선교(전도)열정	시간적 여유	지역민 사랑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	
21-30	4	0	1	1	4	10
	40.0%	0.0%	10.0%	10.0%	40.0%	21.7%
41-50	2	1	0	2	4	9
	22.2%	11.1%	0.0%	22.2%	44.4%	19.6%
51-60	5	2	0	1	0	8
	62.5%	25.0%	0.0%	12.5%	0.0%	17.4%
61-70	10	0	0	0	0	10
	100.0%	0.0%	0.0%	0.0%	0.0%	21.7%

71세 이상	8	0	0	1	0	9
	88.9%	0.0%	0.0%	11.1%	0.0%	19.6%
전체	29	3	1	5	8	46
	63.0%	6.5%	2.2%	10.9%	17.4%	100.0%

$\chi^2 = 29.915$, p-value=.018

2) 모태신앙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유익의 교차분석

모태신앙 여부에 따라 선교 농업 활동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8.054$, $p < .05$). 모태신앙이 있는 집단에서는 선교 농업 활동이 지역 내 교회의 평판이 좋아졌다고 46.7%(7명)가 여기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인들의 단합이 33.3%(5명) 좋아졌으며, 교회 재정수입이 증가하였다고 20.0%(3명) 여기고 있었다. 모태신앙이 아닌 집단에서도 역시 지역 내 교회 평판이 좋아짐이 74.2%(23명), 교인들 단합 12.9%(4명), 선교의 열정이 증가 9.7%(3명), 교회재정 수입증가 3.2%(1명)의 순으로 여기고 있었다. 선교의 열정이 증가하는 유익이 있었다는 응답은 모태신앙이 아닌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표 36>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유익의 교차분석 결과

모태신앙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유익				전체
	지역내 교회 평판이 좋아짐	교회재정수입증가	선교 열정증가	교인들 단합	
예	7	3	0	5	15
	46.7%	20.0%	0.0%	33.3%	32.6%
아니오	23	1	3	4	31
	74.2%	3.2%	9.7%	12.9%	67.4%
전체	30	4	3	9	46
	65.2%	8.7%	6.5%	19.6%	100.0%

$\chi^2 = 8.054$, p-value=.045

(2)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따른 신앙변화 교차분석

모태신앙 여부에 따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따른 신앙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13.236, p < .05$). 모태신앙인 응답자는 친교에 더 참여하게 되었다가 40.0%(6명), 교회 가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33.3%(5명), 말씀을 더 보게 되었다와 기도를 더 하게 되었다가 각 13.3%(1명)씩으로 나타났다. 모태신앙이 아닌 응답자에서는 친교에 더 참여하게 되었다 45.2%(4명),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29.0%(9명), 말씀을 더 보게 되었다 19.4%(6명), 기도를 더 하게 되었다와 교회 가는 횟수가 증가했다가 각 3.2%(1명)씩으로 나타났다. 모태신앙에서는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의 응답이 없는데 비해 모태신앙이 아닌 응답자에서는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가 두 번째 비중으로 응답한 것이 차이가 있다. 전체로 볼 때 선교적 농업 활동이 응답자들의 친교에 더 참여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다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7>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따른 신앙변화 교차분석 결과

모태신앙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따른 신앙변화					전체
	말씀을 더보게 됨	기도를 더하게 됨	예배에 더 집중	친교에 더 참여	교회 가는 횟수 증가	
예	2	2	0	6	5	15
	13.3%	13.3%	0.0%	40.0%	33.3%	32.6%
아니오	6	1	9	14	1	31
	19.4%	3.2%	29.0%	45.2%	3.2%	67.4%
전체	8	3	9	20	6	46
	17.4%	6.5%	19.6%	43.5%	13.0%	100.0%

$\chi^2 = 13.236, p\text{-value}=.010$

(3)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모태신앙 여부에 따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10.846, p < .05$). 먼저 모태신앙인 응답자는 각 40.0%(6명)가 각 교회사랑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선교열정, 시간적 여유, 지역민 사랑에 각 6.7%(1명)씩이 응답하였다. 모태신앙이 아닌 집단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74.2%(23명)로 교회사랑 이라고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지역민 사랑이 12.9%(4명), 선교열정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이 각 6.5%(2명)로 응답하였다.

<표 38> 모태신앙 여부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의 교차분석 결과

모태신앙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가장 중요한 사항					전체
	교회사랑	선교열정	시간적여유	지역민사랑	선교위한농업 활동 필요성인식	
예	6	1	1	1	6	15
	40.0%	6.7%	6.7%	6.7%	40.0%	32.6%
아니오	23	2	0	4	2	31
	74.2%	6.5%	0.0%	12.9%	6.5%	67.4%
전체	29	3	1	5	8	46
	63.0%	6.5%	2.2%	10.9%	17.4%	100.0%

$\chi^2 = 10.846, p\text{-value}=.028$

3) 직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 직분과 중요 사역에 따른 교차분석

직분에 따라 중요 사역 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38.282, p < .01$). 먼저 학생·청년 집단에서는 예배사역이 44.4%(4명), 성경공부 33.3%(3명), 친교

22.2%(2명)로 나타났다. 평신도는 선교에서 66.7%(2명), 예배사역에서 33.3%(1명)로 나타났다. 집사는 예배사역이 83.3%(20명), 성경공부 8.3%(2명), 친교 8.3%(2명)였으며, 권사·안수집사에서는 예배사역 85.7%(6명), 친교 14.3%(1명), 장로는 친교와 선교가 각 50.0%(1명), 목사는 예배사역(100%)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9> 직분과 중요 사역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직분	중요 사역				전체
	예배사역	성경공부	친교	선교	
학생·청년	4	3	2	0	9
	44.4%	33.3%	22.2%	0.0%	19.6%
평신도	1	0	0	2	3
	33.3%	0.0%	0.0%	66.7%	6.5%
집사	20	2	2	0	24
	83.3%	8.3%	8.3%	0.0%	52.2%
권사·안수집사	6	0	1	0	7
	85.7%	0.0%	14.3%	0.0%	15.2%
장로	0	0	1	1	2
	0.0%	0.0%	50.0%	50.0%	4.3%
목사	1	0	0	0	1
	100.0%	0.0%	0.0%	0.0%	2.2%
전체	32	5	6	3	46
	69.6%	10.9%	13.0%	6.5%	100.0%

$\chi^2 = 38.282, p\text{-value} = .001$

(2) 직분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비참여 이유의 교차분석

직분에 따라 중요 사역 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38.088, p < .01$). 학생·청년에서는 참여의지 부족과 시간적여유 부족이 각 44.4%(4명)가 응답하였으며, 관심부족이 11.1%(1명)로 응답하였다. 평신도에서는 참여의지 부족이 66.7%(2명), 시간적여유 부족이 33.3%(1명)로 나타났으며, 집사에서는 참여의지 부족이 62.5%(15명), 관심부족이 16.7%(4명), 시간적 여유 부족과 필요성 부족이 각 8.3%(2명),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4.2%(1명)로 응답하였다. 권사·안수집사에서는 57.1%(4명)가 관심부족, 28.6%(2명)가 참여의지 부족, 14.3%(1명)가 시간적 여유 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장로들은 참여의지와 관심 부족이 각 50.0%(1명)씩으로 응답하였다. 목사는 선교적 농업 활동 비참여 이유를 믿음부족(100%)이라고 생각하였다.

<표 40> 직분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비참여 이유의 교차분석 결과

직분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비참여 이유					전체
	참여의지부족	관심부족	시간적여유부족	필요성부족	믿음부족	
학생·청년	4	1	4	0	0	9
	44.4%	11.1%	44.4%	0.0%	0.0%	19.6%
평신도	2	0	1	0	0	3
	66.7%	0.0%	33.3%	0.0%	0.0%	6.5%
집사	15	4	2	2	1	24
	62.5%	16.7%	8.3%	8.3%	4.2%	52.2%
권사·안수집사	2	4	1	0	0	7
	28.6%	57.1%	14.3%	0.0%	0.0%	15.2%
장로	1	1	0	0	0	2
	50.0%	50.0%	0.0%	0.0%	0.0%	4.3%

목사	0	0	0	0	1	1
	0.0%	0.0%	0.0%	0.0%	100.0%	2.2%
전체	24	10	8	2	2	46
	52.2%	21.7%	17.4%	4.3%	4.3%	100.0%

$\chi^2 = 38.088$, p-value=.009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으로서 선교를 위해 농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교회 성장의 유익, 교회에 대한 사랑의 정도, 신앙의 성장,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 지역사회의 유익,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의 정도,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이미지 등 8가지의 질문 항목으로 추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표 41>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 조사를 위해 추출된 질문

no.	내 용
1	농촌교회인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의 성장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4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였습니까?
5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습니까?
6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지역 사회에도 좋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8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응답자의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적극적 참여 여부 등 3가지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 조사를 위해 추출된 질문

no.	내 용
1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	귀하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주요변인 기술통계

추출된 주요변인인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 영향력 인식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에 대한 평균은 다음과 같다. 농업 활동기반 영향력 인식은 3.70(±.493)으로 5 점 만점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 역시 3.49(±.59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왜도는 절대값 3 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첨도 역시 절대값 10 을 초과하지 않아 기준치에 적합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추출된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통계량	S.E	통계량	S.E
농업 활동 기반 영향력인식	2.63	5.00	3.70	.493	.351	.350	.983	.688
농업 활동 필요성인식	2.00	5.00	3.49	.599	-.311	.350	.800	.688

2) 상관분석 결과

주요변인들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통제변수들을 삽입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실시 결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에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이 보통의 상관관계($r=.547, p<.0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연령에 모태신앙여부($r=-.696, p<.001$)와 직분($r=.579, p<.001$)이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태신앙여부와 직분사이에서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상관관계 분석 결과

	농업 활동기반 영향력 인식	성별	연령대	모태신앙 여부	교회출석 기간	직분	농업 활동 필요성인식
농업 활동기반 영향력 인식	1						
성별	-.025	1					
연령대	-.164	.236	1				
모태신앙여부	.208	-.083	-.696***	1			
교회출석기간	.121	.012	.020	.193	1		
직분	-.010	.105	.579***	-.308*	.209	1	
농업 활동 필요성인식	.547***	-.040	-.047	.100	.046	.088	1

*** $p<.001$ ** $p<.01$ * $p<.05$

3)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 영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은 $F=3.233(p<.05)$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결정계수)은 33.2%로 설명력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bin-Watson** 값은 1.622로 나와 2에 근접하여 각 변인들 간의 공선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와 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는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에는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만이 $\beta = .532(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금암교회의 교인들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 영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124	.453		4.690	.000		
성별	.024	.136	.024	.177	.861	.927	1.079
연령	-.026	.062	-.095	-.424	.674	.345	2.901
모태신앙	.079	.201	.076	.392	.697	.458	2.184
교회출석기간	.031	.052	.083	.597	.554	.877	1.140
직분	.001	.070	.002	.009	.993	.609	1.643
농업 활동필요성인식	.438	.109	.532	4.010	.000	.972	1.029
Dubin-Watson	1.622						
R ²	.332						
Adjusted R ²	.229						
F	3.233**						

*** p<.001 **p<.01 *p<.05

7. 설문 결과에 대한 소결론

본 설문은 금암교회가 지난 십 년 동안 실행하였던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지역 선교와 교회 성장,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의 결과를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확인과 평가를 하였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동일한 행정 구역인 전라북도에 위치하면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의 모든 농촌교회를 설문 조사 연구하지 못하고

금암교회 한 개의 교회만 하다 보니 좀 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설문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에 결과로 보여주는 통계적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지난 십 년 동안 지속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금암교회의 만족도 조사 결과 부정적인 답변 3%(3 명)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 50%(23 명)나 되었다. 물론 보통이라는 답변이 43.5%(20 명)로 적지 않게 나타났지만,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농촌 교회 입장에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결과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금암교회의 참여도 조사에서 만족도와 비슷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즉 만족도가 긍정적이라면 참여에도 적극성을 띠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만족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답변(43.5%)이 적지 않다는 현실에서 교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만족도의 비율이 더 긍정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다른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한 선호도, 교회 성장 여부, 교회 사랑 증가 유무, 신앙 성장 유무, 선교(전도) 열정 증가 유무 등 농업 활동의 결과, 그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는 5 가지 질문에서 긍정적 답변이 평균 65%, 부정적인 답변이 평균 3.5%, 그리고 보통이 평균 31.5%로서 비슷한 응답 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와 교인들 개인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되고 교인들도 지역 사회를 향한 애착심이 높아졌으며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약 55%~65% 정도의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2~4%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은 교회와 지역 사회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 차이 여부를 알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성별, 직분, 출석 기간에서는 차이가 없고, 모태신앙과 연령대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태신앙의 교인들은 비 모태신앙인과 비교하여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교회성장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여긴다는 점과 또한 지역사회가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61~70대의 연령이 다른 연령대보다 선교 농업 활동이 교회성장에 유익이 되고 지역사회 사랑에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가 교회에 대한 호감에 있어서 더 유익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실시된 설문 응답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차후 또 다른 연구자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특별히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 영향력 인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교인들의 성별, 연령, 모태신앙 여부, 교회출석 기간, 직분에 상관없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할수록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한 교회 차원이든, 성도 개인이든, 혹은 지역 선교 차원이든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교인들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하여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설문 분석 결과 금암교회가 농촌에 위치한 교회로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으로 성도들이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동시에 개인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었으며 선교(전도)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 결과를 통하여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촌교회가 선교 및 전도를 펼쳐 나감에 있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 농촌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그들과 소통의 통로가 되며 나아가 함께 협력하여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농촌교회로서 농업 활동으로 선교를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 5 장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자는 제시된 사례 교회들과 이어진 설문조사의 연구 분석을 토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기에 선교를 목적으로 농촌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업 활동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히 금암교회가 학생들과 함께 시작한 옥수수 농사로 다음 세대를 양육한 것이 선교와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농촌교회가 비전을 갖고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례를 제시하려고 한다.

1. 농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장 16 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11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던 손창남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대상을 ‘모든 사람에게’라고 통칭하지 않고 굳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명시한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헬라인들에게 유대인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¹⁴⁷

농촌에서 선교하자면 농촌 주민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은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써야 한다. 농촌 지역에 있는 농촌교회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함께 농업 활동을 통하여 선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과 활동들이 필요하다.

147) 손창남, 「문화와 선교」 (서울: 조이선교회, 2014), 88.

1) 기초작업

(1) 농촌 신학의 재정립

두레 공동체를 설립하여 농촌선교에 힘썼던 한응수 목사는 그의 서적 「농어촌 목회와 선교」에서 임인수 목사(새암교회)의 말을 다음과 인용하면서 농민선교의 방향을 언급하였다:

이제까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의 선교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교회 본래의 일, 즉 예수가 행하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생명들을 간절히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망각, 외면,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에는 열정을 다하면서도 돌봐야 할 작은 생명들을 섬기는 일은 외면하거나 매우 위선적으로 행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회 안에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진정 벗으로 삼아야 할 농민들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 온 때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¹⁴⁸

일반적으로 과거에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성취하면 농촌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농촌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되어 자연스럽게 농촌의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농촌 주민들이 힘들어할 때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제대로 된 비전 제시는커녕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¹⁴⁹ 그동안 교회와 선교단체의 열심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촌 주민의 편에 서서 농촌 주민들을 위한 농촌 주민들의 교회가 되는 데에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다다른 것은 농촌 주민을 위한 목회 사역을 펼쳐갈 신학의 부재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학대학에서부터 농촌목회의 신학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는 농촌선교를 비전으로 삼는 목회자가 신학적 토양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에서 양성 배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감리교신학교와 목원대학교 교수로 역임한 이호운은 “농촌교역자는 농촌운동자가 되어야 농촌 사역자의 자격이 있기에 농촌 실정을 모르고서는 전도는 불가하다.”¹⁵⁰고 하였다. 그러므로 농촌선교는 가급적 농촌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적어도 농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148)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110-1.

149) Ibid., 111.

150) 농촌선교연구원 편, 「목원의 꿈 · 농촌 선교」 (대전: 도서출판경, 2000), 78.

신학생들이 양성될 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매년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들은 도시에서의 목회를 염두에 두고 신학을 공부한다. 그리고 도시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농촌교회를 택하고 있다. 각 신학교에서 농촌과 관련된 학생들이나 농촌에 대한 비전이나 애착이 있는 학생들을 일정 부분 특혜를 제공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양육 배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촌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는 과정이 영향력 있는 농촌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또한 기존 농촌교회의 목회자들도 분명한 농촌목회의 신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신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농촌교회 현장 목회자들에게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목회적 도움뿐만 아니라 농촌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될 것이다.

(2) 목회자의 확고한 소명감 및 리더십 확보

앞서 3장에서 사례로 제시한 농업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농촌 선교를 펼치고 있는 군산시 금암교회, 완주군 울곡교회, 진안군 좌포교회, 남원시 갈계교회 모두 목회자의 주도 아래 농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오랜 시간 해당 지역에 살았던 교인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지 않았다. 또한 4장 설문 연구 <표 27>에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목사가 41.3%(19명)로 거의 과반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 주었다. 이것을 통하여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는 목회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농촌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목회자의 소명감과 리더십임을 알 수 있다.

토마스 C. 오덴(Thomas C. Oden)은 그의 책 「목회신학」에서 목회자의 권위는 경찰이나 법관처럼 강제력이 아니라 봉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면서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¹⁵¹ 진정한 목회자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은 특별히 난제들이 많은

151) Thomas C. Oden,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05-6.

지역이다. 그러므로 농촌교회의 목회는 목회자의 더욱 확고한 소명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한다.¹⁵²

(3) 교인들의 의식 변화

금암교회의 설문 연구에서 ‘금암교회가 농촌에 위치한 교회로서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배 사역은 69.6%인데 반하여 선교(전도) 사역은 6.5%에 불과하였다. 농촌교회로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교세가 감소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교(전도) 사역에는 관심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앞서 2 장 농촌 지역의 일반적인 문화적 특성 연구에서 농촌은 지리적 환경의 영향과 농업적 환경의 영향으로 농민의 성격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사실¹⁵³을 참작한다면 대부분의 농촌교회의 교인들이 금암교회와 비슷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3 장 사례 연구에서 완주군 율곡교회와 남원시 갈계교회를 보듯이 교인들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심방에 전념하는 전통적인 목사상을 원하지 손에 흙을 묻히는 목사의 모습에는 거리감을 갖고 있다.

선교는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없다. 특별히 농업 활동은 더욱더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따라서 농업을 통한 선교 활동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 강한 농촌교회의 교인들의 의식 변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표 45> 회귀분석 결과 연령, 직분, 성별, 출석 연수와 상관없이 교인들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여러 모습으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교인들의 의식 변화를 일으켜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선교적 활동을 통한 기쁨과 축복을 경험케 해야 한다.

152)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왔다”(막 10:45)고 하셨다.

153)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43-4.

이를 위해 좀 더 전략적인 교육과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앞서 금암교암 교회의 설문 결과 교차분석 <표 35>에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 응답은 “교회사랑”으로 나왔지만 40 대 이하의 젊은 층 교인들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필요성 인식”이 많았고, 50 대 이상의 노령층 교인들은 “교회 사랑”이라고 답하였다. 이것을 교육 시에 적용하자면, 전 교우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40 대 이하의 젊은 층 교인들에게는 농촌교회의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모습을 각종 데이터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준비하여 알려줌으로써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교육 강조하고, 50 대 이상의 노령층 교인들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차원에서의 선교 필요성을 감성적으로 전달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즉, 연령대별로 이성과 감성을 전략적으로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업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다른 사업들과 활동처럼 농사일도 잘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교인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얻어내고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1) 농지 획득

기본적으로 농사를 위한 토지와 농기구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에 알맞은 작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가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교인들로부터 농지를 협조받는 것이 몹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요즘은 고령화로 말미암아 농사일을 할 수 없어 휴경하는 농지도 많이 있다. 처음부터 큰 평수의 농지보다는 100 평 이하의 토지를 획득하여 경험적으로 시작해서 점차 많은 평수의 농지를 확보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권한다. 물론 교인들과 소통과 협력만 잘 이루어진다면 큰 평수의 농지도 무관하겠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지게 된다.

(2) 작물의 선택

‘강원도 감자’, ‘경북 사과’라고 대표 되듯이 비록 넓은 국토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이지만 각 지역의 특산물이 존재한다. 즉, 각 지역의 환경과 토질에 따라 적절한 작물이 존재하기에 사전 조사를 통하여 적절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작물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고추 작물은 농약을 뿌려주는 횟수가 많을뿐더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농약을 잘 뿌려 주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농사를 망칠 수 있기에 좀 더 많은 신경과 관리가 필요로 한다. 양파 작물은 토양이나 환경에 따라 적응력에 차이가 있고 생육이나 수확량, 저장성에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수시로 관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러한 작물들은 소출에 대한 수익은 높겠지만 그만큼 집중력과 노동력, 관리를 위한 시간이 요구된다. 목회자가 전문적인 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런 작물들을 재배한다는 것은 목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록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펼치지만, 목회자에게 기본적으로 말씀 준비와 예배 준비를 무시할 수 없다. 금암교회의 채금석 목사는 다년간 농업 활동의 경험으로 많은 노동력과 관리적 시간을 필요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무난하게 재배 할 수 있는 작물로 옥수수, 고구마, 배추를 추천하고 있다.¹⁵⁴

(3) 판로 모색

농지를 획득하고 적절한 작물도 잘 선택해서 교인들과 농사를 잘 지어놓고 수확 후 판로가 없다면 함께 노력하고 땀을 흘린 수고가 무위가 되어 버린다. 농사를 잘 짓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판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판로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농촌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로의 모습은 도시교회나 기관단체들, 혹은 아파트 주민들과 자매결연을 하거나 가까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을 확인하여 계약을 맺는 방안이다. 혹은 지역

154) 2021년 4월 8일(목) 금암교회 채금석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추천하였다.

‘농업 협동조합’(이하 농협)에서 매수하는 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같은 작물을 짓는 교인들과 또는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여 함께 협동농장, 또는 협동 생산 개념으로 도매상과 미리 계약하는 방안도 있다.

금암교회의 사례를 들자면 금암교회의 채금석 목사는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지역 주민들과 유대 관계 증진과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였다.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배한 고구마를 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 공무원 사이트에 소개되어 판로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학부모 운영회원 가운데 지역 롯데제과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학부모를 통하여 옥수수를 납품하게 되었고 이 또한 매년 안정적인 판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맺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ites, 이하 SNS)에 올림으로써 같은 직종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다.

갈계교회의 강기원 목사는 농지 300 평을 얻어 콩 농사로 처음으로 청국장 손수 담가 판매를 개시하였지만 마땅한 판로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궁리 끝에 소속된 교단 총회 게시판에 그동안 콩을 직접 재배한 모습들, 밭을 가고 콩을 심고 자라서 추수하는 모습들과 청국장을 담그는 모든 과정들을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홍보하였다. 자연산 콩으로 손수 담갔다는 장점을 알린 것이다. 하지만 1 개월 동안 격려하는 전화는 많이 받았지만 정작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아 애타 하는 가운데 독일에 선교사로 있던 진봉준 목사가 확인하고 매달 200 유로(약 25 만 원 정도)를 후원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김경조 집사(현재 서대문교회 안수집사)가 기도 중에 어려운 농촌교회를 선교적 차원에서 후원하기로 작정한 가운데 총회 게시판을 확인, 6 년간 매달 40~100 만 원씩 후원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재정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교회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금암교회와 갈계교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촌교회 목회자는 지역 사회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 및 선도적 활동을 하거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잘 활용한다면 예기치 않는 판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안한다. 농업 활동을 통하여 재정적 수입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선교이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과 잦은 교류와 소통,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재정적 수입뿐만 아니라 선교라는 주된 목적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4) 농기구와 농사 용품 준비

등산이나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해당 물품이 필요하듯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와 농사 용품이 있어야 한다. 한 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모되면 다시 구매해야 하는 것도 있다. 교인들에게 빌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농기구와 농사 용품은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

대신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들은 교회에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으니 교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금암교회의 채금석 목사는 “농사를 짓다 보면 교인들보다 이웃 주민들이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먼저 언제 약을 쳐야 하고, 지금이 물을 줘야 하는 시기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빌려줄 테니 언제든 이야기하라 할 정도로 목사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¹⁵⁵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의외로 목회자가 농사를 지을 때 관심이 많고 ‘정’ 문화가 남아 있어 도움을 요청할 시 잘 도와준다. 기본적으로 농기구와 농사 용품들은 종묘상이나 철물점,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i) 필요한 농기구들

삽, 삽광이, 레이크, 호미, 쇠스랑, 낫, 분무기, 물뿌리개 등

155) 2021년 4월 8일(목) 금암교회 채금석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였다.

ii) 필요한 농사 용품

모자, 장화, 멀칭¹⁵⁶비닐, 멀칭편, 지지대, 망치, 농사용 끈, 복주기 삽(복삽), 구근파종기, 농사용 계량컵, 가위와 칼 등

3) 재배 방법¹⁵⁷

앞서 재배할 작물의 선택할 때 많은 노동력과 관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무난하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옥수수, 고구마, 배추를 추천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 작물의 재배 방법을 소개하고 기타 작물들은 재배 방법은 서적이거나 인터넷 자료, 그리고 농사를 짓는 교인에게 정보를 얻으면 된다.

(1) 옥수수

옥수수는 고온과 강한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이다. 반면 추위에는 약하기에 서리 걱정이 없을 시기에 씨를 뿌린다. 비료를 잘 흡수하기에 비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 46> 옥수수 재배 시기



156) 멀칭(mulching) : 농작물을 재배할 때 수분 증발이나 비료 유실, 혹은 병충해 방지와 잡초 따위를 막기 위해 벚짖, 보릿짖, 비닐 등으로 농지의 표면을 덮는 일.

157) 재배 방법은 심철흙, 「텃밭 농사 무작정 따라하기」(서울: 도서출판길벗, 1990), 유재영, 「내 손으로 재배하는 채소 70종」(서울: 동학사, 2003), 이타기 토시타카, 「가정 채소재배 대백과」, 장광진 역(서울: 동학사, 2004) 등을 참조하였고 금암교회 채금석 목사의 자문을 얻어 기술하였다.

i) 토양 만들기

옥수수 농지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을 택하며 좋은 토양을 만들어 주면 55%는 성공하였다 할 수 있다. 키를 2m 이상 키워야 하고 열매도 2 개 맺도록 해야 하므로 충분한 양분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밑거름을 넉넉하게 주어야 한다. 시점은 파종 전 3 주 전, 대략 3 월 중에 실시하며 2 평당 퇴비 1 포(20kg), 복합비료 600g 을 밑거름으로 주고 3 주간 매일 물주기를 한다.

ii) 파종

남부지방은 비닐멀칭을 안 할 경우 4 월 초순, 비닐 멀칭을 할 경우 4 월 중순 정도가 적당하고 중부지역은 비닐멀칭을 안 할 경우 4 월 중순, 비닐멀칭을 할 경우 4 월 후순이 적당하다. 옥수수 씨앗은 작년에 말려둔 씨앗이나 종묘상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매하여 심을 수 있다. 옥수수는 씨앗으로 파종을 해도 모종과 비교해서 소출에 큰 영향이 없기에 씨앗으로 파종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랑을 만들 때 두둑 폭은 80cm, 두둑 높이 25~30cm, 이랑 간의 간격은 60cm 정도로 하고 두 알씩 5cm 깊이로 서로 30cm 정도 간격으로 두 줄로 심는다. 옥수수는 수꽃의 역할을 하는 수이삭이 줄기 꼭대기에 달리고, 아래쪽에선 암꽃 역할을 하는 암이삭이 잎 겨드랑이에서 달린다. 위쪽 수이삭에서 꽃가루가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암이삭으로 떨어져 수정되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한 줄로 심는 것 보다 두 줄로 심는 것이 낫다.

iii) 솎아주기

씨를 뿌리고 1 주일 정도 지나면 발아하여 자란다. 키가 15cm 정도가 되면 두 개의 줄기 가운데 생육이 좋은 한 포기만 남기고 나머지 한 포기는 땅 위로 나온 부분을 가위로 잘라 버린다.

vi) 곁가지 제거 및 웃거름 주기

50cm 정도 자라면 제일 아래쪽 곁가지를 한 손으로는 원줄기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곁가지를 잡고 비틀어 제거한다. 수시로 확인하여 가지 잎이 약간 노란 색이 되면 질소가 부족한 상태이기에 웃거름을 준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잎이 검은색이 되면 열매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밑거름에서는 질소비료는 적게 주고, 자란 후 잎의 색상을 보면서 웃거름을 준다. 웃거름은 액비(오줌 액비, 음식물 액비, 깻묵 액비, 생선부산물 액비 등)나 NK 복합비료를 물 20L 에 종이컵 2/3 컵을 희석해서 뿌려 준다.

v) 뿌리 복주기

보통의 작물은 한 번 나온 뿌리가 땅속으로 계속 자라지만 옥수수는 땅 바로 위의 원줄기에서 뿌리가 2 차, 또 3 차로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허공으로 나온 뿌리를 흙으로 덮어준다.

vi) 열매 달기 및 수정작업

7~8 월경 잎 겨드랑이에서 암이삭이 생기고, 원줄기 꼭대기에는 역세의 이삭 같은 수이삭이 나와 황갈색의 꽃가루가 나타난다. 이때 아래쪽 암이삭은 큰 것만 2 개 남기고 나머지는 따 버린다. 참고로 암이삭의 수염이 암술 역할을 하고 꼭대기의 이삭이 수술이 되어 꼭대기에서 떨어진 황갈색의 꽃가루가 암술 위에 떨어져 수정된다.

vii) 수확

꽃가루가 붙어 수정하고 3 주 정도 되면 암이삭의 수염이 진갈색으로 곱슬곱슬하다. 이때 암이삭을 손을 만져 보아 옥수수 알이 확실히 단단하게 느껴지면 아침에 수확한다. 수확은 암이삭의 몸체를 손으로 잡고 밑동을 비틀어 따낸다.

(2) 고구마

고구마는 토질에 상관없이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지만 지면 위로 덩굴이 뻗어 나가므로 농지가 어느 정도 넓어야 한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덩굴박’처럼 되니 가급적 마사토가 많은 황토 질이 좋고 경사도를 줘서 물 빠짐 좋게 하는 것도 농지를 좋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표 47> 고구마 재배 시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		

■ : 순 심기 ■ : 수확

i) 밭 일구기

모종을 옮겨심기 2 주 전(4 월 하순이나 5 월 초순 정도)에 평당 퇴비 3kg 과 화학비료 150g 을 뿌려주고 밭을 갈아 폭 50cm, 높이 30cm 의 두둑을 만든다. 고랑은 30cm 가 되게 한다. 다른 작물과 달리 두둑이 높게 하는 것은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ii) 모종 구매

종묘상이나 원예 점에서 20~25cm 의 줄기가 튼튼하고 잎이 5~7 장 달린 건강한 모종을 구매한다.

iii) 아주(모종)심기

고구마 모종에는 뿌리가 없다. 모종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이 되게 하고 생장순과 잎사귀는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적어도 4~5 개의 마디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땅속에 묻어 준다.

iv) 웃거름 주기 및 복주기

고구마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추가적인 손길이나 웃거름도 거의 필요 없지만, 만약 준다면 7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칼륨 성분의 비료를 두둑 사이에 주고 포기 밑을 가볍게 흙으로 두둑하게 하는 복주기를 한다.

v) 수확

9월이나 10월경에 포기를 파내 보아 고구마가 충분히 크기가 되었으면 먼저 덩굴을 잘라내고, 삽이나 쟁이, 호미 등을 이용하여 주위의 흙을 제거하면서 고구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파내어 수확한다. 유의할 점은 늦어도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한다.

(3) 배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채소인 배추는 봄, 가을에 파종할 수 있다. 그런데 봄 재배는 모종을 키우기 어렵고 여름 장마철 무더위로 질병의 위험도 크다. 따라서 서늘한 기후가 지속되는 가을 재배가 무난하다.

<표 48> 배추 재배 시기



i) 씨앗 및 모종 준비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을 통한 모종으로 배추를 재배하려면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일찍 파종하여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따라서 씨앗을 구매하여 모종을 재배하기보다는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매하여 재배하는 편이 수월하므로 권하지만, 대량 재배가 가능하다면 수익 측면에서는 모종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

모종을 기르기 위해 모판을 준비하여 퇴비 된 흙을 채우고 구멍을 만든 후 1 개의 구멍에 씨를 3 개 넣고 3mm 정도 덮는다. 모두 발아했을 때 3 포기 남기고 솟아낸다. 이후 본 잎이 2 장일 때 1 포기만 남긴다. 이후 잎이 4~5 장일 때 옮겨 심는다.

ii) 밭 일구기

두둑의 넓이는 40~50cm, 고랑은 30cm 되게 하고, 모종을 심을 곳 주변으로 퇴비 7~8 줌, 화학비료나 깻묵 액비 각 5 큰술로 뿌려준다. 배추 뿌리는 비교적 얇고 넓게 뺀기 때문에 밀거름은 전체를 뿌려 팽이로 갈아주듯이 한다.

iii) 아주(모종)심기

50cm 간격으로 한 곳에 2 포기씩 심는다.

iv) 솟아내기(포기 정리)

뿌리를 내리고 본 잎이 6~7 장 정도로 왕성하게 자랄 때 생육이 좋은 것 1 포기를 남기고, 포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포기 밑을 가볍게 복주기를 한다.

v) 웃거름

총 3 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본 잎이 10 장 정도일 때 1 포기당 화학비료 1 큰술을 배추 주변에 뿌려준다. 다시 1 회 웃거름 후 20 일경, 1 포기당 화학비료 1 큰술을 배추 주변에 뿌려준다. 그리고 이후 두둑 전체가 앞으로 덮이기 전 포기 사이에 잎이 상하지 않도록 군데군데 1 포기당 화학비료 1 큰술을 뿌려준다.

vi) 추위 막기

추위에 약하므로 서리 내릴 때가 되면 바깥 옆으로 포기 전체를 싸서 윗부분을 끈으로 묶어두어 추위를 막는다.

vii) 수확

11 월 중순경에 꼭대기를 손을 눌러봐서 단단한 느낌이면 수확이 가능하며 배추를 비스듬히 쓰러뜨려서 칼로 밑동을 잘라 수확한다.

4) 수확 후 판매 및 활동 모색

수확이 이루어졌으면 계획 된 판로로 판매를 한다. 만약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면 그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수익금을 사용한다. 이것은 함께 땀을 흘린 보람과 수확의 기쁨을 체감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고한 보람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확대되고 목사와의 친밀감이 향상됨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적 양육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재배 후 수익금으로 어려운 교회 재정에 충당하거나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등 여러 유익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한 학생들에게 재투자한다면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린 학생들을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2.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농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제시

4 장 설문 연구에서 응답자 46 명 가운데 60 대 이상의 참여자가 19 명으로 41.3%나 차지하여 고령화된 농촌교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응답자들 가운데 20 대 청년들이 10 명으로 21.7%나 되었다. 이것은 변두리 농촌교회의 상황으로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십 년 전 농지 300 평에 학생들과 옥수수 재배의 시작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신앙으로 양육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농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제시하겠다.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초등학교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생-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행태를 보면 정신적 성숙의 차이로 중고등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대학생-청년들이 참여하면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회자보다는 대학생-청년들을 더 선호하고 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중고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열악하다면 어린이로부터 중고등 학생, 대학생-청년들까지 다 참여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비슷한 연령층의 집단이 관계 형성에 쉽다는 점과 힘든 농사일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중고등 학생들을 권하는 바이다.

참여 인원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농촌교회의 사정상 10명, 15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최소 인원은 적어도 5명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 농업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농사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므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도 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습관적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많아진 일로 말미암아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에 불만을 품게 되고, 이것은 지속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최소 인원이 5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삼고 시작하기

학생들과 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가장 확고한 목적으로 세울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 도모와 증진이다.

청소년 시기인 중고등부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던 단계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¹⁵⁸ 그러한 과정에서 가치관의 많은 혼란과 혼돈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해가게 된다. 특별히 스마트폰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접속하거나 게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요즘의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가 대인관계이다. 친구를 원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막상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인 특성으로 농촌 지역의 학생은 농촌에 살아간다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무기력감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게 되면 그들도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하나의 돌파구로 교회를 찾게 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신앙 교육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비록 농지를 일구어 작물을 재배하지만, 농업 활동하는 이유와 목표가 학생들과 관계 도모와 증진을 심화 시켜 선교적 의미와 신앙 양육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2) 장로 및 교회 중직자들의 협력 유도

4 장 설문 연구 결과 <표 26>에서 ‘선교를 위한 활발한 농업 활동을 위해 필요 사항’으로 교회 중직자들의 협조가 무려 39.1%(18 명) 나왔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업 활동은 더욱더 교회 중직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농촌의 노령층 교인들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안전하게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지 다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질풍노도 시기의 특성으로 그들로부터 무슨 사고가 발생할 줄 몰라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10년 이상의 꾸준한 관계 증진과 양육을 통하여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에서 쉽게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점과 목회자가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말씀 준비와 심방 활동과 같은

158) 이하운, 「청소년 사역의 새 지평」 (서울: SFC, 2012), 73.

전통적인 목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염려들을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입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트집을 잡으면서 혼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장년들의 이러한 우려들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알리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존재가 기쁨이 되고 미래가 되기에 농업 활동 참여에 많은 격려를 당부하는 가운데 장로와 교회 중직자들의 협력을 이끄는 과정이 필요하다.

3) 분명한 동기 부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이나 게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학생들을 힘든 농업 활동으로 참여토록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작할 때부터 분명한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재배를 통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저축하여 외국으로 선교여행을 가는 방안도 좋은 동기 부여가 된다.

4) 참여 시간 정하기

학생들에게 내용과 동기를 알렸으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농업 활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의 계획과 목표가 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또 진행 중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학생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다짐과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5) 재배할 작물에 대한 연구 및 조사하여 선정하기

재배할 작물도 학생들이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재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일주일이 한두 번이다. 이것은 학생 자신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재배할 작물을 선정할 때 노동력과 관리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작물로 선택할 것을 언급해 주면서 스스로들 조사하고 상의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확된 생산물로 수익금이 얻게 되었을 때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 방학 전이나 방학 도중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과 겨울 방학 전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익금으로 방학 기간에 공동체 활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고 재배 작물을 선정하는 과정 또한 학생들을 관심을 유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6) 재배하기

이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심은 작물이 싹이 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본인의 손길이 간 작물에 애착을 느끼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어떤 학생들은 본인이 키운 작물의 상태가 궁금하여 일부로 등하굣길에 농지로 찾아와서 살펴보는 학생도 있다. 핵심은 학생들에게 직접 심고 가꾸게 하여 생명의 신비와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다.

7) 수확 후 공동체 활동으로 관계 맺어 가기

금암교회는 봄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여름 방학 기간에 수확하고, 그다음 배추를 재배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수확하여 수익을 올린다. 채금석 목사는 시작 연도 첫 수확의 수익금으로 참여한 학생 모두를 데리고 백두산 여행을 다녀옴으로 큰 호응을 끌어냈던 것을 경험으로 삼아 수익금 전액을 매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에 전국투어를 시행한다. 이처럼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학생들에게 알림으로 분명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든 농업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수익금으로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때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수익 금액에 따라 선교여행이나 국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 등의 신앙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여행도 무난하다. 농촌 지역 학생들이니만큼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 투어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단순한 여행이나 놀이공원 방문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학생들, 또 학생들 사이에서의 관계 도모와 증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활동으로 목회자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말씀 교육과 기도 훈련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서로 간에도 교회를 위한 평생 동역자들이 된다.

3. 동기 부여를 위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선교적 농업 활동 교육 프로그램

4 장 <표 4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 영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교인들의 성별, 연령, 모태신앙 여부, 교회 출석 기간, 직분에 상관없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영향력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것은 금암교회의 20 대 청년들도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표 35> ‘연령과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의 교차분석에서 20 대 청년들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 인식’과 ‘교회 사랑’과 함께 각각 40%(4 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금암교회 20 대 청년들은 10 년 전 농업 활동을 시작하였던 그때의 학생들이다. 즉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할수록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이것은 교회 차원이든, 성도 개인이든, 혹은 지역 선교 차원이든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금암교회 청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더 많은 선교적 열매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농촌교회가 선교적 농업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특별히 금암교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음 세대와 함께 농업 활동을 시행할 때 농촌교회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선교적 농업 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상과 교육목표

본 교육 프로그램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분명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 더 많은 선교적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진행방식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영상을 활용한 대화식 교육을 시행한다. 총 6 주간의 교육 훈련이 시행되며 처음 두 주간은 관계 증진을 위해 기질 유형 검사와 성격 유형(DISC) 검사를 통하여 본인과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을 가짐으로 돈독한 관계를 세우고, 3 주 차에서는 자연과 함께해야 할 인간의 삶, 4 주 차에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농업 활동과 농촌선교에 대하여, 5 주 차는 영상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통하여 삶의 희망으로 농촌이 될 수 있음과 농촌선교의 중요성, 마지막 6 주 차는 앞으로 농업 활동 계획을 소개하며 참여를 약속받는 시간을 가진다.

시간은 총 6 주간에 걸쳐 주 1 회 모임이며 1 회 모임 시 약 50 분의 교육을 시행한다. 장소는 필기를 할 수 있고 영상 시청이 가능한 곳이면 된다.

<표 49>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항 목	주 제	내 용	준비물	시 간	비 고
1 주차	마음 문 열기	기질 유형 검사를 통해 나와 상대방을 알아가기	기질 유형 검사지, 필기구	50분	
2 주차	관계 세우기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서로 간 관계 세우기	성격 유형 검사지, 필기구	50분	

3 주차	자연 속에 인간의 삶이 있음을 알기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 시청을 통해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영향력을 알게 하고 신념과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	50분	
4 주차	노동과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 선교에 대해서 알기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핵심이 되는 농업을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아울러 선교와 농촌선교에 대해서 알게 함	영상 ‘리틀 포레스트’	50분	
5 주차	농업이 희망의 대안이 될 수 있음과 농촌 선교의 중요성 알기	영상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시청하고, 변화하고 있는 농업의 위상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함	영상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농업에 청춘을 걸었다’	90분	
6 주차	원칙과 팀 활동의 중요성 알기	① 영상 ‘코치 카터’ 시청 후 소감을 나누며 원칙과 팀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② 앞으로 농업 활동 계획 소개 ③ 수확 후 수익금으로 공동체 활동 약속 ④ 참여 약속받기(원칙과 팀 강조)	영상 ‘코치 카터’	50분	

3) 주 차별 세부 프로그램

(1) 1 주차 프로그램

i) 주제 : 마음 문 열기

ii) 목적 : 마음 문을 여는 시간으로 기질 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기질을 확인하여 서로가 다름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iii) 내용 : 기질 유형 검사로 각자의 기질을 알게 하여 개인의 특성을 이해시키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독특한 성품과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기질과 특성도 알게 함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표 50> 1 주 차 세부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기질에 대한 설명	10 분	
2	기질 검사	20 분	준비물: 기질 유형 검사지, 필기구
3	본인 기질 및 특징 확인하기	10 분	
4	서로의 기질을 나누며 다름을 인정하기	10 분	

iv) 준비 사항 : 기독교적 기질 테스트 설명서인 팀 라헤이의 「성령과 기질」¹⁵⁹를 읽고 강의를 준비한다. ① 기질 유형 검사지¹⁶⁰ ② 기질별 장단점 ③ 기질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

v) 교육 내용

- (i)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른 기질을 주시어 다른 모습으로 소중하게 창조하셨다.
- (ii) 기질 유형 검사를 통하여 본인의 기질을 확인케 한다.
- (iii) 본인 기질의 장단점을 알게 한다.
- (iv) 서로의 기질 유형을 나누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한다.
- (v) 기질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게 한다.

159) Tim F. LaHaye, 「성령과 기질」, 홍종락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참조

160) '기질 유형 무료 검사지', [온라인 자료] <https://blog.naver.com/bangla35/221368374693>.

(2) 2주 차 프로그램

i) 주제 : 관계 세우기

ii) 목적 : 성격 유형(DISC)¹⁶¹ 검사를 통해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관계를 세운다.

iii) 내용 :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각자의 성격과 특성을 알게 함으로써 그동안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던 이유를 깨닫게 하고 개선 방안을 확인하여 서로의 관계를 세우도록 한다.

<표 51> 2주 차 세부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	5분	
2	성격 유형 검사	20분	준비물 성격 유형 검사지, 필기구
3	본인 성격 유형 및 특징 확인하기	5분	
4	서로의 성격 유형을 나누며 관계 세우기	15분	

iv) 준비 사항 : 「DiSC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행동의 4가지 특성」¹⁶²과 「DISC 행동유형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리더십」¹⁶³을 읽고 강의안을 준비한다. ① 성격 유형 검사지¹⁶⁴ ② 성격 유형별 장단점 ③ 성격 유형별 성경 인물

v) 교육 내용

(i)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주시어 다른 모습으로 소중하게 창조하셨다.

161) 가능하다면 'MBTI'나 '에니어그램' 프로그램도 추천하지만, 검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알아두어야 할 유형별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DISC'로 하도록 하겠다.

162) 김영희, 이건용, 이승철, 「DiSC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행동의 4가지 특성」, (서울: 학이시습, 2012) 참조

163) Ken R. Voges, Mike Kempainen, 「DISC 행동유형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리더십」, 김영희, 이경준 공역 (서울: 디모데, 2016) 참조

164) '성격 유형 무료 검사지 및 강의안', [온라인 자료] <https://blog.naver.com/davin333/222232147412>.

(ii) 성격 유형(DISC) 검사를 통하여 본인의 성격을 확인케 하며 장단점을 알게 한다.

(iii) 성격 유형별 성경 인물을 소개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성격에 맞게 사용하심을 알게 한다.

(iv) 서로의 성격 유형을 나누면서 관계를 세운다.

(3) 3주 차 프로그램

i) 주제 : 자연 속에 인간의 삶이 있음을 알기

ii) 목적 : 한 사람의 굳은 신념과 실천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회복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

iii) 내용 :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을 시청하고 느낀 소감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영향력과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더불어 한 사람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매일 매일의 꾸준한 실천이 어떤 결과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

<표 52> 3주 차 세부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 설명	5분	
2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 시청	30분	준비물 :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
3	소감 나누기	10분	
4	맺음말	5분	

iv) 준비 사항 :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¹⁶⁵

v)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하여¹⁶⁶

원제는 “The Man Who Planted Trees, 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 프레데릭 백(Frédéric Back) 감독의 1987년 작이다. 1987년 제14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랑프리과 1988년 제60회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내용은 한 젊은이가 프랑스의 알프스 여행길에서 폐허가 된 마을을 헤매며 불모의 땅을 걸어가다 한 양치기 노인을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 노인은 55세의 ‘엘제아르 부피에’, 사람들이 다 떠나 버린 희망이 없는 산속 마을에 홀로 남아 척박한 산 곳곳에 나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있었다. 34년 후 마을과 산은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됨을 통하여 자연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과 희망, 신념과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영상이다.

vi) 교육 내용

(i)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ii) 좋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음식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iii) 사람은 분명한 신념과 포기 하지 않는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4) 4주 차 프로그램

i) 주제 : 노동과 농업을 중요성과 농촌 선교에 대해서 알기

165)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gx5He0CsnAE>.

166) [온라인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8677&cid=58544&categoryId=58544>, 2021년 4월 28일 접속.

ii) 목적 :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노동을 가치와 노동의 핵심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선교와 농촌 선교에 대해서 알게 한다.

iii) 내용 : 영상 ‘리틀 포레스트(리뷰)’를 시청하고 주인공들이 왜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촌 친화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함께 나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노동의 가치와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선교와 농촌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표 53> 4주 차 세부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영상 ‘리틀 포레스트’ 설명	2분	
2	영상 ‘리틀 포레스트(리뷰)’ 시청	13분	준비물 : 영상 ‘리틀 포레스트(리뷰)’
3	소감 나누기	10분	
4	① 성경에서 노동과 농업과 관련된 내용 확인 ② 선교와 농촌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함	25분	

iv) 준비 사항 : 영상 ‘리틀 포레스트(리뷰)’,¹⁶⁷ 본 논문 2장을 참조하여 성경에서 노동과 농업을 다루는 내용 요약정리, 선교와 농촌선교의 성경적 배경 요약정리

v) 영상 ‘리틀 포레스트’에 대하여¹⁶⁸

임순례 감독 작품으로 2018년 상영작이다. 시험과 취업 등에 실패한 혜원(김태리 역)이 고향 농촌으로 내려와 귀농 친구인 재하(류준열 역)와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남게 된 친구 은숙(진기주

167) 리틀 포레스트는 100분이 소요되는 영화로 시간이 가능하다면 영화 그대로 시청해도 되지만 리뷰된 영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리틀 포레스트(리뷰)’,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uFaAeK881U4>.

168) [온라인 자료]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54449>, 2021년 4월 28일 접속.

역)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재배한 농작물로 요리해 먹는 장면을 통하여 힐링을 주는 영화로 총 상영 시간은 103분이다. 학생들과 전체 관람도 추천하지만 리뷰 영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

vi) 교육 내용

(i) 영화 속 주인공 혜원이 도시의 정크푸드가 아니라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으로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게 되는 내용을 통하여 농업 생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ii) 영화 속 재하는 왜, 귀농하게 되었으며 농업으로 만족감과 행복을 찾게 되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iii) 성경에서 나오는 노동과 농업을 확인하며 농업을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iv) 창조의 원리와 예수께서 활동하신 주 사역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면서 선교와 농촌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5) 5주 차 프로그램

i) 주제 : 농업이 희망의 대안이 될 수 있음과 농촌 선교의 중요성 알기

ii) 목적 : 변화하고 있는 농업의 위상을 알게 하고 농업도 충분히 희망의 대안으로 비전을 갖고 살아갈 기회가 됨을 일깨우고 농촌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

iii) 내용 : **MBC** 다큐멘터리 영상인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시청하고 한국 농촌 선교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한국 농촌이 어떤 길을 걸어왔음을 살핀다. 영상을 통하여 선진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생각과 활동들을 확인하고 한국에서도 농업으로 적지 않은 소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 농부들을 확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새롭게 다가오는 농업의 위상과 농업 활동으로도 충분히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표 54> 5주 차 세부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영상에 대한 설명	2분	
2	영상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시청	50분	준비물 : 영상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3	소감 나누기	13분	
4	① 한국 농촌 선교의 역사적 배경 ② 변화하고 있는 농업의 위상	15분	
5	농촌 선교의 필요성	10분	

iv) 준비 사항 : 영상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농업에 청춘을 걸었다',¹⁶⁹ 본 논문 2장을 참조하여 한국 농촌선교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정리, 논문 2장의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서 귀농자 현황과 귀농인들의 소득에 대한 신문 기사 참조

v) 교육 내용

(i) 한국의 농촌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한국에서 농업은 어떤 위상을 갖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며 농촌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ii) 선진 나라에서는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iii) 왜 청년들이 농업에 청춘을 걸었는가?

(iv) 귀농자들의 증가와 소득 현황을 통하여 농업이 희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며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

169) 영상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농업에 청춘을 걸었다',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Gh43uWlpWAU>.

(6) 6주 차 프로그램

i) 주제 : 원칙과 팀 활동의 중요성 알기

ii) 목적 :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원칙과 팀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iii) 내용 : 영상 ‘코치 카터’를 시청하고 느낀 소감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원칙과 팀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앞으로의 선교적 농업 활동의 계획을 소개하고, 수확 후 수익금으로 공동체 활동할 것을 약속하여 동기를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참여를 다짐받는다.

iv) 중요 포인트 : 학생들에게 작물 재배 계획을 설명한 후 작물 수확 후 수익금에 대해서 다 함께 (방학 기간에)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됨을 분명히 약속한다. 공동체 활동은 전국 투어, 놀이 공원 방문, 유적지 탐방 등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농업 활동에 참석을 다짐받는다.

<표 55> 6주 차 세부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영상 ‘코치 카터’ 설명	3분	
2	영상 ‘코치 카터’ 시청	17분	준비물 : 영상 ‘코치 카터(리뷰)’
3	소감 나누기	5분	
4	작물 재배 계획 설명	15분	수익 후 공동체 활동 약속
5	약속과 다짐의 시간	10분	

iv) 준비 사항 : 영상 ‘코치 카터(리뷰)’,¹⁷⁰ 농작물 재배 계획서

v) 영상 ‘코치 카터’에 대하여¹⁷¹

토머스 카터 감독의 ‘코치 카터(Coach Carter)’는 2005년 작으로 상영 시간은 136분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70년대 고교 농구팀의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켈 카터(사무엘 잭슨 역)가 중년이 되어 모교 리치몬드 고교 농구팀 코치를 맡음으로 시작된다. 주로 가난한 흑인 학생들이 다니는 리치몬드 고교는 대부분 학업을 포기하고 어둠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코치 카터는 원칙과 규율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원팀임을 강조하며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원칙의 필요성과 팀을 이루어 활동할 때 협력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영상이다. 학생들과 영화 전체 관람도 추천하지만 리뷰 영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vi) 교육 내용

- (i)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칙(약속)이 중요한 이유
- (ii)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팀 활동이 중요한 이유
- (iii)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행함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4. 소결론

농촌교회의 현실이 열악하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농촌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외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렵기 때문이라도 더욱 실천해 나감으로 농촌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미흡한 농촌 신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고한 농촌을 향한 소명과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가

170) 영상 ‘코치 카터(리뷰)’,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Pv01Jnkzw6k>.

171) [온라인 자료]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9857>, 2021년 4월 28일 접속.

필요로 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뒤로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처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농촌으로 내려올 수 있는 목회자의 결단과 소명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교회는 농촌에 위치한 교회로서 농촌이라는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목회와 선교가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농촌교회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교 방법이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이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교 활동, 교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에 특별한 교육이나 전도 프로그램이 요구되지 않는 선교 활동으로 농업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농업을 통한 농촌 선교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어린 학생들도 참여토록 하여 함께 땀을 흘리는 보람과 함께 수확의 기쁨으로 결과를 누릴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농업 활동으로 분명한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온 교인의 참여와 협력을 이루어 생명력을 잃은 농촌교회가 다시 활력과 열정을 되찾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 6 장

결론

각종 서적이나 학술지, 혹은 통계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농촌교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연구자가 농촌교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주변 농촌교회 목회자들과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희망을 발견한 곳이 농업 활동을 통하여 성장을 이룬 금암교회였다. 특히 농업 활동을 학생들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금암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교회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농업을 하는 것이 어떤 선교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확인하여 농촌교회에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선교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 기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2장에서 이론적 배경 연구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 농촌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고 아울러 ‘상황화’를 고려하여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3장은 연구자가 속한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 교회 가운데 농업을 통하여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산시 금암교회, 완주군 울곡교회, 진안군 좌포교회, 남원시 갈계교회를 사례로 연구 소개하였다. 4장은 설문 연구로 금암교회 교인들의 설문 자료를 통해 교회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펼친 농업 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을 연구 분석하였다. 5장은 앞서 사례로 제시된 4개의 교회와 설문 연구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특별히 금암교회가 학생들과 시작한 농업 활동으로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선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선교적 목적으로 농촌 교회가 농업 활동을 시행한 결과 찾을 수 있는 선교적 의미와 가치는 첫째,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보통 지역 사회 안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한다. 이렇게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경계가 있다는 것은 선교적 역량을 펼침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업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경계를 허물게 되었다는 점에서 선교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받을 만큼 그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그러한 때에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선교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가치 있다고 본다. 비록 이슈가 될 만한 대도시 대형교회는 아니더라도, 농촌 지역에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사회에 소개될 때, 실추된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업 활동을 통하여 그들처럼 얼굴과 옷에 거름과 흙을 묻혀가며 땀을 흘리는 모습은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이방인이 아니며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역시 선교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교회가 지역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례 연구로 제시된 교회들을 보면 울곡교회는 유기 축산과 유기 농업을 통한 전국 최초 시범 사업인 유기 순환 농법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었고, 좌포교회는 귀농인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협동농장을, 갈계교회는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환경 이점을 이용하여 문화마을 건설을 꿈꾸고 있다. 금암교회의 채금석 목사는 “농촌교회에서 농사가 가장 좋은 선교입니다.”¹⁷²라고 밝혔다.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방가르드로서 세상 속에서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이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어야 한다.”¹⁷³는 말처럼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점은 농업 활동이 주는 농촌교회의 가장 큰 선교적인 의미라 판단된다.

금암교회의 교인들은 농촌교회가 선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농업 활동을 실행한 결과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 성장에 도우며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동시에 개인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었으며 선교(전도)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이 60~70%였다. 또한, 지역 사회와 관련하여 교회가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되며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172) 2019년 11월 12일(화) 금암교회 채금석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용하였다.

173) Harvey G. Cox, 「세속도시」, 167-8.

대한 애착이 높아졌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었다고 약 55~65%의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은 교회와 개인의 성장을 가져왔고, 또한 교회와 지역 사회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가치 있는 선교적 열매라 하겠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에 있는 농촌교회가 선교 및 전도를 펼쳐 나감에 있어 지역 농촌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그들과 소통의 통로가 되며 나아가 함께 호흡하고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의미와 가치 있는 선교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농촌교회로서 농업 활동으로 선교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도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사례로 제시된 교회는 모두 전라북도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의 교회들이며, 또한 성공한 사례들로만 제시하였기에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그런데도 농업 활동으로 성장을 이룬 다수의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기에 어려움에 있는 농촌교회에 도전과 희망, 방향과 비전을 제공하는데 본 논문이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한 농촌교회의 모습으로 검증되었다. 사례로 연구 소개된 교회들과 설문 응답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긴 하였지만, 대표성과 지역적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농촌 선교의 뜻이 있는 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다른 지역의 농촌교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 참담한 농촌교회 현실 속에서 의지와 뜻, 그리고 선교적 열정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선교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발굴되어 이 논문의 결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10년 전 금암교회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30명 가까이 모였던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의 농촌 교회에서 학생들을 모으기 쉽지 않기에 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웃 교회들과 연합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비록 교회는 다를지라도 이웃 지역에 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크기에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는 점과 몇 번의 만남을 통해 함께 수고하면서 관계가 형성되면 적지 않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농촌에서 부름을 받고 농촌으로 보냄을 받은 농촌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선교 방안은 본 연구를 통하여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농업 활동으로 분명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온 교인의 참여와 협력을 이루어 생명력을 잃은 농촌교회가 다시 활력과 열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하여 농촌이 희망을 품고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 동의서 (한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실천 방안 연구: 금암교회를 중심으로

김진우

리버티 신학대학원

귀하를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금암교회 교인으로서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실천 방안 연구(금암교회를 중심으로)에 초대되었습니다. 귀하는 금암교회 교인으로서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의 상황을 잘 알고 또한 그 해결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참여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본 동의 문서를 잘 읽으시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해 주세요.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의 신학대학원(School of Divinity)에 소속된 박사과정중에 있는 김진우(KIM, JIN WOO)는 본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경설명: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 활동을 농촌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큰 어려움에 있는 한국 농촌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입니다. 또한 군산 금암교회를 하나로 연합 시키고 성장에너지로 삼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연구진행과정: 만일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 하신다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30 분의 시간과 무기명 설문 조사를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위험요소(Risk):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는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참여자가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와 같은 정도입니다.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혜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비밀유지: 본 연구의 기록들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게시 할 수 있는 보고서의 어떤 종류에서, 저는 그것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기록들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단지 연구자만 기록들에 접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의 어떠한 형태의 출판으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료들은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컴퓨터에 보관될 것이며 향후 연구 발표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삼 년 후에 삭제될 것입니다. 설문참여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그룹 밖의 사람들과 그룹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 고지(告知): 해당사항 없음

자발성에 입각한 연구: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의 가부가 귀하의 현재와 미래의 리버티 대학교, 금암교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뒤에도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참여중단이 위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를 중단하는 방법: 귀하가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실 경우 귀하의 설문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자에게 연구 참여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세요. 귀하의 응답들은 기록되거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연락처, 질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김진우(KIM, JIN WOO)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체 말고 82-10-9276-9262/ jkim107@liberty.edu 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교수: 82-01-2031-2985 yjlee@liberty.edu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고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지체 없이 International Review Board 로 연락을 하십시오: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B
부록 B

CONSENT FORM

**A STUDY ON THE PRACTICE OF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CASE OF GEUMAM CHURCH**

KIM, JIN WOO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You are invited to be in a research study ON THE PRACTICE OF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CASE OF GEUMAM CHURCH. You were selected as a possible participant because you are member of Geumam church who know well the situations of agricultural mission fields and are able to provide help for resolving problems in that field. Please read this form and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before agreeing to be in the study.

KIM, JIN WOO, a doctoral candidate in the School of Divinity at Liberty University, is conducting this study.

Background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veal how agricultural activities influence rural mission. Thus, this study is to help agricultural churches' ministry in Korea. Additional purpose is to unite Geumam church and provide resources for the church to grow.

Procedures: If you agree to be in this study, I will ask you to do the following things: Complete and answer 30-minute-long unscripted Survey questions.

Risks: The risks involved in this study are minimal, which means they are equal to the risks you would encounter in everyday life.

Benefits: Participants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 direct benefit from taking part in this study.

Compensation: Participants will not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Confidentiality: The records of this study will be kept private. In any sort of Report, I might publish, I will not include any information that will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a subject. Research record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only the researcher wi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Participants will be assigned a pseudonym. I will conduct the interviews in a location where others will not easily overhear the conversation. Data will be stored on a password locked computer and may be used in future presentations. After three years, all electronic records will be deleted. I cannot assure participants that other members of the focus group will not share what was discussed with persons outside of the group.

Voluntary Nature of the Stud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r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will not affect your current or future relations with Liberty University or Geuman church.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are free to not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at any time prior to submitting the survey without affecting those relationships.

How to Withdraw from the Study:

If you choose to withdraw from the study, please inform the researcher that you wish to discontinue your participation prior to submitting your study materials. Your responses will not be recorded or included in the study.

Contacts and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ing this study is KIM, JIN WOO.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have now. If you have questions lat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him at 82-10-9276-9262/ jkim107@liberty.edu. You may also contact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Yoojung Lee, at 82-01-2031-2985/ yjlee@liberty.edu.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is study and would like to talk to someone other than the research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C
부록 C

Survey Questions

This survey is designed for a dissertation titled “A STUDY ON THE PRACTICE OF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CASE OF GEUMAM CHURCH” It does not have its purpose on collecting other data. The contents and answers will not be used for other uses. Please refer to the explanation of the investigator and answer the questions. Thank you.

[Survey on General Present Condition]

1. What is your gender?

- ① Male ② Female

2. In which category does your age fit in?

- ① 21~30 ② 31~40 ③ 41~50 ④ 51~60 ⑤ 61~70 ⑥ over 71

3. Were you born as a believer?

- ① Yes ② No

4. How long have you been attending Geumam Church? (Include the years attending other churches)

- ① Less than 5 years ② 6~10 years ③ 11~20 years ④ 21~30 years
⑤ More than 31 years

5. What is your duty in the church?

- ① Student, Young Adult ② Layperson ③ Deacon ④ Deaconess, Ordained Deacon
⑤ Elder ⑥ Pastor

6.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ministry in farming area churches?

- ① Worship Ministry ② Prayer Ministry ③ Bible Study (Discipleship)
 ④ Fellowship ⑤ Mission (Evangelism) ⑥ Others

7. Through which medium did you obtain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church?

- ① Sermon ② Small group gatherings ③ Fellowship
 ④ Weekly bulletin ⑤ Others

[Survey on Disturbing Factors on Agriculture Activities for Missions]

8. What type of church do you think Geumam Church is?

- ① The Word and Prayer Driven ② Worship Driven ③ Small Group Driven
 ④ Program Driven
 ⑤ Mission and Evangelism Driven ⑥ Others

9. What type of church do you want Geumam Church to be?

- ① The Word and Prayer Driven ② Worship Driven ③ Small Group Driven
 ④ Program Driven
 ⑤ Mission and Evangelism Driven ⑥ Others

10. What do think is the most disturbing factor in church growth?

- ① Lack of Prayer ② Lack of Willingness for Missions (Evangelism)
 ③ Lack of Pastoral Leadership ④ Regional Characteristics
 ⑤ Lack of Bible Knowledge ⑥ Others

11. Do you think that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are necessary for church growth?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12. How much content are you with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Not Content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Content ⑤ Very Content

13. If you are not content with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what is the reason?

- ① Does not match with what I think of missions (evangelism).
 ② Numbers of church members not growing. ③ Too much financial payment.
 ④ Pastor experiences hardship ⑤ It is hard ⑥ Others

14. Do you think you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15. If you are not actively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what is the reason?

- ① There is no time for it. ② It is hard. ③ I don't like it.
 ④ Does not need my participation ⑤ Others

16. If there were church memb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what do you think was the reason?

- ① Lack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② Lack of Interest ③ Lack of Time to Spare
 ④ Lack of Cognition of Necessity ⑤ Lack of Faith ⑥ Others

[Survey on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and Church Growth]

17. What do you think of Geumam Church, as an agricultural church, conducting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Not Good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Good ⑤ Very Good

18. In what ways do you think that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are good for Geumam Church?

- ① It is relevant for agricultural church reality. ② It is friendly with rural people.
- ③ It helps the finance of the church.
- ④ It is an easy-approachable mission(evangelism) method.
- ⑤ It is good for church's reputation ⑥ Others.

19. Do you think that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are beneficial for growth of Geumam Church?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20. If there were benefits that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have given to Geumam Church, what do you they were?

- ① Better reputation of the church within the region ② Increase of finance of the church
- ③ Growth in numbers of church members
- ④ Increase of passion for missions (evangelism) ⑤ Unity of church members
- ⑥ Others

21. Did you become to love the church more as Geumam Church conducted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22. Did your faith grow as Geumam Church conducted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23. Did your passion for missions (evangelism) increase as Geumam Church conducted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24. What kind of change did you experience spiritually as Geumam Church conducted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Became to read the Word more. ② Became to pray more.
- ③ Became to concentrate on worship more.
- ④ Became to participate in fellowship (service) more.
- ⑤ Go to church more frequently ⑥ Others

25. What do you think are some bad influences that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has caused to Geumam Church?

- ① Weakened Prayer ② Weakened Worship ③ More occasions for serving
- ④ More occasions to show concern
- ⑤ Hinders pastoral activities of the pastor due to over-work ⑥ Others

26. Do you think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cause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27. Did you become to love the local community more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28. Do you think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give favorable impressions to local residents?

- ① Not at All ② So-so ③ Moderate Scale ④ Yes ⑤ Definitely Yes

29. What do you think the church needs when conducting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more actively?

- ① Pastor's active encouragement for participation
- ② Cooperation from church's important offices ③ Prayer ④ Financial Support
- ⑤ Participation of the church members ⑥ Others

30. Who do you think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Pastor ② Elder ③ Deaconess ④ Deacon ⑤ Young Adults
⑥ Others

31.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role as a senior pastor in pursuing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Leadership ② Knowledge in Agriculture ③ Mission Philosophy
④ Love for the Church ⑤ Faithfulness ⑥ Others

32.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 ① Love for the Church ② Passion for Missions (Evangelism) ③ Time to Spare
④ Love for Local Residents
⑤ Cognition of Need for Agricultural Activities for Missions ⑥ Others

Thank you for answering the survey questions.

Appendix D 부록 D

설문서 (한글)

본 설문서는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선교 실천 방안 연구: 금암교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기타 다른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된 설문 내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현황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① 21~30세 ② 31~40세 ③ 41~50세 ④ 51~60세 ⑤ 61~70세 ⑥ 71세 이상

3. 귀하는 모태신앙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4. 귀하는 (다른 교회를 포함하여) 금암교회를 몇 년간 출석하셨습니다?

-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20년 ④ 21~30년 ⑤ 31년 이상

5.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청년 ② 평신도 ③ 집사 ④ 권사, 안수집사 ⑤ 장로 ⑥ 목사

6. 귀하는 농촌 교회로서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예배 사역 ② 기도 사역 ③ 성경공부(제자훈련) ④ 친교 ⑤ 선교(전도) ⑥ 기타

7. 귀하는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정보를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 ① 설교 ② 구역모임 ③ 친교 ④ 주보 ⑤ 기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장애요인 조사]

8. 귀하가 생각하기에 금암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입니까?

- ① 말씀과 기도 중심 ② 예배 중심 ③ 소그룹 중심 ④ 프로그램 중심
⑤ 선교와 전도 중심 ⑥ 기타

9. 귀하는 금암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 ① 말씀과 기도 중심 ② 예배 중심 ③ 소그룹 중심 ④ 프로그램 중심
⑤ 선교와 전도 중심 ⑥ 기타

10.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도 부족 ② 선교(전도)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 ③ 목회리더십 부족
④ 지역적 특성 ⑤ 성경 지식 부족 ⑥ 기타

11.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농업 활동을 통한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귀하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하지 않는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3. 만약 귀하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생각하는 선교(전도)가 아니라서 ② 교인 수가 늘지 않아서 ③ 재정 지출이 많아서
④ 목사님이 고생하니까 ⑤ 힘들어서 ⑥ 기타

14. 귀하는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만약 귀하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② 힘들어서 ③ 마음이 들지 않아서 ④ 내가 없어도 되니까 ⑤ 기타

16.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참여 의지 부족 ② 관심 부족 ③ 시간적 여유 부족 ④ 필요성 부족 ⑤ 믿음 부족 ⑥ 기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과 교회 성장에 관한 조사]

17. 농촌교회인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좋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18.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에게 어떤 면에서 선교(전도)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교회 현실에 맞다 ② 지역 사람들과 친화적이다 ③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된다
④ 교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선교(전도)방법이다 ⑤ 교회 평판에 좋다 ⑥ 기타

19.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의 성장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에 끼친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내 교회 평판이 좋아짐 ② 교회 재정 수입 증가 ③ 교인 수 성장
 ④ 선교(전도)의 열정 증가 ⑤ 교인들 단합 ⑥ 기타
21.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였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금암교회가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귀하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말씀을 더 보게 되었다 ② 기도를 더 하게 되었다 ③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④ 친교(봉사)에 더 참여하게 되었다 ⑤ 교회 가는 횟수가 증가 되었다 ⑥ 기타
25.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이 금암교회에 끼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도 약화 ② 예배 약화 ③ 봉사할 일이 많아졌다 ④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
 ⑤ 목사님의 업무 과다로 목회활동에 지장이 된다 ⑥ 기타
26. 선교를 위한 농업활동이 지역 사회에도 좋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선교를 위한 농업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선교를 위한 농업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자 할 때 교회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담임목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② 교회 중직자들의 협조 ③ 기도 ④ 재정적인 지원
 ⑤ 성도들의 참여도 ⑥ 기타
30.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목사 ② 장로 ③ 권사 ④ 집사 ⑤ 청년 ⑥ 기타
31.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을 추구함에 있어서 담임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리더십 ② 농사 지식 ③ 선교 철학 ④ 교회에 대한 사랑 ⑤ 성실함 ⑥ 기타

32.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회사랑 ② 선교(전도)에 대한 열정 ③ 시간적 여유 ④ 지역민에 대한 사랑
⑤ 선교를 위한 농업 활동의 필요성 인식 ⑥ 기타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강병도 편. 「카리스종합주식 제 11 권 출애굽기 32-40 장」. 서울: 기독지혜사, 2004.
- _____. 「카리스종합주식 제 1 권 마태복음 1-9 장」. 서울: 기독지혜사, 2005.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8 권블라다~성서문체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김성욱. 「개혁주의 선교신학」. 서울: 이머징북스, 2013.
- 김세진, 윤희윤, 백정훈. “땅과 더불어 커져가는 사랑 열매”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2012.
- 김일우. 「농어촌 교회여!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흥의 주춧돌을 놓자」. 서울: 좋은땅, 2009.
- 김태명 외 다수. 「농촌 활력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김한중. “도시와 농촌간 인구 이동 현황과 시사점” 「NH 농협 조사월보」. 서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5.
- 김항안 외 18 명. 「21 세기 전도방법과 교회성장」. 서울: 글로리아, 1999.
- 농촌선교연구소 편. 「목원의 꿈 · 농촌 선교」. 대전: 도서출판정, 2000.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부 편. 「교회와 농민」. 서울: 도서출판양서각, 198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부. 「교회와 농민선교편」. 서울: 양서각, 1986.
- 목회와신학 편집부. 「이사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8.
- 문희석. 「창조 신학」. 서울: 보이시스, 1976.
-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_____. 「현대 신학 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 박봉배. 「기독교의 비 종교화」. 서울: 법문사, 1975.
-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1958.

- 손창남. 「문화와 선교」. 서울: 조이선교회, 2014.
- 신동우. 「선교학 : 이론과 실제」. 서울: 예루살렘, 1993.
- 원승룡 & 김종현. 「문화 이론과 문화 철학」. 경기도: 서광사, 2008.
- 유재영. 「내 손으로 재배하는 채소 70 종」. 서울: 동학사, 2003.
- 이원규.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이타기 토시타카. 「가정 채소재배 대백과」. 장광진 역. 서울: 동학사, 2004.
- 이하운. 「청소년 사역의 새 지평」. 서울: SFC, 2012.
- 이희승 편자. 「국어대사전」. 경기도 파주: 민중서림, 2008.
- 장훈태. 「선교학의 성서적 이론과 실제」. 서울: 솔로몬, 1998.
- _____.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 서울: 대서, 2012.
- 심철흠. 「텃밭 농사 무작정 따라하기」. 서울: 도서출판길벗, 1990.
- 전덕열. 「농민선교에 대한 성서적 근거」. 서울: 보이스사, 1976.
- 전호진. 「선교학 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한경호 엮음. “여태권 목사의 울곡교회 이야기” 「생명의 영성이 약동하는 농촌 목회 현장 이야기」.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8.
- 한국기독교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NCC 신학연구위원회.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9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 마태복음 제 1-11a 장」. 서울: 제자원, 2006.
- _____.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 창세기 제 1-11 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황의영. 「목사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0.
- Coleman, Rober E. 「주님의 제자 훈련계획」. 김영현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Cox, Harvey G. 「세속도시」. 구덕관 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Engen, Charles E. Va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Glover, Robert H. 「세계선교의 발달」. 이요한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72.
- Harrison, Everett F. 「신약개론」. 정성구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91.
- Kaiser, Walter C. Jr. 「구약성서와 선교」.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Oden, Thomas C.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Ott, Craig, Stephen J. Strauss, Timothy C. Tennent. 「선교신학의 도전」. 변진석, 엄주연 외 5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Verkuyl, Johannes. 「현대 선교신학 개론」.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Wigram, George V. 「구약성구사전 1권」. 서울: 기독교문화사, 1979.

2. 영서

- Barth, Karl. *An Exegetical Study of Matthew 28:16-20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ed, G. H. Anderson. New York: McGraw-Hill, 1961.
- Brunner, Edmund D. S. *Rural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8.
- Glover, Robert H. *The Bible Basis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79.
- Miller, Haskell M. *Compassion and Community*.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1.
- Peters, George W.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Chicago: Moody Press, 1972.
- Wright,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Michigan: Zondervan, 2010.

3. 정기간행물

- 김인호. “한국교회 셀 목회의 역사와 과제”. 「목회와 신학」. 2013년 9월.
- 김종석. “농어촌교회 목회와 교회환경실태조사”. 「월간목회」. 1991년 3월.
- 김춘기. “21세기 농촌선교에 대한 신학적 접근 제 2권”. 「농어촌 목회와 신학」. 1998년 봄.
- 박용규.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농촌 선교와 부흥”. 「목회와 신학」. 2005년 9월.

- 윤석용. “한국농촌선교에 도전한다”. 「월간목회」. 1991년 3월.
- 임형백.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다문화사회연구」. 2009 Vol.2 No.1.
- 지역농업연구원. “농민만의 농업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농업을 꿈꾸며”. 「씨오쟁이」. 2011. 4월 통권 12호.
- 차정식. “예수님의 농촌 목회”. 「목회와 신학」. 2005년 9월.
- 한경호. “농촌 선교와 생명 살리기 운동”. 「선교와 신학」. 2008 Vol 22.
- 홍영기. “한국교회의 정신적구조 조정”. 「기독교신문」. 2004년 4월 4일 4면.

4. 온라인 자료

- CBS 노컷뉴스, 송주열. “주요 장로교단, ‘목사 늘고 교인 줄고’ 교세 감소”. [온라인 자료]
<http://www.nocutnews.co.kr/news/5424612>, 2021년 3월 24일 접속.
- 국민일보, 김규원. “농어촌교회/ 우리가 도우면 자립과 부흥 온다”. [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7061300000>. 2001. 2019년 10월 20일 접속.
- _____, 우성규.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결하는 경제공동체 돼야”. [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9234&code=23111111&cp=nv>. 2021년 3월 11일 접속.
- _____, 전정희. “국민일보선정 아름다운 교회길 (15) 전북 남원 갈계교회”. [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993270>. 2021년 3월 12일 접속.
- 군산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www.gunsan.go.kr/main/m398>. 2020년 8월 20일 접속.
- 기독교신문, 노충헌 박용미 정원희. “주요 장로교단 교세 통계다음 세대 감소비율 뚜렷”. [온라인 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77>. 2021년 3월 24일 접속.
- 남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www.namwon.go.kr/board/list.do?boardId=BBS_0000121&menuCd=DOM_000000204014003002&contentsSid=606&cpath=. 2021년 3월 12일 접속.
- 농협팍스태이. [온라인 자료] <https://www.farmstay.co.kr>. 2019년 10월 20일 접속.
- 목회데이터연구소. “지난 1년간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온라인 자료]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33. 2021년 3월 24일 접속.

- 문화일보, 이민중. “귀농 연 4,00 가구 돌파”. [온라인 자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22501071624219002>. 2019년 10월 20일 접속.
- 완주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5004003000. 2020년 9월 15일 접속.
- 월간중앙, 임현진 공석기. [온라인 자료]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8287>. 2021년 3월 11일 접속.
- 전남일보. “전남 역대 부농 5천농가 돌파...50대·고흥·식량작물 ‘최다’”. [온라인자료]
<https://jnilbo.com/2019/02/09/2019020918342530195/>. 2019년 10월 20일 접속.
- 진안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www.jinan.go.kr/stats/synap/skin/doc.html?fn=158587556007368.xlsx&rs=/upload_data/Synap/BBS_0000114/&cpath=%2Fstats. 2021년 3월 11일 접속.
- 통계청, 주요인구지표(2019). [온라인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tat.go.kr>. 2019년 10월 20일 접속.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prok.org/>. 2021년 3월 15일 접속.
- 헤럴드경제, 정경수. “농촌 인구 10명 중 4.5명이 노인...쌀 소비 40년 새 반토막”. [온라인 자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4000616>. 2019년 10월 20일 접속.

5. 학위논문

- 임윤건. “고령화 사회의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교회신학 전문대학원, 2010.
- 김한영. “한국의 농촌 미자립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4.
- 신민주. “한국교회의 산업화 이후 농촌 선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 유병현. “농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중심전도이론에 대한 연구: 덕산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2.
- 임윤건, “고령화 사회의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2010.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March 6, 2020

Jinwoo Kim

IRB Exemption 4067.030620: A Study on Rural Mission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The Case of Geumam Church

Dear Jinwoo Kim,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2) Research that only includes interactions involving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including visual or auditory recording)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met:

(i) The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by the investigator in such a manner that the identity of the human subjects cannot readily be ascertain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Research Ethics Office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